

보험동향 2014년 가을호

Ⅰ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Ⅰ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김석영 (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아름 (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해랑 (연구원)
Ⅰ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김석영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진억 (수석담당역) 이해랑 (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원) 채원영 (연구원)
Ⅰ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이해랑 (연구원) 영 국 김진억 (수석담당역) 일 본 이아름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 목차

I. 테마진단

- 위안화 활용도 제고 합의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1
-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와 시사점 / 18

II. 경제금융 동향

- 1. 세계경제 / 36
- 2. 국내경제 / 54
- 3. 금융경제 / 66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 1. 보험산업 총괄 / 72
- 2. 생명보험 / 75
- 3. 손해보험 / 89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 1. 미국 동향 / 111
- 2. 영국 동향 / 118
- 3. 일본 동향 / 127
- 4. 중국 동향 / 135

부록 I. 통계표 / 145

부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152

I. 테마진단

❖ 위안화 활용도 제고 합의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1. 검토배경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이 합의되었음. 이는 한-중간 대외 무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이에 본고는 동 방안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경제협력분야에서 한-중 FTA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위안화 활용도 제고를 통해 양국간 금융·통화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로 합의함(2014. 7. 3).

■ 이러한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합의는 한-중 무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한-중 간 대외무역 규모가 약 2,300억 달러(2013년 기준)로 최근 5년 동안 36%(최근 1년 동안 6%) 증가하고 있어, 양국간 통용되고 결제비용이 작은 통화가 필요함(〈표 1〉참조).
-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위안화 역외금융허브 유치 및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위안화 역외금융허브로 육성할 필요성을 인식함.

〈표 1〉 한-중 무역 관계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08	'09	'10	'11	'12	'13
한중 무역 규모	1,683	1,409	1,884	2,206	2,151	2,289
(우리무역 중 비중)	19.6	20.5	21.1	20.4	20.2	21.3
대중 무역 흑자	145	325	453	478	535	628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4. 7. 3), '한-중 정상회담,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주요 합의내용 및 의의'.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먼저 이번에 합의된 위안화 활용도 제고의 세부 내용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자 함.
- 다음으로 위안화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또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함.

2.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의 주요내용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1) 한국에서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2)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3)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의 자격 부여, 4)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장려임.

■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주요 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한국은 중국 외환 시장에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
-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한국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
- RQFII 자격 부여: 한국에 800억 위안(약 13조 450억 원)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¹⁾을 부여
-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장려: 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장려²⁾

가.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은 국내 은행간 시장에서 원-위안화가 간접거래가 아니라 직접거래가 되는 것을 의미함.

- 직거래시장 개설 이전에는 먼저 원/달러³⁾ 외환시장에서 원화-달러화 거래를 한 이후 위안/달러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위안화 거래를 통해 위안화를 확보함(〈그림 1〉의 〈달러를 매개로 한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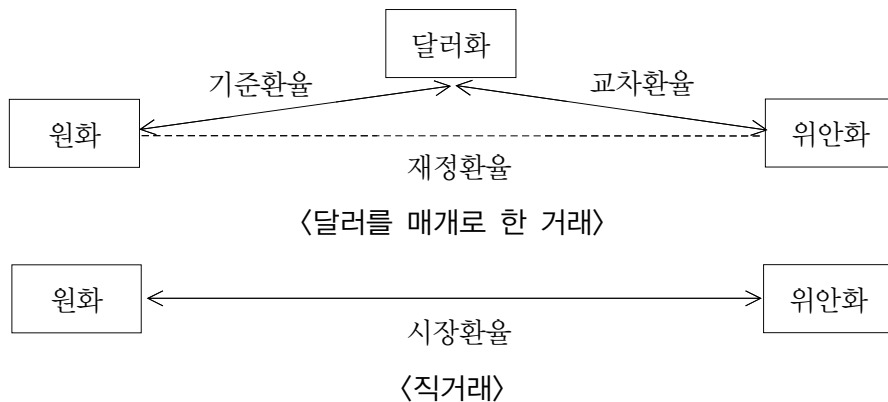
1) RQFII 자격은 한국에서 주요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증권감독기관으로부터 자산운용 인가를 받고 기존 자산운용 비즈니스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부여되며, 상세한 자격요건은 추후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가 결정할 예정임.

2) 우선적으로 한국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장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향후 중국 역내에서 우리 기업 또는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채권 발행 가능성도 염두에 둬.

3) 미국달러화를 달러로 통칭함.

- 원-위안화 환율은 원-달러 환율(기준환율)과 위안-달러 환율(교차환율)을 이용하여 결정됨.
- 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되면,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원화와 위안화의 거래가 직접 교환을 통해 이루어짐(〈그림 1〉의 〈직거래〉).
- 직거래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될 경우, 원-위안화환율은 이 시장에서의 위안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그림 1〉 원-위안화 외환거래시장과 환율



■ 이번에 합의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특징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달리 직거래시장을 위안화의 상대국인 한국에 먼저 개설한다는 점임.

- 중국은 본토 밖의 역외 위안화 시장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규정⁴⁾에 따라 역외 원화거래를 제한함.
-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볼 때, 자국이 아닌 중국 상해 외환시장에만 개설하거나 자국과 중국 동시에 개설함.

4)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7-8조) 및 처분(7-9조) 사유에 경상거래 및 일부 허용된 자본거래(상장증권의 매매, 통화스왑자금 관련 거래 등) 이외의 비거주자 간 원화 이체 및 처분을 제한함.

나.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 한국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함(2014. 7. 4).
 - 홍콩, 대만 등의 중화권 국가를 제외하면, 영국, 독일의 유럽 국가에 이어 세 번째로 위안화 청산은행이 지정됨.
- 위안화 청산은행이란, 중국 본토 밖인 역외에서 위안화 결제대금의 청산⁵⁾을 담당하는 은행을 의미함.
 - 위안화 청산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의 결제시스템(CNAPS)과 연결되어 역외 위안화 거래 결제대금의 청산·결제 업무를 수행함.
 - CNAPS(China National Advanced Payment System)는 중국인민은행의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으로, 역내의 경우 중국 은행들이 이 결제시스템을 통해 청산·결제 업무를 수행함.
 - 청산 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은행들의 계좌를 개설·관리할 뿐만 아니라, 위안화 유동성 공급⁶⁾ 등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사실상 중국인민은행의 역외 지점 역할을 수행함.

다.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 부여

- 한국에 800억 위안(약 13조 450억 원)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자격을 부여함.
- 최근 위안화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RQFII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RQFII가 QFII보다 이용 편리성에서나 제도 면에서 유연성이 크기 때문임.⁷⁾

5) 청산(Clearing)이란 금융기관 간 주고 받을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뜻함.

6) 청산은행은 중국 내 본점으로부터 위안화를 공급받을 수 있어 국내에 위안화 유동성 공급 가능함.

7) QFII와 RQFII 비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Richard Mazzochi, Minny Siu and Hayden Flinn(2013) 참조.

- 중국정부는 RQFII 또는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적격해외기관투자자)를 통해서만 중국 본토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허용함.
- 중국 본토 박인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본토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QFII 제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QFII: 외화 자금(예, 달러)을 중국 역내에서 위안화로 환전 후 중국 시장에 투자
 - RQFII: 중국 밖 해외시장에서 조달한 위안화 혹은 역외에서 환전한 위안화 자금을 중국 시장에 직접 투자
- 또한, QFII는 현금(Money Market Fund 포함) 20% 이하, 주식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RQFII는 100%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자산분배에 관한 규제가 없음.
- 자금 유출입도 RQFII가 QFII보다 편리한데, QFII 공모 자금⁸⁾은 자금 유출입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이 있지만, RQFII 공모 자금은 일일 유출입이 가능함.

■ 한국은 홍콩, 대만,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에 이어 전 세계 6번째로 RQFII 한도를 부여 받음.

- 현재 총한도는 5,800억 위안으로 국가별 총할당액은 홍콩 2,700억, 대만 1,000억, 싱가포르 500억, 그리고 한국, 영국, 프랑스 각각 800억 위안임.

라.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 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장려함.

- 한국 채권시장에서 한국 또는 외국의 기업 및 금융기관이 위안화 표시 채권을 원활히 발행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한다는 의미임.
- 또한, 중국 본토에서 한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채권 발행 가능성을 열어둠.
 - 현재 중국 당국은 한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들이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 표시채권을 자유롭게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향후 양국이 이 사항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둠.

8) 공모 자금은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의미함. 반면, 소수의 투자자들로 부터 모은 자금은 사모 자금이라 부름.

마. 다른 국가의 위안화 관련 인프라 구축 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

- 다른 국가와 달리 단기간에 위안화직거래와 RQFII를 동시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을 위안화허브구축의 중요한 포스트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함(〈표 2〉 참조).
 - 현재 위안화와 직거래 되는 통화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러시아 루블화,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호주 달러화, 뉴질랜드 달러화,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 총 7종임.
 - 위안화직거래와 RQFII를 동시에 부여받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영국의 경우 시간차를 두고 RQFII 한도 획득 이후 직거래시장을 개설하였음.
- 원화 국제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본토 내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⁹⁾
 - 서울에서만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이 도입되면, 국내 중국 무역업 또는 투자에 관심 있는 거래자로 시장참여자가 국한됨.
 - 반면 중국 본토 내 원화 직거래시장 개설은 중국 무역업자 또는 투자자에게 원화의 국제 거래 서비스(무역 invoice 통화 또는 투자 대상 통화 서비스) 제공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양국 동시 직거래시장 도입이 원화 국제화 제고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원화 국제화를 위한 로드맵의 부재로 중국 내 원화 직거래시장 도입을 반대하였음.

〈표 2〉 해당국의 위안화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시기

구분	홍콩	싱가포르	영국	대만	독일	프랑스	한국
직거래시장 개설	-	-	'14.6월	-	-	-	예정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03.12월	'13.4월	'14.6월	'12.12월	'14.6월	-	예정
RQFII 획득	'11.12월	'13.10월	'13.10월	'13.1월	'14.7월	'14.3월	예정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체결	'08.2월	'10.7월	'13.6월	-	-	-	'08.12월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4. 7. 3), '한-중 정상회담,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주요 합의내용 및 의의' 인용 및 추가.

9) 원화 국제화에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4장을 참고하기 바람.

3.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 합의의 기대효과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 합의는 단기적으로 원-위안화 환거래 및 결제수수료를 절감 시키고, 국내 투자자에게 위안화 투자를 다양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역외금융허브로의 성장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로 인한 결제 및 거래 통화의 다변화는 금융시장의 질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 합의는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와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직접적인 효과

-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도입)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 절감
-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결제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고, 위안화 자산의 국내 축적을 유도
- (RQFII 자격 부여) 국내 투자자에게 위안화 투자를 다양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무역결제통을 통한 위안화 보유 유인을 제고
-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위안화 역외금융허브로의 성장을 촉진

○ 중·장기적인 효과

- 금융산업의 발전 계기 마련: 위안화 역외금융허브로의 성장
- 금융시장의 질적인 성장: 결제 및 거래 통화의 다변화

가. 직접효과

1)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도입

■ 한국에서 개설될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환전 절차가 간단해져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절감

- 국내 은행들은 지금까지 원-위안화 거래 시 달러를 매개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환전수수료에 반영 되었음.

- 현재 대부분 국내 은행의 위안화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7% 수준이지만, 미국 달러와 일본 엔은 모두 1.75% 수준임.
- 한국에서 개설될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가장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최대 위안화 환전수수료가 2~3%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음.
 - 역외 위안화 활용 관련 인프라 구축이 가장 잘 된 지역인 홍콩을 살펴보면, 홍콩 달러-위안화의 환전수수료¹⁰⁾가 약 1.3%인데, 홍콩 달러-미국 달러의 환전수수료가 약 0.8%이므로 나머지 약 0.5%는 내재되어 있는 미국 달러-위안화의 환전수수료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전수수료는 약 1.75%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가장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최대 위안화 환전수수료가 2~3%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음.
- 지난해 대중무역이 총무역의 21.3%를 차지한 2,289억 달러(약 239조 원)였기 때문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효과는 최대 약 10~12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거래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야 하지만, 현실은 유동성이 미미하여 직거래시장이 조만간 활성화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 원-위안화 시장의 호가 스프레드¹¹⁾는 12%¹²⁾로 매우 높은데, 이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의 유동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함(이 중 원-달러화의 호가 스프레드는 3.5%, 달러-위안화의 호가 스프레드는 8.5%).
- 이러한 원-위안화 시장의 높은 호가 스프레드는 자본거래 목적으로 역외 원화 사용(원-달러화 호가 스프레드에 영향) 및 위안화 사용(달러-위안화 호가 스프레드에 영향)에 제한을 둔 것을 반영하고 있음.

10) 2014년 10월 14일 현재 HSBC Hong Kong 환율자료 참조.

11) 호가 스프레드는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차이를 두 호가의 평균으로 나눠서 계산함. 호가 스프레드가 높(낮)으면 유동성이 낮(높)음을 의미함.

12) 2014년 10월 14일 현재 외환은행 대고객 환율자료 참조.

2)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 한국 내 위안화 청산체제의 구축은 결제수수료 비용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내 위안화 청산은행을 이용하면 홍콩에 있는 위안화 청산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결제단계가 축소되어 결제수수료 비용이 절감됨.

■ 또한, 국내에 위안화 자산이 축적되어 다양한 위안화 비즈니스 기회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국내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없어 결제 목적의 위안화를 홍콩에 예치해야 함에 따라 국내에 위안화 자산이 축적될 기회가 적었음.

3) RQFII 자격 부여

■ RQFII는 국내 투자자에게 위안화 투자 기회를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국내 위안화 예금의 급증은 국내 투자자의 위안화 투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함.
 - 국내 위안화 예금 잔액은 2011년 말 0.8억 달러에서 2014년 6월 말 119.7억 달러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는 주로 중국은행들의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위안화 정기예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 향후 국내 RQFII는 직접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 영내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출시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RQFII 자격 획득으로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활성화 가능성도 높아짐.

- RQFII를 통한 중국 역내 투자처가 확보될 경우, 위안화 보유 유인이 높아져 위안화 표시 무역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될 수 있음.
- 한편, RQFII 한도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투자자들의 위안화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
 - 위안화 자금의 국내 유입은 국내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의 하부구조가 경쟁국들(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낙후되어 위안화거래규모가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활성화는 한국이 위안화 역외금융허브로 성장하는데 필수적 요소임.
 -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이 발행될 경우 해외 위안화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음.
 - 위안화 채권 발행은 국내의 위안화 자산에 대한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위안화 보유 수요를 제고함.
 - 채권 발행 확대를 계기로 위안화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거래가 기대됨.

나. 중·장기적 기대효과

1) 금융산업의 발전 계기 마련: 위안화 역외금융허브로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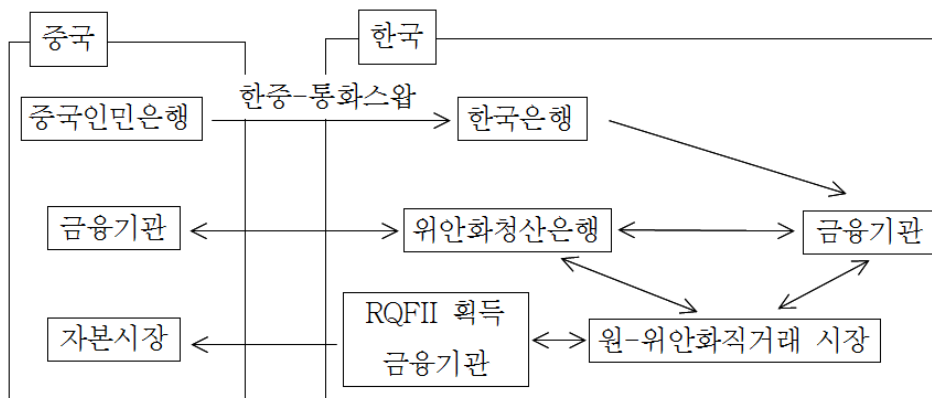
- 무역흑자 상황인 대중 교역관계 및 향후 구축될 위안화 거래·결제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위안화 역외금융허브로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할 것으로 평가됨.
 - 과거 한국 정부는 원-엔 직거래시장('96.10월~'97.1월)을 개설했다가 4개월 만에 폐지한 실패 경험이 있음.
 - 원-엔 시장의 거래 부진은 대일 무역적자 지속에 따른 엔화 공급 부족과 인프라 관련 구축 미비로 인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이번에는 정부가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청산은행 지정 및 RQFII 획득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역외금융허브로서 성장가능성이 큼(〈표 3〉과 〈그림 2〉 참조).
 - 위안화 청산은행을 지정함으로써 국내 위안화 결제절차가 간소화됨.
 - 대중 무역 확대와 위안화 포트폴리오 투자(RQFII) 증대로 인해 자발적인 시장 수급이 형성되어 직거래시장의 유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표 3〉 위안화 역외금융허브 구축 관련 전제조건 및 우리나라 현황

구분	인프라 측면	위안화 수요 측면	위안화 공급 측면	현재 구축여부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	-	-	×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	-	○	×
RQFII 획득	-	○	-	×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	○	-	△
한-중 통화스왑자금 활용	-	-	○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4. 7. 3), ‘한-중 정상회담,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주요 합의내용 및 의의’.

〈그림 2〉 위안화 역외금융허브 구조 및 위안화 자금 흐름



■ 위안화 역외금융허브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됨.

- 무역금융·대출 등 위안화 지급중개가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산업에 새로운 영업기회를 제공함.
- 이는 한-중 무역관계를 개선시켜 양국간 무역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수행함.

■ 또한, 투자상품 다변화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관리능력을 제고시킴.

- 중국자본시장은 국제적으로 자산관리측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벤치마크 핵심 지수로 부상 중임.
- 중국 본토 채권시장의 문을 여는 RQFII를 확보함으로써 4,40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을 통해 국내에 다양한 중국 채권 관련 상품 개발이 기대됨.

■ 마지막으로,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대비하여 향후 중국의 공적,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

-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자본통제, 금리 및 환율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추진 중임.
- 이러한 규제 완화는 중국의 공적, 민간 자본의 금융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유도하여 중국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시킴.
- 이번 합의로 인해 중국과의 자본거래가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의 공적,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2) 금융시장 질적인 성장에 기여: 결제 및 거래 통화의 다변화

■ 결제통화 다변화를 통해 달러화 의존도를 낮출 경우, 현재와 같이 달러자금의 유출입에 따라 지나치게 민감한 우리 경제체질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통화가 다양해지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어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외환·금융시장의 폭은 통화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깊이는 통화의 거래규모 및 유동성을 의미함.

4. 정책적 시사점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 합의의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안화 국제화와 더불어 원화 국제화가 병행되어야 하고, 위안화 역외금융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완비가 필요함.

■ 3장에서 설명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원화 국제화 병행
 - 원화 국제화 로드맵 제시
 -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 위안화 역외금융허브의 성공적인 구축
 -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중개시스템 구축 및 시장조성자 지정
 - 위안화 금융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제도 마련
 - 국내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화

가. 원화 국제화 병행

■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이 한국 경제발전의 기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위안화 국제화와 더불어 원화 국제화가 병행되어야 함.

- 원화 국제화란 원화가 국제 자본거래상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법적인 측면에서의(de-jure) 국제화를 말함.
 - 실제적인 면에서(de-facto) 원화 국제화란 국제 자본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원화를 수요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 원화 국제화는 법적인 국제화가 선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원화가 법적인 측면에서 완전 국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제화로 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국제 무역 및 투자 거래상의 편의, 환위험 서비스의 다양화, 국제 통화로서의 위상, 원화 국제화에 따른 해외 신용도 제고 등)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중국에도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되어야 함.

-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제화 계획이 무한정 연기되어 사실상 사장된 것과 다름이 없으며(〈표 4〉 참조),
- 현행 규제에 따르면 원화의 자본거래 결제가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원화 국제화 로드맵 작성을 토대로 조속히 외국환거래규정 완화를 통해 중국에 원화-위안화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표 4〉 금융위기 이전 외환자유화 현황 및 추진방향

외환시스템	현행	'09년 말 이후
원화국제화	정상거래결제 : 자유화	정상거래결제 : 자유화
	자본거래결제 : 제한 * 국내 장내거래 등만 허용	⇒ 자본거래결제 : 확대 * 경제여건에 맞추어 단계적 확대
	원화수출입 제한	원화수출입 자유화

자료: 재정경제부(2007).

나. 위안화 역외금융허브의 성공적인 구축

■ 위안화 역외금융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1)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활성화, 2) 위안화 지급결제에 관한 시장의 신뢰 확충, 3) 국내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위안화 투자수요의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 첫째,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중개시스템 구축 및 시장조성자 지정

-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중개시스템 형태를 정하고, 이에 따라 조속한 중개시스템 확보가 필요함.
- 초기 직거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부여될 의무와 혜택도 규정화해야 함.

■ 둘째, 위안화 금융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제도 마련

- 예를 들어, 위안화 영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유동성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제도(RMB Liquidity Facility) 등을 도입하여 위안화 지급결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함.

■ 마지막으로, RQFII 자격 취득 지원 및 위안화 수급창출을 위한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 허용

- RQFII 지정 및 기관별 쿼터 발급은 중국 정부가 통제¹³⁾하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이 쿼터 승인에 걸리는 시간과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최근 부진한 중국 증시와 불투명한 채권 시장으로 인해 국내투자자의 중국투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 투자 수요 확보를 위한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이 시급함.

13) RQFII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와 중국외환관리국(SAF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의 인가 및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며, 중국 역내 계좌와 투자에 대해 중국인민은행과 SAFE의 감독을 받게 됨.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보도자료(2007. 9. 10), ‘외환자유화 추진방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 보도자료(2014. 7. 3), ‘한-중 정상회담,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주요 합의내용 및 의의’.

Richard Mazzochi, Minny Siu and Hayden Flinn(2013), *KWM Connect, QFII and RQFII - a practical insight to recent developments.*

◆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와 시사점

오승연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최근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에서 가계의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주식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본 고에서는 최근의 추세가 인구 고령화가 반영된 장기적인 변화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연령별 금융자산 구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보험 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 2013년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8.9%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한국은행의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641조 9,080억 원이며, 그 중 보험 및 연금은 763조 8,960억 원임.

○ 보험 및 연금자산의 증가추세와 달리 주식의 비중은 최근 들어 약간 감소하였음.

〈표 1〉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구성(2013년 말)

(연말, 십억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r	2013p
현금통화 및 예금	790,930	883,578	986,756	1,070,225	1,129,286	1,200,908
	46.60%	45.01%	45.10%	46.48%	45.53%	45.46%
보험및연금	424,176	476,596	534,711	591,387	680,386	763,896
	24.99%	24.28%	24.44%	25.68%	27.43%	28.91%
채권	192,414	220,095	212,589	205,324	226,799	217,808
	11.34%	11.21%	9.72%	8.92%	9.14%	8.24%
주식	282,342	375,459	445,989	426,969	434,465	449,569
	16.64%	19.13%	20.38%	18.54%	17.52%	17.02%
기타금융자산	7,312	7,382	7,846	8,718	9,275	9,726
	0.43%	0.38%	0.36%	0.38%	0.37%	0.37%
합계	1,697,175	1,963,108	2,187,892	2,302,622	2,480,210	2,641,908

주: 2012년은 수정치(r), 2013년은 잠정치(p).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잠정).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이 유동화, 안전화 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¹⁴⁾

■ 이러한 가계 금융자산의 변화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반영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보다 장기간에 걸친 가계의 자산선택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인구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¹⁵⁾의 은퇴는 가계의 자산구성에 변화를 초래하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본 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세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보험 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구성의 변화를 거시자료를 통해 비교함.

○ 고령화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살펴봄.

○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가계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 금융자산 중 위험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봄.

○ 최근에 나타난 가계의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 자산 비중의 증가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함.

14) OECD(2014b).

15)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

2.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성의 특징

생애주기별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보험 및 연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생명보험자산이며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하위 수준임.

■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의 특징은 부동산 편중, 안전자산 위주의 금융자산보유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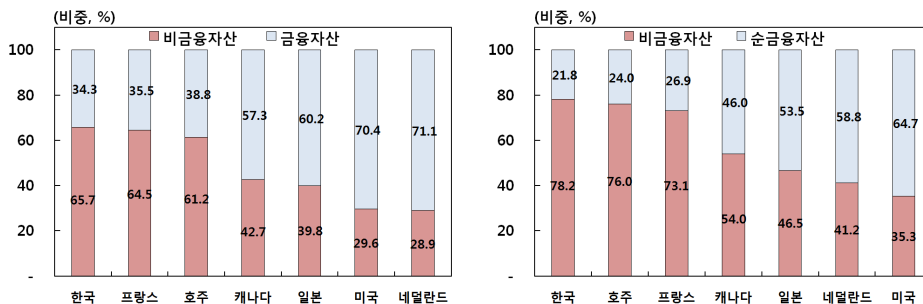
○ 이는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택제약(housing constraint)이 심하고, 위험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임.

■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66%로 미국(30%), 일본(40%)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

○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6,056.7조 원 가운데 비금융자산은 4,736.5조 원, 순금융자산은 2,474.1조 원으로 추정됨.¹⁶⁾

○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을 기준으로 한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78%로 상승함.

〈그림 1〉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2012년 말)



자료: 한국은행·통계청 보도자료(2014. 5), 「국민대차대조표」.

16) 2014년 5월 발표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국민대차대조표의 결과임.

■ 이처럼 높은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자산변동성이 커지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유동성 제약에 걸리기 쉬운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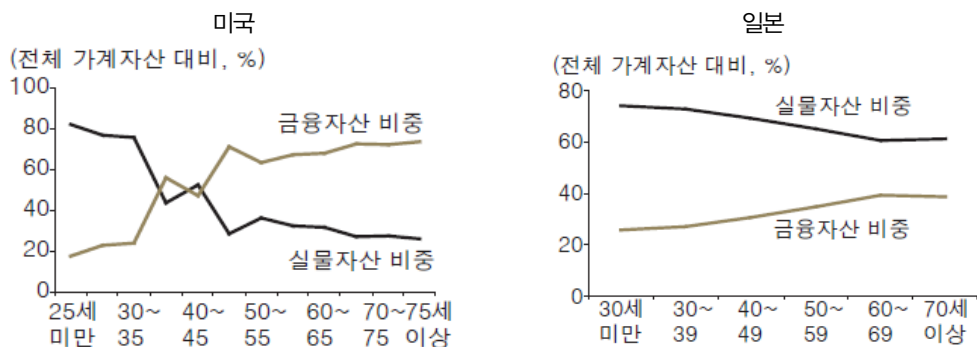
■ 한편, 가계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 구성 이론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실물자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택에 대한 투자는 금융자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 주택을 구매하면서 생긴 가계의 유동성 제약은 이후 생애기간동안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줄어들게 되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함.
- 또한 가계는 주택을 소유하기 전에는 주로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다가 주택을 마련한 후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측됨.

■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생애주기별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비교적 이른 연령대에 주택구매가 이루어지면서 실물자산 비중이 높았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축적으로 실물자산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임.

〈그림 2〉 미국과 일본의 실물 및 금융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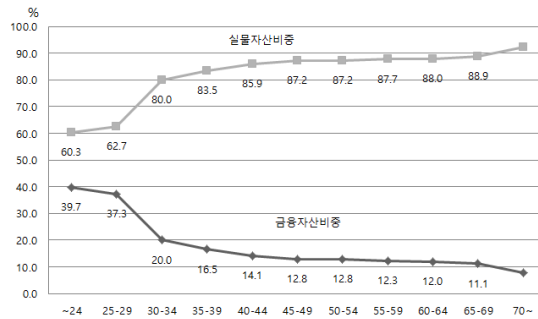


주: 미국은 FRB, Survey of Consumer Finance(2007), 일본은 통계청의 National Survey of Family and Expenditure(2009).
자료: 이창선(2012).

■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물자산 비중이 증가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이유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주택 선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주택을 구매하는 연령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임.

〈그림 3〉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 및 금융자산 비중(2012년)



자료: 노동패널, 각 년도.

■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현금 및 예금 비중이 매우 높고,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은 상대적으로 낮음.

- 현금 및 예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며,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20%대 수준임.
-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며(53.3%), 영국과 호주는 보험 및 연금 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표 2〉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 비교(2013년 말)

(단위: %)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현금·예금	45.5	12.7	53.1	27.8	22.0
금융투자상품	25.0	53.3	16.1	12.5	17.2
보험·연금	28.9	31.3	26.7	56.3	57.7
기타	0.7	2.7	4.1	3.4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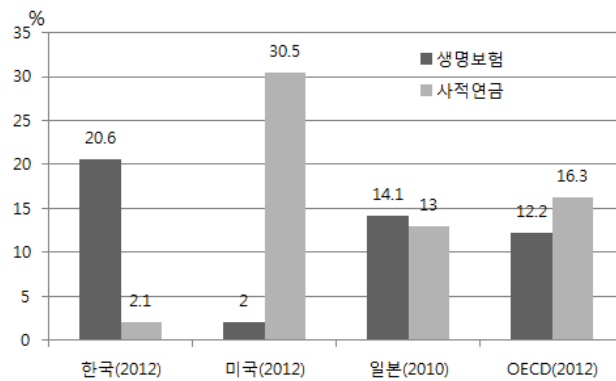
주: 각국 중앙은행.

자료: 금융투자협회, 『2014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보험 및 연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생명보험자산이며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

○ 2012년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6%인 반면, 사적연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인 2.1%에 불과함.¹⁷⁾

〈그림 4〉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대비 생명보험과 사적연금 비중



주: OECD Factbook 2014, *Pensions at a Glance 2013*.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4), 『가계 자산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17) OECD(2014a).

3. OECD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가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30년 동안 공통적으로 보험 및 연금자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우리나라 가계 역시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2007년 이후 보험 및 연금자산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정체, 금융투자상품(채권, 주식, 펀드)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 등 위험금융자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1980년 이후 30년 동안에 일어난 OECD 선진국 7개국의 가계 금융자산 구성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보험 및 연금자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¹⁸⁾

○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인해 국가가 은퇴, 교육, 건강 등 가계의 위험을 보장하는 수준을 낮춤에 따라, 가계들은 노후소비를 더욱 자신의 저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됨.

■ 이 과정에서 가계들이 스스로 운용하던 자산을 연금, 보험, 뮤추얼 펀드 등 금융기관에 맡기는 이른바 금융자산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Financial Wealth)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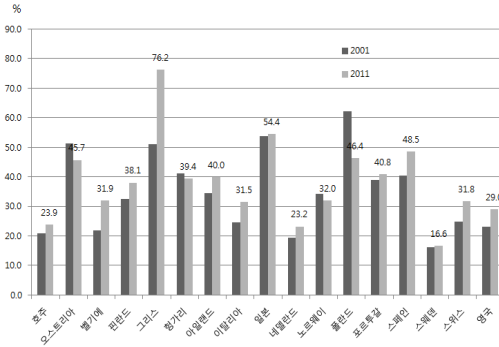
○ 이 같은 금융자산의 제도화는 전통적인 시장위험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험인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¹⁹⁾을 창출하였음.

○ 금융위기는 위험기피 선호에 영향을 미쳐 위험금융자산과 안전금융자산의 구성비에 변화를 초래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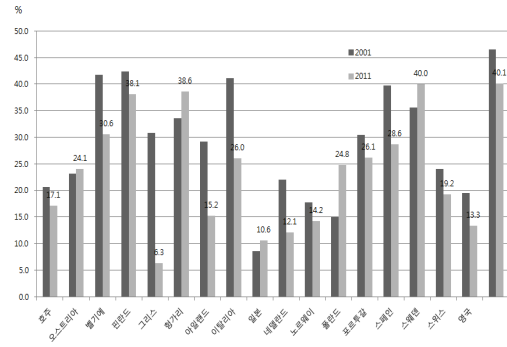
18) OECD(2012), 7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19) 거래상대방 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상환, 결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말함. 대표적인 예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음.

〈그림 5〉 OECD 국가들 가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현금 및 예금의 비중



주식 등 위험금융자산 비중



주: 2001년과 2011년 자료 모두를 가진 국가들만 보고함. 위험금융자산은 주식과 뮤추얼펀드를 합한 것임.
자료: OECD(2014),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 실제로 OECD 주요 선진국들의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금융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자산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한 반면, 주식을 비롯한 위험 금융자산의 비중은 감소했음(〈그림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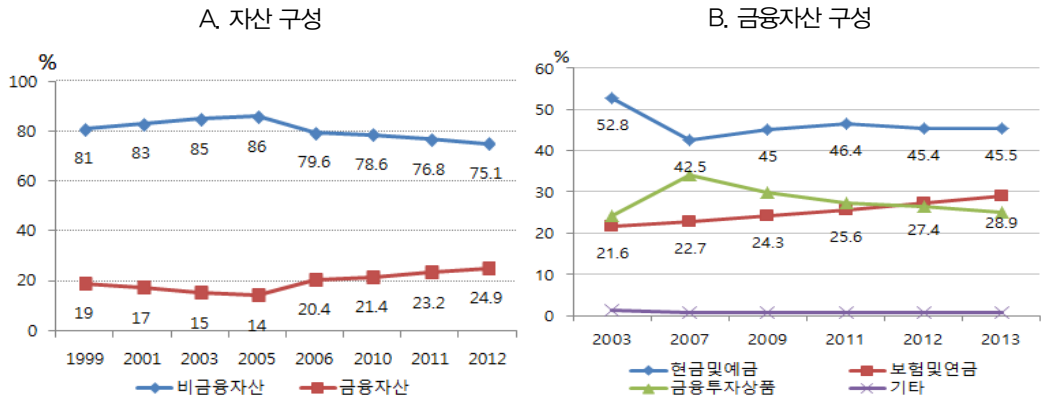
- 현금 및 예금자산 비중의 증가가 가장 큰 나라는 그리스로 2001년 51%였던 것이 2011년 76.2%로 대폭 상승함.
-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위험기피와 소유하던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주식을 비롯한 위험 금융자산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그림6〉 A 참조).

-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6,056.7조 원 가운데 비금융자산은 4,736.5조 원(78.2%), 순금융자산은 2,474.1조 원(21.8%), 금융부채는 1,153.9조 원으로 추정됨.²⁰⁾

20) 2014년 5월 발표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국민대차대조표의 결과임.

〈그림 6〉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2014), 『2014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

■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 보험 및 연금자산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정체, 금융투자상품(채권, 주식, 펀드)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그림 6〉 B 참조).

■ 보험 및 연금자산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그리고 정부의 연금 세제혜택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반면, 계속되는 저금리 현상과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각각 현금 및 예금 자산의 정체, 채권 및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4.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의 변화: 미시적 분석

2000년과 2012년 사이 연령별 가계 자산 구성의 변화를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총자산과 금융자산의 규모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늦춰지고 있음. 또한 60세 이후 연령대에서 총자산 중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추세가 과거에 비해 둔화되었음. 금융위기 이후 전 연령대에서 현금 및 예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주식자산의 비중은 감소하는 상반된 추이를 보임. 보험자산의 비중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절에서는 2000년 이후 가계의 자산 구성의 변화를 미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고령화가 향후 금융자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데 시사점을 찾고자 함.

- 고령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연령별 자산 구성 패턴과 이러한 자산 구성 패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봄.
- 또한,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금융자산 구성의 변화를 살펴봄.

■ 가계의 자산 구성 변화 추이를 미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함.

- 노동패널은 가구단위에서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패널자료로 비교적 장기간의 가계 자산구성 변화를 살피기에 적합함.
- 비금융자산은 거주 주택의 가격(전·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그 외의 부동산자산 가격²¹⁾을 합하여 계산함.
- 금융자산은 현금 및 예금, 주식자산(주식·채권·신탁 포함), 저축성보험²²⁾, 기타(아직 타지 않은 계, 빌려준 돈 포함)로 분류함.

21) 응답자가 부동산 가격을 잘 모를 경우 가격을 범위로 대답하도록 처리되어 있는데, 값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범위의 중간값을 가격으로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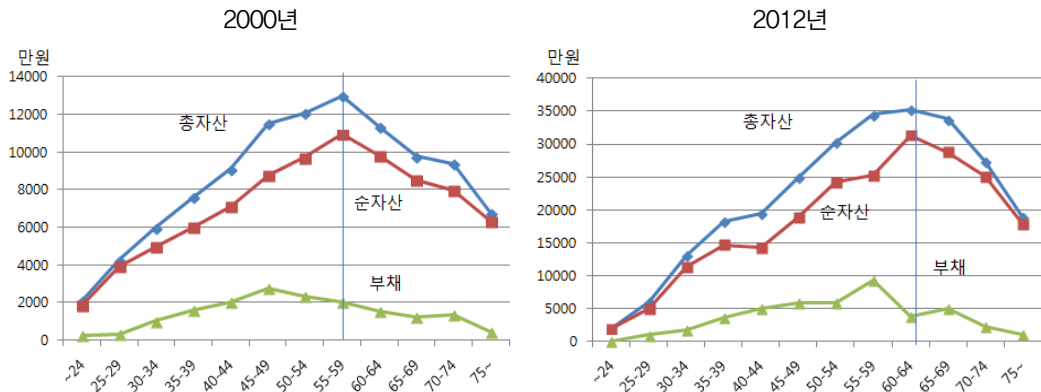
22) 저축성보험은 만기도래 혹은 해지 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항목에 포함시킴.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만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상에 나타난 값은 실제 보험자산보다 작음. 따라서 연령별 패턴이나 변화추세에 의미를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가. 연령별 자산 구성

■ 연령에 따른 가구의 총자산과 순자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자산이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2000년에 50대 후반이었던 반면, 2012년에는 60대 초반으로 증가했음.

○ 이는 가구 부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부채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으로 높아졌음.

〈그림 7〉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순자산, 부채



자료: 노동패널,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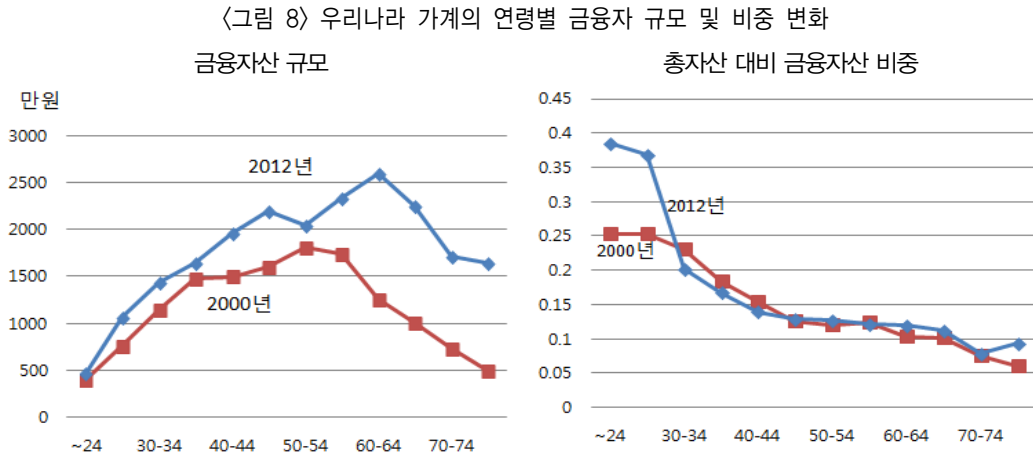
■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빠르는데, 이는 은퇴시점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자녀 교육 및 혼인으로 인한 분가 비용 지출, 그리고 공적노후보장이 미약함 등이 원인으로 보임.²³⁾

- 선진국에서 초고령에도 자산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는 보통 유산 상속 유인,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예비적 수요, 그리고 충분한 공적노후보장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가족간 유대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강한편이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가 빨리 일어나는 원인을 유산상속 유인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는 없음.
- 오히려 자녀의 혼인 및 분가 시 증여 형태로 유산상속이 일찍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임.

23) 이창선(2012).

■ 2000년과 2012년 사이 연령별 금융자산의 규모 및 비중의 변화는 <그림 8>과 같음.

- 금융자산의 규모는 2000년에 50대 초반이 정점이었던데 비해 2012년에는 60대 초반으로 증가하였음.
- 금융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령별 패턴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금융자산 비중의 감소추세가 65세 이상 고연령에서 예전에 비해 둔화되었음.



자료: 노동패널, 각 년도.

나. 연령별 금융자산 구성

■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기대소득의 불확실성이나 위험기피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자산 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짐.

-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노동공급의 유연성이 높은 젊은 시기에 위험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고,²⁴⁾ 유산상속을 위한 저축유인을 고려하면 은퇴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추게 됨.²⁵⁾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기피 성향이 커지게 되어 위험자산 수요가 감소할 것임.
- 따라서 위험자산의 비중은 연령에 따라 역U자 모양을 가질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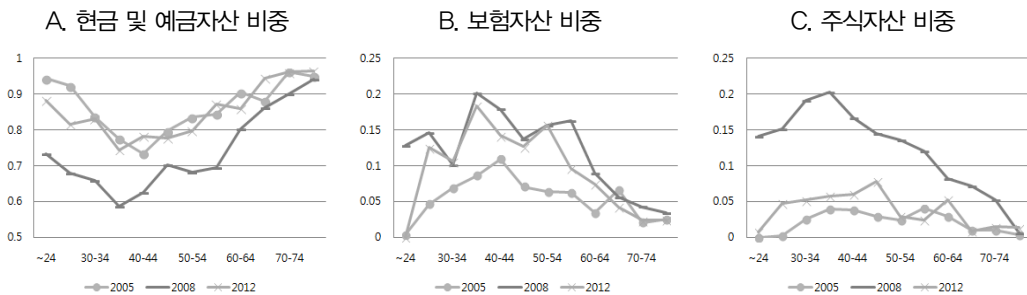
24) Bodie et al.(1992).

25) Samuelson(1989).

■ 연령대별로 세부 금융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현금 및 예금의 경우 U자형 곡선을 그리는 반면, 주식 및 보험의 비중은 역U자형 곡선 모양임(〈그림 9〉 참조).

- 예금 및 현금 자산은 주택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다시 증가하고 있음.
- 보험자산이 역U자 곡선 모양을 취하는 이유는 주식과는 다른데, 35~50세 사이에 부양 가족의 위험에 대비한 보장 수요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그림 9〉 우리나라 가계의 연령별 금융자산포트폴리오 변화



자료: 노동패널, 각 년도.

■ 우리나라 가계는 60대 중반 이후 위험자산인 주식자산의 비중을 급격히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초고령 시기인 70세 정도에 금융자산 대비 주식투자 비중이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됨.²⁶⁾
- 하지만 〈그림 9〉 C 에서 보이듯 2005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면 주식자산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요약하면, 기대수명의 증가로 장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노후소비의 재원으로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연금 및 보험자산의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위험금융 자산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음.
- 총자산과 금융자산이 정점인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 고령층의 금융자산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26) 이창선(2012).

다. 금융위기 전·후의 가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세

■ 금융위기 전후의 연령별 자산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9〉에 나타난 각 자산의 2005년, 2008년, 2012년 값을 비교해 보면, 현금 및 예금자산과 주식자산은 정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2008년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2012년에 2005년 수준으로 복귀한 반면, 주식의 비중은 2008년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2012년 감소했음.
- 보험자산의 비중은 2005년에 비해 2008년 증가했고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이는 금융위기가 가계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구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식과 보험자산 규모의 변화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평균 주식 자산의 규모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평균 보험자산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그림 10〉 A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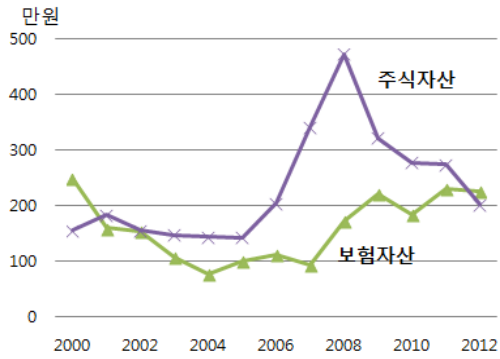
■ 주식과 보험자산 둘 다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각 자산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8년 이후 주식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보험자산의 비중은 높아졌음(〈그림 10〉 B 참조).²⁷⁾

- 2011년에는 보험자산의 비중이 주식자산의 비중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자산 보유가구가 주식자산 보유가구보다 2배 정도 많아 전체 가구대비 평균을 비교할 경우 주식의 자산 비중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둘 다 보유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비중 변화를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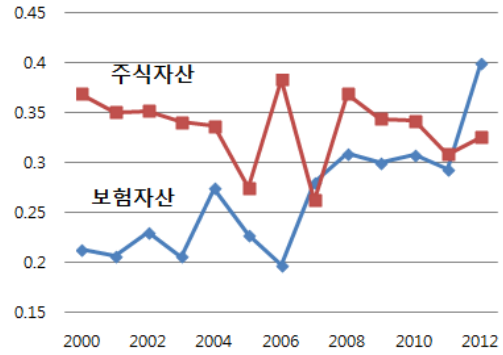
27)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중 보험자산 보유가구의 비중은 22.7%,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11.6%, 둘 다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3.5%임.

〈그림 10〉 우리나라 가계의 주식과 보험자산의 변화

A. 자산 규모



B. 자산 구성



자료: 노동패널, 각 년도.

5. 요약 및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고령화로 인한 보험 핵심구매 연령대인 30~40세 인구비중의 감소는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둔화시키고, 독신 및 노령가구의 증가로 대표되는 가구구조의 변화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반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낮은 연금 및 저축성 보험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는 향후 사업비 차익에 의존한 보험사의 수익구조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생애주기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계의 위험자산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 현상은 소득과 저축이 감소하고 축적된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층의 인구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함.
- 장기적으로 위험기피도가 큰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임.
- 중기적으로는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자산수준이 높고 주식투자 경험에 노출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고령층의 주식자산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음.

■ 2000년 이후 가계의 자산구성을 미시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해본 결과 고령기의 총자산 및 금융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연령대도 늦춰지고 있음.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연금 및 보험자산 비중의 증가가 예상됨.

■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현금 및 예금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주식자산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보험자산의 비중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임.

- 부동산자산 가격의 변동성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실물자산 편중 현상을 완화시키고, 적절한 노후 소득흐름을 창출하기에 적합한 가계 자산 구성이 요구됨.

■ 고령화에 따른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수요측면에서 보험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인구의 증가로 보험 핵심구매 연령대인 30~40대 인구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보험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음.
-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가구와 노령 가구의 증가로 대표되는 가구구조의 변화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고령층의 보험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함.

■ 기대수명의 증가와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의 한계는 노후소득 준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어, 연금과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보험연구원(2013)에 따르면 개인 생명보험상품 중 보장성 보험의 비중은 감소하고 저축성 보험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임.
- 이제까지 보험회사의 수익구조는 사업비 차익에 많이 의존해왔는데,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낮은 저축성 보험 비중의 증가 추세는 향후 사업비 차익에 의존한 보험사의 수익구조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참 고 문 헌〉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2014), 『2014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보험연구원(2013),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이상호 · 유정원 · 이상현(2011), 『인구 고령화와 금융자산선택: 이론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pp. 39~75.

이창선(2012),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 고령층일수록 부동산 변동 리스크에 노출」, LG경제연구원.

한국은행 · 통계청 보도자료(2014), 『국민대차대조표 개발 결과』.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각 년도.

현대경제연구원(2014), 『가계 자산의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4-24호.

Bodie, Z., R. C. Merton and W. F. Samuelson(1992), “Labor Supply Flexibility and Portfolio Choice in a Life Cycle Model”,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6, 427~449.

OECD(2012), “Household Wealth in the Main OECD Countries from 1980 to 2011: What Do the Data Tell Us?”.

_____(2014a), *Factbook 2014*.

_____(2014b), *National Account at a Glance 2014*.

Samuelson, Paul A.(1989), “A Case At Last for Age-phased Reduction in Equi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86, 9048-9051.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4년 2/4분기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경우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유로 지역 및 일본의 경우 하락함.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지속함.

■ 2014년 상반기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상승함.

- 미국의 실질 GDP는 2014년 1/4분기보다 4.6%(연율) 성장한 반면, 유로 지역의 경우 저물가와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으로 전분기대비 0.1%(연율) 성장에 그침.
-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소비세율 인상애 따른 일시적 부진으로 전분기에 비해 12.9% 하락한 -6.8%(연율)를 기록함.
- 중국의 실질 GDP는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2.0%를 기록하며 경착륙 우려가 다소 완화됨.

〈표 1〉 세계경제성장률¹⁾

(단위: %)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¹⁾	3.4	3.3	n.a.	n.a.	n.a.	n.a.	n.a.	n.a.	n.a.
선진국 ¹⁾	1.2	1.4	n.a.	1.3		2.5		1.3	
신흥국 ¹⁾	5.1	4.7	n.a.	4.8		5.3		4.1	
미국 ²⁾	2.3	2.2	0.1	2.7	1.8	4.5	3.5	-2.1	4.6
유로 ³⁾	-0.7	-0.4	-2.1	-0.8	1.2	0.5	1.2	0.9	0.1
일본 ⁴⁾	1.5	1.5	-0.3	5.2	3.4	1.4	-0.2	6.1	-6.8
중국 ⁵⁾	7.8	7.7	1.9	1.6	1.8	2.3	1.7	1.5	2.0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3) 국가별 분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4, 10).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4, 9).

3) Eurostat(2014, 9).

4) 일본 내각부(2014, 8).

5) 중국 국가통계국(2014, 7).

■ 2014년 2/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100.0을 기록함.

- 미국, 유로 지역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일본과 중국은 전분기대비 하락함.
 -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부동산시장 개선 기대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2/4분기 유로 지역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부진한 반면, 독일은 확장 추세를 유지하며 1/4분기보다 0.1 상승한 101.0을 기록함.
 - 일본 경기선행지수는 경기부양책 효과 감소, 소비세율 인상 영향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며 전분기대비 0.8 감소한 100.4를 기록함.
 - 2/4분기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1/4분기보다 0.2 하락한 99.0을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²⁾	99.8	99.9	99.7	99.8	99.8	99.9	100.0	100.0	100.0
선진국 ³⁾	99.6	100.1	99.6	99.8	100.0	100.3	100.5	100.5	100.5
미국	99.8	100.3	99.8	100.1	100.3	100.5	100.4	100.3	100.5
유로	99.1	99.8	98.8	99.1	99.5	100.0	100.6	100.9	101.0
일본	99.7	100.7	99.4	99.9	100.5	100.9	101.4	101.2	100.4
중국	100.1	99.8	100.2	100.2	99.7	99.7	99.6	99.2	99.0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4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는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신흥국의 수출 증가로 2014년 1/4분기보다 0.5%p 상승한 3.2%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1/4분기 2.0%에서 0.7%p 하락한 1.3%를 기록한 반면,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6%p 높아진 5.0%를 기록함.

〈표 3〉 세계 무역규모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¹⁾	1.9	2.7	1.4	1.7	1.8	3.1	4.1	2.7	3.2
선진국	0.1	0.4	-1.7	-1.3	-0.2	0.5	2.6	2.0	1.3
신흥국	3.9	5.2	4.7	5.1	3.9	5.9	5.7	3.4	5.0

주: 1) 2014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3)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4년 2/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및 중국 경제 회복세로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3.5%를 기록하였고, 원자재가격도 상승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1/4분기 1.2%보다 0.5%p 상승한 1.7%를 기록하였으며 신흥국의 경우도 동 기간 5.1%에서 5.3%로 0.2%p 높아짐.

○ 두바이 현물지수와 WTI 현물지수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수요증가 기대 등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2.1%, 3.0% 상승하였고, CRB지수¹⁾도 5.4% 상승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3			2014			2013			2014	
	연간	3/4	4/4	1/4	2/4		연간	3/4	4/4	1/4	2/4
세계	3.9	3.6	3.3	3.2	3.5	두바이 현물지수	105.7	106.6	107.7	104.5	106.7
선진국	1.4	1.5	1.2	1.2	1.7	WTI 현물지수	97.5	105.1	95.7	99.6	102.6
신흥국	5.9	5.7	5.5	5.1	5.3	CRB 상품지수 ²⁾	287.6	287.8	279.9	292.3	308.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WEO(2014, 10); 한국은행; Bloomberg.

1)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그 상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함.

가. 미국경제

2014년 2/4분기 미국 실질 GDP는 소비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내수경기 개선으로 전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함.

〈경제성장〉

- 2014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1/4분기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연초 한파의 부정적인 영향 해소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 4/4분기 이후 최고치인 4.6%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고용시장 회복으로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를 비롯한 재화 부문이 전분기 대비 5.9%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2.5% 증가함.
 - 민간투자의 경우 통화정책 완화 유지로 설비 및 주택투자가 전분기대비 각각 9.7%, 8.8%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19.1% 증가함.
 - 수출은 11.1% 증가하였고 수입도 11.3% 증가하였는데, 수출증가율보다 수입증가율이 높은 것은 내수가 강화됨을 나타냄.²⁾
 - 정부지출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강화로 플러스로 전환된 1.7% 증가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GDP	2.3	2.2	0.1	2.7	1.8	4.5	3.5	-2.1	4.6
민간소비	1.8	2.4	1.9	3.6	1.8	2.0	3.7	1.2	2.5
재화	2.8	3.4	2.9	5.9	1.3	3.5	3.7	1.0	5.9
서비스	1.3	1.9	1.4	2.4	2.0	1.3	3.7	1.3	0.9
민간투자	9.2	4.9	-5.3	7.6	6.9	16.8	3.8	-6.9	19.1
설비	7.2	3.0	3.6	1.5	1.6	5.5	10.4	1.6	9.7
주택	13.5	11.9	20.4	7.8	19	11.2	-8.5	-5.3	8.8
수출	3.3	3.0	1.5	-0.8	6.3	5.1	10	-9.2	11.1
수입	2.3	1.1	-3.5	-0.3	8.5	0.6	1.3	2.2	11.3
정부지출	-1.4	-2.0	-6.0	-3.9	0.2	0.2	-3.8	-0.8	1.7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4. 9),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2014. 7).

〈내수부문〉

- 2014년 2/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연초 한파의 부정적인 영향이 해소되면서 자동차 중심의 소매판매 증가로 2014년 1/4분기보다 2.1%p 상승한 2.3%를 기록함.
 - 2014년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상승세가 둔화되며 0.3%를 기록하였지만, 8월에는 0.6%로 높아짐.
 - 2/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시장 개선 및 에너지가격 하락 등으로 전분기보다 2.9 높아진 83.4를 기록하였으며 7월 90.3, 8월 92.4를 나타내며 상승세가 확대됨.
- 2014년 2/4분기 주택가격은 상승하였고 미국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세 강화, 가계 소득 및 차입여건 개선으로 신규주택착공도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 회복세가 나타남.
 - 2014년 1/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는 전분기대비 9.8% 감소하였지만 2/4분기는 전분기대비 6.5% 증가하였으며 7월에도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8월 14.4% 감소로 전환되며 변동성이 확대됨.
 - 주택가격지수는 실수요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의 구매 확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³⁾ 2014년 2/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2.9% 상승한 170.6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5.1	4.2	1.5	1.5	0.3	1.0	0.9	0.2	2.3	0.3	0.6
소비자신뢰지수 ²⁾	67.1	73.1	69.7	62.8	75.1	81.0	73.4	80.5	83.4	90.3	92.4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28.1	18.6	16.4	4.3	-8.7	2.0	16.2	-9.8	6.5	22.9	-14.4
주택가격지수 ⁴⁾	141.3	158.2	146.0	147.0	155.9	164.2	165.8	165.9	170.6	n.a.	n.a.

주: 1)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3) 김정훈·유혜림(2014), 「미국 자산가격의 상승 추이와 배경」, 해외경제포커스, 제 2014-24호, 한국은행.

〈생산부문〉

■ 2014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⁴⁾는 전분기대비 상승하였으며 설비가동률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경기선행지수 상승세를 이끌었음.

○ 2014년 2/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1.3%를 나타냈으며 2014년 7월 0.2%이나, 8월 -0.1%로 소폭 하락함.

- 설비가동률은 2/4분기 79.0을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7월 79.1, 8월 78.8을 기록함.

○ 2/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2.5 높아진 55.2를 기록하였고, 7월 57.1, 8월 59.0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감.

○ 경기선행지수는 소비자신뢰지수 상승의 영향으로 2/4분기 101.8, 7월과 8월 각각 103.3, 103.8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3.8	2.9	0.6	1.0	0.5	0.6	1.2	1.0	1.3	0.2	-0.1
설비가동률 ²⁾	77.3	78.0	77.3	77.7	77.8	77.9	78.4	78.6	79.0	79.1	78.8
ISM제조업PMI	51.8	53.9	50.4	52.3	50.8	55.7	56.7	52.7	55.2	57.1	59.0
경기선행지수 ³⁾	93.6	96.9	94.1	95.1	96.0	97.3	99.1	100.0	101.8	103.3	103.8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4)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고용과 물가〉

■ 2014년 2/4분기 취업자 수 증가세는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확대에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실업률 하락세도 지속되는 등 고용시장 회복세가 나타남.

○ 전분기대비 비농업 취업자 증감은 2/4분기 80만 명으로 전분기대비 23만 1,000명 증가하였으며,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4분기 31만 5,000명으로 전분기대비 1만 5,000명 감소하였고 7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함.

- 7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이 21만 2,000명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20만 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지속됨.

○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6.2%를 기록하였고, 2014년 7월과 8월에도 각각 6.2%, 6.1%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유지함.

- 포괄적 실업률도 2014년 2/4분기 12.2%, 7월 12.2%, 8월 12.0%를 기록하며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 2014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물가 우려에서 벗어나 전분기보다 0.7%p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분기대비 1.1%p 상승함.

○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한 2.1%, 7월 2.0%, 8월 1.7%를 기록함.

- 2/4분기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하였고, 7월 1.9%, 8월 1.7%를 기록함.

○ 지정학적 위협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 2.7%, 7월 2.9%로 상승하였고, 8월에는 2.3%를 기록함.

- 근원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2/4분기 1.8%, 7월 1.8%, 8월 1.9% 수준을 유지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 물가 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¹⁾ (%)	8.1	7.4	7.8	7.7	7.5	7.2	7.0	6.7	6.2	6.2	6.1
포괄적 실업률(u-6) ²⁾ (%)	14.7	13.8	14.4	14.2	14.0	13.7	13.3	12.7	12.2	12.2	12.0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223.6	233.1	64.2	61.8	60.3	51.5	59.5	56.9	80.0	21.2	14.2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37.5	34.4	37.6	35.5	34.6	33.0	34.5	33.1	31.5	29.8	30.3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2.1	1.5	1.9	1.7	1.4	1.6	1.2	1.4	2.1	2.0	1.7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2.1	1.8	1.9	1.9	1.7	1.7	1.7	1.6	1.9	1.9	1.7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1.9	1.3	1.7	1.5	1.5	1.2	0.8	1.6	2.7	2.9	2.3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2.6	1.5	2.2	1.8	1.7	1.2	1.4	1.9	1.8	1.8	1.9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분기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나. 유로경제

2014년 2/4분기 유로경제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0.0%에 그치는 등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음.

〈경제성장〉

■ 2014년 2/4분기 유로 지역 경제성장률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의 성장세 부진으로 1/4분기보다 0.2%p 하락한 0.0%를 기록함(〈표 9〉와 〈표 12〉 참조).

○ 2014년 2/4분기 유럽 주요 5개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스페인은 회복세를 유지한 반면, 이탈리아는 전분기에 비해 둔화됨(〈표 12〉 참조).

- 2/4분기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은 1/4분기보다 0.2%p 상승한 0.6%를 기록함.

- 반면,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전분기대비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였고 이탈리아의 경우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2%를 기록하며 유로 지역 경제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나타남.

○ 2/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프랑스와 스페인의 민간소비 증가로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0.3%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고정자본투자 감소로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0.3%를 기록한 반면, 정부지출은 전분기대비 0.2% 증가함.

○ 유로 지역 수출은 스페인의 수출 증가로 1/4분기보다 0.4%p 높아진 0.5%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전분기대비 0.3% 증가함.

〈표 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EA18 GDP	-0.7	-0.4	-0.5 (-2.1)	-0.2 (-0.8)	0.3 (1.2)	0.1 (0.5)	0.3 (1.2)	0.2 (0.9)	0.0 (0.1)
민간소비	-1.3	-0.7	-0.5	-0.2	0.2	0.2	0.1	0.2	0.3
고정자본투자	-4.0	-2.9	-1.4	-1.6	0.1	0.5	0.9	0.2	-0.3
정부지출	-0.6	0.1	0.1	0.2	0.0	0.3	-0.3	0.7	0.2
수출	2.5	1.4	-0.6	-0.8	2.3	0.1	1.4	0.1	0.5
수입	-0.9	0.4	-1.0	-0.8	1.6	1.1	0.7	0.8	0.3

주: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4. 9).

〈생산 및 내수부문〉

■ 2014년 2/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0.3% 증가하였으나 7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며 향후 경기 개선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음.

○ 1/4분기 유로 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2.2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7월 102.1, 8월 100.6으로 둔화됨.

○ 유로 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 -7.7을 나타내며 둔화폭이 감소하였으나 7월 -8.4, 8월 -10.0을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됨.

■ 2014년 2/4분기 유로 지역 산업생산의 경우 1/4분기보다 소폭 둔화되었으나 7월 1.0% 증가함.

〈표 10〉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유로지역 ESI ¹⁾	90.8	93.8	87.2	90.5	90.2	95.3	99.1	101.6	102.2	102.1	100.6
소매판매 증가율 ²⁾ (%)	-1.7	-0.8	-1.1	0.1	0.1	0.4	-0.1	0.6	0.3	-0.4	n.a.
소비자신뢰지수 ³⁾	-22.1	-18.6	-25.9	-23.5	-20.8	-15.9	-14.4	-11.2	-7.7	-8.4	-10.0
산업생산 증가율 ⁴⁾ (%)	-2.5	-0.7	-2.0	0.2	0.7	0.0	0.6	0.2	0.0	1.0	n.a.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비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과 물가〉

- 2014년 2/4분기 주요국을 비롯한 모든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2/4분기 실업률은 1/4분기보다 0.1%p 하락한 7.2%를 기록하였고, 북유럽의 경우도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6.6%를 나타냄.
 - 또한, 2/4분기 동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9.7%를 기록하였으며 남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9.7%를 기록함.
- 2014년 2/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모든 유럽 지역에서 하락함.
 - 2/4분기 유럽 주요국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분기보다 0.1%p 하락한 1.1%를 기록하였으며 북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p 하락한 0.9%를 기록함.
 - 또한, 2/4분기 동유럽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0.4%를 나타냈으며 남유럽의 경우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0.4%를 기록함.

〈표 1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3년 4/4	7.5	6.7	10.1	20.3	1.4	1.1	0.8	-0.3
2014년 1/4	7.3	6.7	9.8	20.0	1.2	1.0	0.6	-0.2
2014년 2/4	7.2	6.6	9.7	19.7	1.1	0.9	0.4	-0.4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4. 9).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독일 GDP	0.7	0.4	-0.5	0.0	0.7	0.3	0.4	0.8	n.a.
민간소비	0.8	0.9	0.1	0.3	0.7	0.3	-0.3	0.7	n.a.
고정자본투자	-2.1	-0.8	-0.7	-1.4	1.2	1.3	0.7	3.2	n.a.
수출	3.2	0.9	-1.6	-0.7	2.5	-0.1	2.5	0.2	n.a.
수입	1.4	1.5	-0.9	0.2	1.5	0.8	1.3	2.2	n.a.
프랑스 GDP	0.0	0.2	-0.3	0.0	0.7	-0.1	0.2	0.0	0.0
민간소비	-0.3	0.3	-0.1	0.4	0.3	-0.1	0.2	-0.4	0.5
고정자본투자	-1.2	-2.3	-0.7	-0.3	0.3	-0.2	-0.1	-1.0	-1.1
수출	2.4	0.6	-0.5	0.2	3.0	-0.5	1.4	0.5	0.0
수입	-1.1	0.5	-0.7	0.4	2.0	0.9	0.3	0.6	0.4
이탈리아 GDP	-2.4	-1.9	-0.9	-0.6	-0.3	-0.1	0.1	-0.1	-0.2
민간소비	-4.0	-2.6	-0.7	-0.8	-0.6	0.0	0.0	0.1	0.1
고정자본투자	-8.0	-4.7	-1.1	-2.7	0.0	-0.9	0.7	-1.0	-0.9
수출	2.1	0.1	-0.2	-1.4	0.7	0.5	1.2	0.1	0.1
수입	-7.0	-2.8	-1.7	-1.1	-0.1	1.0	0.2	-0.1	1.0
스페인 GDP	-1.6	-1.2	-0.8	-0.3	-0.1	0.1	0.2	0.4	0.6
민간소비	-2.8	-2.1	-2.0	-0.4	0.1	0.5	0.5	0.5	0.7
고정자본투자	-7.0	-5.1	-3.0	-1.2	-1.9	0.7	0.7	-0.7	0.5
수출	2.1	4.9	0.6	-4.5	7.0	0.6	0.8	-1.0	1.3
수입	-5.7	0.4	-2.6	-4.6	6.1	2.1	-0.6	0.9	1.5
영국 GDP	0.3	1.7	-0.2	0.5	0.7	0.8	0.7	0.8	0.8
민간소비	1.4	2.2	0.4	1.0	0.3	0.8	0.3	n.a.	n.a.
고정자본투자	0.8	-0.8	-5.1	0.9	4.0	1.9	1.9	n.a.	n.a.
수출	1.7	0.5	-1.1	-1.0	2.5	-1.9	2.8	n.a.	n.a.
수입	3.4	0.2	0.0	-2.4	2.3	1.5	-0.4	n.a.	n.a.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4. 9).

다. 일본경제

2014년 2/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 인상⁵⁾에 따른 소비수요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1.7%를 기록함.

〈경제성장〉

■ 2014년 2/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1.7%를 기록함.

- 2/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수요 둔화로 전분기대비 7.0%p 하락한 -5.0%를 기록함.
- 또한, 2014년 2/4분기 설비투자는 제조업의 해외이전 추세 지속으로 1/4분기보다 10.2%p 하락한 2.5% 감소하였으며, 소비세율 인상 영향에 따른 주택경기 위축으로 주택투자 증가율은 -10.3%를 기록함.
- 2014년 2/4분기 정부지출은 0.4% 증가하였으나 공공투자는 수요 위축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0.5% 감소함.
- 2/4분기 수출은 해외생산 비중 확대 및 세계수요 둔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0.4% 감소하였고 수입은 설비투자 감소로 전분기대비 5.6% 감소함.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1.5	1.5	-0.1 (-0.3)	1.3 (5.2)	0.9 (3.4)	0.4 (1.4)	0.0 (-0.2)	1.5 (6.1)	-1.7 (-6.8)
민간소비	2.0	2.0	0.5	1.0	0.7	0.2	0.4	2.0	-5.0
설비투자	3.7	-1.5	-0.7	-2.0	1.4	0.6	1.4	7.7	-2.5
주택투자	2.9	8.8	1.0	0.8	2.1	4.7	2.4	2.0	-10.3
정부지출	1.7	2.0	0.7	0.9	0.4	0.2	0.2	-0.1	0.4
공공투자	2.9	11.3	-0.2	4.7	5.8	7.1	1.4	-2.5	-0.5
수출	-0.2	1.6	-3.2	4.3	3.0	-0.7	0.3	6.5	-0.4
수입	5.3	3.4	-2.0	1.2	2.3	1.8	3.7	6.4	-5.6

주: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4. 9).

5) 2012년 8월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법'을 제정하여 소비세율을 5%에서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2단계 인상하기로 결정함.

〈생산 및 내수부문〉

■ 2014년 2/4분기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및 수출이 둔화하여 전분기대비 3.8% 감소함.

○ 한편, 일본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 충격 완화로 7월 광공업생산은 0.2% 증가로 전환됨.

■ 2014년 2/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39.1을 기록하였고 7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다 8월 41.2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함.

○ 2014년 2/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전 선수요에 대한 반동으로 1/4분기보다 3.1%p 하락한 -7.0%를 기록하였고 7월에도 -0.5%를 보임.

- 7월 소매판매액은 선수요가 컸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하며 9개월 만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됨.⁶⁾

■ 2014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주택 매매 감소로 전분기에 비해 12.7%p 낮아진 -9.3%를 나타내었고 7월에는 -14.1%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확대됨.

○ 2/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분기대비 10.4% 감소하였으나 7월에는 3.5% 증가함.

〈표 14〉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0.2	-0.6	-1.8	0.5	1.6	1.7	1.8	3.0	-3.8	0.2	n.a.
소매판매 증가율 ²⁾ (%)	1.8	1.0	-0.2	0.7	0.7	0.3	1.4	3.9	-7.0	-0.5	n.a.
소비자신뢰지수 ³⁾	40.0	43.6	40.0	44.1	44.7	44.0	41.7	38.8	39.1	41.5	41.2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5.8	11.0	15.0	5.1	11.8	13.5	12.9	3.4	-9.3	-14.1	n.a.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0.9	5.8	-0.6	-0.3	6.4	4.8	1.9	4.2	-10.4	3.5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전기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6) 한국은행(2014. 7).

〈고용과 물가〉

■ 2014년 2/4분기 실업률은 1/4분기와 동일하였지만 유효구인배율⁷⁾은 소폭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은 회복세를 보임.

-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3.6%를 기록하였고 7월에는 3.8%로 소폭 상승함.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2/4분기 1.09, 7월 1.10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인력부족 심화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을 나타냄.

■ 2014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소비세율 인상, 임금상승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상승함.

-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등의 업종에서 소비세율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함에 따라 2014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p 상승한 3.6%를 기록하였으며 7월에는 3.4%로 소폭 하락함.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2/4분기 2.3%, 7월 2.3% 기록함.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4.3	4.0	4.2	4.2	4.0	4.0	3.9	3.6	3.6	3.8	n.a.
유효구인배율(배) ¹⁾	0.80	0.93	0.82	0.85	0.90	0.95	1.00	1.05	1.09	1.10	n.a.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0	0.4	-0.2	-0.6	-0.3	0.9	1.4	1.5	3.6	3.4	n.a.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0.6	-0.2	-0.5	-0.8	-0.4	-0.1	0.5	0.7	2.3	2.3	n.a.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2) 2010=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7)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구직자 수

8) 2014년도 춘계 임금협상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일반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률이 17년 만에 2.0%대를 상회함.

라. 중국경제

2014년 2/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여러 분야에서의 미니경기부양책 영향으로 1/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7.5%를 기록함.

〈경제성장〉

- 2014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투자, 대외 수출, 금융, 재정 수익 등 15개 분야의 미니경기부양책 효과로 1/4분기 대비 0.1%p 상승한 7.5%를 기록함.
 - 2/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 증가율보다 0.5%p 하락한 17.3% 증가하였으며 7월 17.0%, 8월 16.5% 증가하며 둔화세를 보임.
 - 2/4분기 수출 증가율은 EU 등 선진국 수요 개선 등으로 전분기보다 9.8%p 상승한 5.1%를 기록하였으며 7월 14.5%로 상승하였다가, 8월 9.4%로 하락함.
 - 한편, 2/4분기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2%p 하락한 1.6%를 기록하였고 7월과 8월 각각 -1.6%, -2.4%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지속함.

〈표 1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질 GDP(%) ¹⁾	7.8	7.7	1.9 (7.9)	1.6 (7.7)	1.8 (7.5)	2.3 (7.8)	1.7 (7.7)	1.5 (7.4)	2.0 (7.5)	n.a.	n.a.
고정자산투자 ²⁾ (%)	20.6	20.3	20.7	21.1	20.4	20.2	19.9	17.8	17.3	17.0	16.5
수출 증가율(%) ³⁾	8.4	8.6	9.5	18.9	4.1	4.0	7.5	-4.7	5.1	14.5	9.4
수입 증가율(%) ³⁾	5.1	7.6	2.8	9.6	5.1	8.5	7.1	2.8	1.6	-1.6	-2.4

주: 1) 전분기대비,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4) 7월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EU를 중심으로 선진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2013년 7월 낮았던 증가율(5.1%)에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가세하였기 때문임.

* 지역별 수출 증가율: EU 17.5%, 홍콩 13.3%, 미국 12.3%, 아세안 11.9%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내수부문〉

■ 2014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함.

- 2014년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12.3%를 기록하였으나 7월과 8월에는 보석류 등 사치품과 고급식당 매출을 중심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103.9를 기록하였으나 7월에는 104.4로 상승함.

〈표 17〉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4.4	13.2	14.9	12.6	13.0	13.3	13.5	12.2	12.3	12.2	11.9
소비자신뢰지수	102.4	101.2	105.0	105.1	99.9	98.3	101.4	104.0	103.9	104.4	n.a.
기업가신뢰지수 ²⁾	120.3	119.0	120.4	122.4	117.0	119.5	117.1	124.3	n.a.	n.a.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4년 2/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 및 구매자관리지수는 1/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함.

- 2014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8.9%를 기록함.
- 2/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50.7을 나타냈으며 7월에도 51.7로 상승하였다가 생산 및 신규주문 둔화 등으로 8월 51.1로 소폭 하락함.

〈표 18〉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9.9	9.7	10.0	8.9	9.1	10.1	10.0	8.8	8.9	9.0	6.9
구매자관리지수 ²⁾	50.8	50.8	50.5	50.5	50.5	50.8	51.3	50.3	50.7	51.7	51.1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물가〉

■ 2014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신선채소 등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자물가 하락폭은 감소함.

○ 2014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보다 0.1%p 낮아진 2.2%를 기록하였으며 7월과 8월 각각 2.3%, 2.0%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 -1.5%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감소되었으며 7월 -0.9%, 8월 -1.2%를 나타내며 하락세가 지속됨.

〈표 19〉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2	2013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2.6	2.1	2.4	2.4	2.8	2.9	2.3	2.2	2.3	2.0
생산자물가 상승률(%)	-1.7	-1.9	-2.3	-1.7	-2.7	-1.7	-1.4	-2.0	-1.5	-0.9	-1.2

주: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2. 국내경제

2014년 2/4분기 국내경제는 세월호 사고의 영향과 건설투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됨.

〈경제성장〉

■ 2014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둔화로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3.5%를 기록하였음.

- 민간소비 증가율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등으로 2014년 1/4분기대비 1.0%p 하락한 1.5%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저효과와 운송장비 투자 증가로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7.7%를 나타냈으며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3년 건설 수주 부진에 따른 토목부문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4.1%p 하락한 0.2%에 그침.
-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특허권 관련 국외지출 감소⁹⁾로 전분기대비 1.6%p 하락한 5.7%를 나타냄.
- 재화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3.6%를 기록한 반면 재화수입 증가율은 민간소비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2.2%p 하락한 1.2%에 그침.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2.1 (0.4)	2.1 (0.6)	2.3 -	2.1 (0.6)	2.7 (1.0)	3.4 (1.1)	3.7 (0.9)	3.0 -	3.9 (0.9)	3.5 (0.5)
민간소비	2.6	2.7	1.9	1.7	2.1	2.1	2.2	2.0	2.5	1.5
설비투자	-4.2	-4.0	0.1	-12.7	-3.9	1.5	10.9	-1.5	7.3	7.7
건설투자	-2.7	-6.2	-3.9	1.9	9.8	8.8	5.4	6.7	4.3	0.2
지식생산물투자	9.7	5.1	8.6	6.6	7.3	5.3	9.7	7.3	7.3	5.7
재화수출(F.O.B)	4.8	6.0	4.4	6.6	6.5	2.4	3.0	4.5	3.9	3.6
재화수입	3.7	0.7	1.9	-1.5	0.8	0.4	4.9	1.2	3.4	1.2

주: 1)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9) 2014년 2/4분기 중 지식재산권사용료지급액은 22.6억 달러(계절조정 기준)로 1/4분기 22.9억 달러에 비해 11.0% 감소하였음(한국은행(2014. 9. 30),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산업생산 · 경기〉

■ 2014년 2/4분기 산업생산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9%p 하락한 0.8% 증가하는데 그침.

○ 2014년 2/4분기 광공업생산은 조업일수 감소 등에 따른 자동차산업 생산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0.3% 증가에 그침.

- 7월 광공업생산은 3.9% 증가하였다가 8월 자동차업계 파업 및 강우량 증가에 따른 조선업 생산 차질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2.8% 감소함.

○ 2014년 2/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1.4%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야외활동 감소 등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0.2%,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 감소하였기 때문임.

- 7월 서비스업 생산은 도매 및 소매업을 제외한 주요 업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9% 증가하였음.

〈표 21〉 생산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전산업생산 ³⁾	0.5	2.0	1.2	2.6	1.6	1.7	0.8	2.7	0.6
광공업	-0.8	0.0	0.2	1.7	0.3	0.7	0.3	3.9	-2.8
제조업	-0.8	0.0	0.1	1.8	0.3	0.6	0.3	4.0	-2.7
자동차	-3.6	-2.2	5.4	5.6	1.2	7.6	3.6	20.3	-14.8
ICT	2.7	4.3	8.1	-1.2	3.3	-0.8	0.8	0.4	-2.2
서비스업	0.9	1.7	0.8	2.1	1.4	1.9	1.4	2.9	2.2
도매 및 소매업	-0.5	0.3	-0.7	0.2	-0.2	0.5	-0.2	-0.2	0.3
운수업	1.9	2.6	-0.6	0.7	1.1	0.6	0.0	3.7	0.5
숙박 및 음식점업	-0.8	-0.9	0.8	2.4	0.4	0.5	-2.0	2.7	1.5
금융 및 보험업	1.0	2.9	-0.9	-0.5	0.5	1.4	3.5	7.1	7.5
부동산 및 임대업	-2.3	5.7	1.8	4.8	2.5	4.1	4.2	4.8	4.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 2014년 2/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하락하였으나, 7월과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소폭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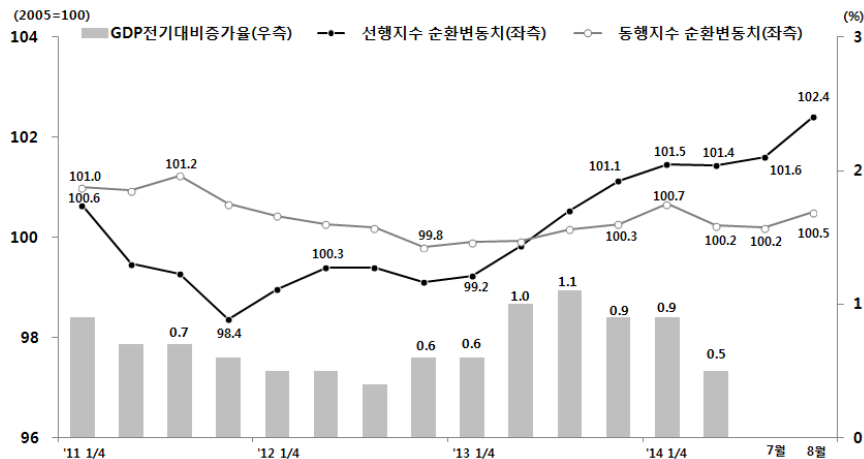
○ 2014년 2/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구인구직비율과 재고순환지표 하락 등으로 전분기대비 0.1 하락한 101.4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4년 7월 주식시장 개선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101.6을 나타냈으며 8월 건설수주 증가로 전월대비 0.8 상승한 102.4를 기록함.

○ 2014년 2/4분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이에 따른 산업 생산 둔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0.5 하락한 100.2를 기록하였음.

- 내수 부진 지속, 전월대비 수입액 감소 등으로 7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2를 기록하였으나 8월 소매판매 및 서비스업 생산 회복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한 100.5를 나타냄.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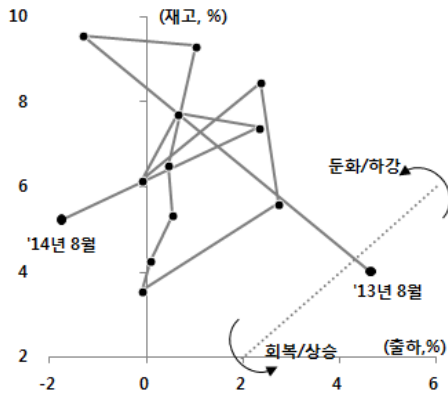
주: 2014년 2/4분기,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4년 8월 제조업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5.2% 증가하여 제조업 경기는 둔화/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¹⁰⁾

○ 제조업 출하대비 재고비율(재고율)은 122.9%로 2013년 8월에 비해 8.1%p 상승하였음.

10) 2014년 5~8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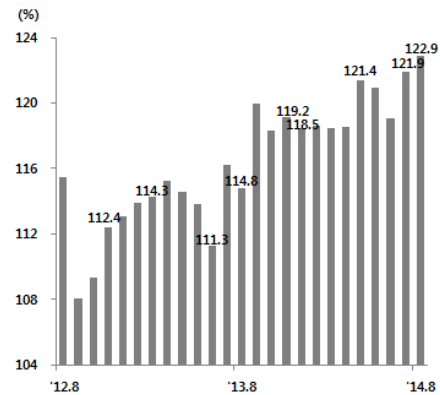
〈그림 2〉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도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비율1)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내수부문〉

■ 2014년 2/4분기 소매판매는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분기대비 1.8%p 하락한 0.7%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7월에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8월 취업자 증가세 확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2.1% 증가함.

○ 2014년 2/4분기 내구재 판매의 경우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등의 영향으로 통신기기 판매 등이 감소하면서 2.5% 증가하는데 그침.

- 승용차 판매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¹¹⁾ 효과가 지속되면서 15.6% 증가하였음.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2.4% 감소하였으며 7월에도 2.8% 줄어들었으나 8월 휴가철 영향으로 4.5% 증가하였음.

○ 2014년 2/4분기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단체 여행 취소가 증가하면서 차량연료 판매가 감소하여 전분기대비 1.4%p 하락한 1.3% 증가하는데 그쳤음.

11) 2014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 차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하향 조정됨.

〈표 22〉 소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¹⁾	7월 ¹⁾	8월 ¹⁾
민간소비	1.7	2.1	2.1	2.2	2.0	2.5	1.5	-	-
소매판매	0.3	1.2	0.7	1.2	0.8	2.5	0.7	0.6	2.1
내구재	1.4	2.9	-1.4	-1.5	0.3	6.0	2.5	3.0	1.7
* 승용차	4.1	2.1	6.3	-3.4	2.1	14.1	15.6	12.0	8.3
준내구재	2.7	1.6	2.9	1.0	2.0	-1.8	-2.4	-2.8	4.5
비내구재	-1.4	0.2	0.7	2.8	0.6	2.7	1.3	0.8	1.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4년 2/4분기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운송장비 투자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하였음.

○ 2014년 2/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투자 부진 지속에도 항공기 도입 등 운송장비 투자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6.2% 상승함.

- 7월 기계류 투자가 감소로 전환하면서 설비투자지수는 2.8%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8월 재고율 상승과 광공업 생산 감소, 이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8% 하락함.

○ 2014년 2/4분기 국내기계수주는 4.4% 증가하였으나 7월 6.9% 감소하였고, 8월 공공부문 수주 증가로 153.6% 늘어남.

〈표 23〉 투자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²⁾	7월 ²⁾	8월 ²⁾
설비투자	-12.7	-3.9	1.5	10.9	-1.5	7.3	7.7	-	-
설비투자지수	-13.1	-4.0	2.7	10.4	-1.3	5.9	6.2	2.8	-9.8
기계류	-16.5	-5.7	1.9	12.3	-2.6	4.8	2.7	-3.3	-8.4
운송장비	-2.6	0.9	4.8	5.6	2.3	8.6	15.6	18.5	-12.9
국내기계수주 ³⁾	-11.4	8.8	2.2	32.4	6.7	17.9	4.4	-6.9	153.6
건설투자	1.9	9.8	8.8	5.4	6.7	4.3	0.2	-	-
건설기성(불변)	4.4	15.0	10.5	9.7	10.1	6.5	0.1	-0.8	-0.4
건축	3.9	19.7	15.3	18.7	14.8	17.1	11.9	10.7	5.1
토목	5.2	9.3	4.3	-0.4	4.3	-7.4	-15.4	-16.3	-8.7
국내건설수주(경상)	-40.8	-29.5	-10.6	22.4	-15.3	15.5	26.1	21.6	79.3
건축	-34.0	-29.6	-10.8	17.9	-13.4	10.7	47.0	22.4	126.8
토목	-50.4	-29.4	-10.0	33.4	-19.1	24.4	-11.2	18.7	-30.6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단,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경우 2013년, 2014년 모두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4년 2/4분기 건설투자는 지방이전 청사 건축 관련 공사 물량 감소와 성장 둔화에 따른 상업용 건물 투자 감소, 정부의 SOC 예산 감소와 민간 플랜트 및 정부 발전소 투자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침.

○ 2014년 2/4분기 건설기성 증가율은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지연 등으로 전분기대비 6.4%p 감소한 0.1%를 기록함.

- 2014년 7월 건설기성은 토목 부문 부진으로 0.8% 줄어들었으며 8월에도 0.4% 감소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2013년 2/4분기 29.5% 감소한데 대한 기저효과와 민간부문 신규 주택 수주 증가로 2014년 2/4분기 26.1% 증가하였음.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건설수주는 7월 21.6%, 8월 79.3% 증가함.

〈대외거래〉

■ 2014년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462억 3,000만 달러, 수입은 3.1% 증가한 428억 6,000만 달러를 시현하였고 무역수지는 33억 7,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함.

○ 수출 품목별로 식료 및 직접소비재(+15.6%)와 원료 및 연료(+6.5%)는 증가하였으나, 경공업 제품(-2.7%), 중화학 공업품(-1.1%)은 감소하였음.

○ 수입 품목별로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16.5%)와 원유 및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6.0%)는 증가하였으나 자본재(-8.5%)는 감소하였음.

〈표 24〉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0.9	-3.2	-7.2	2.7	-1.7	4.8	4.6	3.8	15.6
	원료 및 연료	2.9	-8.5	-9.3	-10.6	-6.5	-7.5	2.9	9.8	6.5
	경공업 제품	-3.6	-1.2	-8.5	-1.0	-3.6	-2.6	-0.4	-0.3	-2.7
	중화학 공업품	0.3	2.3	6.0	7.6	4.0	3.4	3.6	5.2	-1.1
	전체	0.3	0.7	2.8	4.7	2.1	1.7	3.2	5.2	-0.2
	금액(억 달러)	1,353	1,412	1,368	1,464	5,596	1,376	1,457	482.2	462.3
수입	소비재	5.5	7.2	6.3	10.8	7.5	9.7	12.9	17.0	16.5
	원자재	-3.4	-6.9	-2.9	-1.4	-3.7	0.9	0.8	4.5	6.0
	자본재	-4.9	3.1	5.1	8.1	2.8	1.7	4.5	4.0	-8.5
	전체	-2.9	-2.8	0.3	2.5	-0.8	2.0	3.2	5.8	3.1
	금액(억 달러)	1,297	1,268	1,260	1,331	5,156	1,323	1,308	458.9	428.6
무역수지(억 달러)		55.9	144.0	107.6	133.0	440.5	52.2	149.1	23.3	33.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3) 수출과 수입은 2014년 8월까지 확정치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4년 8월 지역별 수출입의 경우 일본으로의 수출입이 감소하였음.

○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미국(+7.0%)과 EU(+9.6%)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8.1%), 중국(-3.8%)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음.

-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 내수부진, 수출둔화,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제품, 석유화학, 평판 디스플레이 등의 중국 내 공급능력 확대임.¹²⁾
- 우리나라의 일본(-13.0%), EU(-1.3%)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미국(+3.8%), 중동(+12.2%)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였음.

〈표 25〉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8월	증감률	1~8월	증감률	8월	증감률	1~8월	증감률
미국	53.2	7.0	452.9	9.2	33.3	3.8	302.1	9.2
일본	25.4	-8.1	217.3	-4.3	42.2	-13.0	356.4	-12.0
EU	43.3	9.6	362.1	10.8	48.5	-1.3	417.7	12.9
동남아	100.7	-2.2	854.4	2.1	58.0	0.8	469.2	2.2
중동	25.0	2.9	227.5	5.1	108.2	12.2	832.5	-0.1
중국	120.0	-3.8	933.8	-1.6	67.7	3.4	580.3	6.1
중남미	29.9	0.9	225.7	-8.9	18.0	14.3	117.8	-5.8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물가 및 고용〉

2014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 상승하였고, 취업자 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었음. 가계소득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하였음.

- 2014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와 무상보육·급식에 따른 소비자물가 하락 효과 소멸 등으로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1.6%를 나타냈으며 7월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8월 상품물가 상승률 하락으로 1.4%를 기록함.

12)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4. 8. 28), 「최근 對中 수출 부진 요인과 시사점」.

- 2013년 2/4분기 상품가격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6%p 상승한 1.6%를 기록하였으나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국제유가와 환율 안정 등으로 7월과 8월 각각 1.4%, 1.0%를 나타냄.
- 반면 2014년 2/4분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운수, 통신, 금융 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1.6%를 기록하였으며 7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 확대로 1.7%를 나타냄.

■ 2014년 2/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분기보다 2.7 하락한 115.7을 기록하였고 7월 109.0으로 하락하였으나, 8월 118.4로 상승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2014년 1/4분기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자기대지수 ¹⁾	107.8	111.3	112.5	114.1	111.4	118.4	115.7	109.0	118.4
소비자물가 상승률	1.6	1.2	1.4	1.1	1.3	1.1	1.6	1.6	1.4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1.5	0.7	1.2	0.8	1.0	1.0	1.6	1.4	1.0
농축수산물	2.2	-0.6	0.1	-4.3	-0.6	-4.7	-2.2	-2.2	-4.8
공업제품	0.8	0.2	1.1	1.4	0.9	1.6	2.0	1.9	2.1
전기·수도·가스	4.8	5.7	3.5	4.2	4.5	5.4	4.2	3.6	3.3
서비스	1.6	1.7	1.5	1.3	1.5	1.3	1.6	1.7	1.7
집세	3.0	2.6	2.5	2.5	2.7	2.5	2.4	2.3	2.2
공공서비스	0.9	0.8	0.4	0.6	0.7	0.7	0.7	1.1	0.8
개인서비스	1.5	1.8	1.7	1.3	1.6	1.2	1.8	1.8	1.9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로 산출함.

2)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2014년 2/4분기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총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장년층 인구증가 및 노동시장 잔류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음.

- 2014년 2/4분기 총취업자 수 증가율은 세월호 사고 여파와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 둔화로 전분기대비 1.2%p 하락한 1.8%를 기록하였으나 7월 2.0%, 8월 2.3%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임.
 - 청년취업자 수는 2/4분기 1.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7월 2.7%, 8월 3.8% 늘어남.
- 2014년 2/4분기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2.0%p 상승한 60.8%를 기록하였으며 7월 61.1%, 8월 60.8%를 나타냄.
 - 2014년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3.7%를 나타냈으며 7월 3.4%, 8월 3.3%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임.
 - 청년실업률도 2014년 2/4분기 9.4%, 7월 8.9%, 8월 8.4%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 2/4분기와 3/4분기 7.9%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27〉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총취업자 ¹⁾	1.1	1.3	1.7	2.2	1.6	3.0	1.8	2.0	2.3
청년취업자 ¹⁾	-3.0	-2.3	-1.1	1.2	-1.3	2.6	1.4	2.7	3.8
고용률 ²⁾	57.7	60.2	60.3	60.0	59.5	58.8	60.8	61.1	60.8
실업률 ³⁾	3.6	3.1	3.0	2.8	3.1	4.0	3.7	3.4	3.3
청년 ⁴⁾ 실업률 ³⁾	8.4	7.9	7.9	7.9	8.0	9.8	9.4	8.9	8.4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0.7	-1.6	1.1	-1.0	-0.5	1.0	-3.2	-6.4	-7.3
광공업	3.0	3.0	0.6	1.2	1.9	2.9	3.2	4.5	5.2
제조업	3.0	3.0	0.6	1.2	1.9	3.0	3.3	4.6	5.3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0.8	1.2	2.0	2.6	1.6	3.2	2.0	2.2	2.6
건설업	-3.7	-0.4	0.2	-0.5	-1.1	1.6	0.6	3.2	3.7
도·소매, 음식, 숙박	-0.7	-0.2	0.7	2.6	0.6	5.5	3.8	4.9	5.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3.1	1.7	2.5	3.6	2.7	2.4	1.9	1.9	2.7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0.4	3.1	3.8	1.9	2.1	1.9	-0.5	-2.4	-2.9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4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세는 확대되었고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둔화되었음.

- 2014년 2/4분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하였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6.4%, 7.3% 감소하였음.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¹³⁾는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였으며 7월 4.5%, 8월 5.2%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1.2%p 하락한 2.0%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7월 2.2%, 8월 2.6% 증가하며 소폭 회복하고 있음.
 - 2014년 2/4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0.6%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7월과 8월 건설수주 증가로 각각 3.2%, 3.7% 늘어남.
 - 2014년 2/4분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취업자 수는 금융업권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0.5%p 하락한 1.9% 증가하는데 그침.
 -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의 경우 세월호 참사에 따른 외부활동 감소로 전분기대비 1.7%p 하락한 3.8% 증가하는데 그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하였으며 7월 2.4%, 8월 2.9% 줄어들었음.

■ 2014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명목 임금상승률 하락¹⁴⁾ 등으로 전분기대비 2.2%p 하락한 2.8%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소비지출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3.1% 증가하는데 그침.

- 2014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5만 2,171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8% 증가하였고 실질소득 증가율도 전분기대비 2.8%p 하락한 1.1% 늘어나는데 그침.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38만 553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90만 2,881원으로 2.2%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5.1%p 둔화되었음.

13) 제조업 포함.

14) 명목임금상승률(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기준, 전년동기비, %): 2013년 2/4분기 4.6% → 2013년 3/4분기 3.9% → 2013년 4/4분기 3.2% → 2014년 1/4분기 2.9% → 2014년 2/4분기 1.8%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7만 7,672원으로 전분기대비 1.3%p 하락한 3.1%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비지출은 1.5% 증가하여 흑자액은 2.2% 증가함.

- 평균소비성향이 73.3%로 전년동기보다 0.2%p 상승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6.7%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함.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단위: %, %p)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만 원)	419.3	404.1	426.0	416.3	416.2	440.3	415.2
	증가율	1.7	2.5	2.9	1.7	2.1	5.0	2.8
	실질증가율 ²⁾	0.3	1.3	1.6	0.7	0.8	3.9	1.1
처분가능 소득	금액(만 원)	339.1	328.7	345.2	340.4	338.1	365.3	338.1
	증가율	1.7	2.1	3.1	1.3	1.9	5.1	2.8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만 원)	254.3	240.3	249.4	248.4	248.1	265.4	247.8
	증가율	-1.0	0.7	1.1	3.0	0.9	4.4	3.1
	실질증가율 ²⁾	-2.4	-0.4	-0.1	1.9	-0.4	3.2	1.5
흑자액	금액(만 원)	84.8	88.4	95.9	92.0	90.0	90.9	90.3
	증가율	10.8	6.1	8.6	-3.0	4.7	7.3	2.2
평균소비성향 ³⁾		75.0	73.1	72.2	73.0	73.4	74.5	73.3
흑자율 ⁴⁾		25.0	26.9	27.8	27.0	26.6	25.5	26.7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2014년 8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25%로 하향 조정함. 2014년 3/4분기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및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와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4년 2/4분기보다 32bp 하락한 2.50%를 기록함.

■ 2014년 8월 14일 한국은행은 2013년 2/4분기부터 2.5%를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2.25%로 하향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세계 경제가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는 미 연준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 경제의 내수 개선 미흡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25%로 하향 조정함.

■ 2014년 3/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미 국채 금리 하락,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 국내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32bp 하락한 2.50%를 기록함.

- 7월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와 미 국채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6월 평균 국고채 금리 2.88%에서 32bp 하락하여 평균 2.56%를 기록함.
- 8월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 약화 등의 상승요인과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 등의 하락요인 혼재로 2.52%~2.58% 사이에서 등락함.
- 9월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와 미 국채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평균 2.41%를 기록함.

■ 2014년 3/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2.51%로 2013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였으며 신용 스프레드는 전분기대비 4bp 감소함.

- 2014년 3/4분기 CD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평균 2.51%를 나타내며 전분기 대비 14bp 하락하였음.

- 2014년 3/4분기 평균 ‘국고채(3년) - CD(91일)’ 간 스프레드는 전분기대비 18bp 감소한 -1bp를 기록하며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함.
- 회사채 금리는 3/4분기 평균 2.89%로 전분기대비 36bp 감소하였고, 신용 스프레드는 평균 39bp로 전분기대비 4bp 하락함.
- 3/4분기 회사채 금리는 우량물 · 비우량물 모두 하락세를 보임.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단위: %, %p)

구분	2013 3/4	2013 4/4	2014 1/4	2014 2/4	2014 3/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2.50	2.50	2.50	2.50	2.25	-0.25	-0.25
CD(91일)	2.67	2.65	2.65	2.65	2.51	-0.14	-0.16
국고채(3년)	2.92	2.90	2.87	2.82	2.50	-0.32	-0.42
회사채(3년, AA-)	3.33	3.33	3.30	3.25	2.89	-0.36	-0.44
스프레드(국고채-CD)	0.25	0.25	0.22	0.17	-0.01	-0.18	-0.26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41	0.43	0.43	0.43	0.39	-0.04	-0.02

주: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환율〉

2014년 3/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25.8원으로 2014년 2/4분기 1,030.4원보다 4.6원 하락함.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수출업체 달러 매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3/4분기 말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및 미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전환됨.

- 2014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수출업체 달러 매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인한 원화 강세 지속으로 평균 1,025.8원을 기록함.
- 2014년 7월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여 평균 1,019.9원이었음.

- 2014년 8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 및 아르헨티나 디폴트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나, 한은 기준금리 인하 단행과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약화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평균 1,025.4원을 나타냄.
- 2014년 9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수출업체 달러 매도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환율 하락 압력이 있었으나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시사 가능성 및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하여 1,033.2원을 기록함.

〈표 30〉 환율 추이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3		2014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원/달러	1,112.2	1,061.8	1,069.0	1,030.4	1,025.8	1,019.9	1,025.4	1,033.2
엔/달러	98.9	100.5	102.8	102.2	103.8	101.7	103.0	107.4
달러/유로	1.324	1.361	1.370	1.371	1.328	1.355	1.332	1.292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 2014년 3/4분기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 미국 경제지표 개선, 유로존 경제 회복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엔화와 유로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임.
- 7월 엔/달러 환율은 미국 2/4분기 경제성장률 실적호조로 미 연준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승하여 평균 101.7엔을 나타냈고,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존 경기 부진 전망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하여 1.355달러를 나타냄.
- 8월 엔/달러 환율은 일본 2/4분기 경제성장률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및 추가 양적 완화 도입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여 103.0엔을 나타냈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및 유로존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1.332달러를 나타냄.
- 9월 달러화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미 연준의 2015년 기준금리 전망 상향 조정, ECB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여 엔/달러 환율과 달러/유로 환율은 각각 상승, 하락하여 107.4엔과 1.292달러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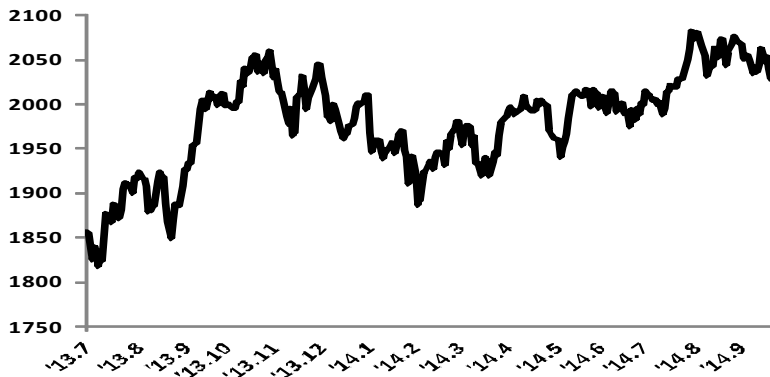
〈주가지수〉

2014년 3/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신흥국 경기 둔화, 지정학적 위험 확대 등의 하락 요인이 있었으나 미국 경제성장률 실적호조, 국내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전분기평균 1,993.36보다 상승하여 분기 평균 2,041.86을 기록함.

■ 2014년 3/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일부 신흥국 경기 둔화, 지정학적 위험 확대 등의 하방 위험이 있었으나 미국 경제성장률 실적호조, 국내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임.

- 7월 종합주가지수는 선진국 경제지표 호조 및 경기부양책 발표 영향으로 상승하여 평균 2,021.95를 기록하였으며, 7월 말 2,082.6까지 상승함.
- 8월 종합주가지수는 경기부양책 발표 및 ECB 양적 완화 시행 가능성의 상승요인과 지정학적 불안 확대 등의 하락 요인 혼재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평균 2,060.93을 기록함.
- 9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042.71을 기록하였는데, 월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른 기대감과 외국인 순매수의 상승요인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우려, 3/4분기 국내 실적 부진 전망에 따른 대형주 부진, 외국인 순매도 지속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됨.

〈그림 4〉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흐름〉

2014년 2/4분기 보험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32.7%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금융권 순수신의 경우 증권을 제외한 은행, 자산운용, 종합금융 모두 감소함.

- 2014년 2/4분기 보험권 총순수신은 17조 7,189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32.7% 증가함.
 - 2/4분기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8.86% 증가한 11조 967억 원임.
 - 수입보험료는 전분기대비 2.9% 증가하였고, 지급보험금은 전분기대비 1% 감소함.
 - 2/4분기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3조 4,607억 원 증가한 6조 6,222억 원임.
 - 원수보험료와 원수손해액의 규모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원수손해액 증가율을 상회하며 손해보험 순수신이 증가함.
- 2014년 2/4분기 금융권 순수신은 증권을 제외하고 은행, 자산운용, 종합금융 모두 감소함.
 - 은행의 경우 일반계정이 전분기대비 16.0%증가했으나 신탁계정이 전분기대비 74.7% 감소하며, 전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8.3% 감소한 25조 5억 원을 기록함.
 - 증권사의 경우 전체 순수신이 전분기대비 1조 2,184억 원 증가한 1조 9,088억 원을 기록함.
 - 자산운용업의 총순수신은 전분기대비 82.6% 감소하여 1조 6,946억 원임.
 - 주식형 펀드의 감소세와 MMF의 감소가 자산운용업 총순수신 감소에 영향을 미침.
 - MMF는 반기 말 BIS 비율 관리 등을 위한 은행의 자금인출에 기인하여 큰 폭으로 감소
 - 종합금융 순수신 역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전분기대비 69.2% 감소한 2,733억 원을 나타냄.

〈표 31〉 금융권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3/4	4/4	1/4	2/4	3/4	4/4	1/4	2/4	3/4
보험 ¹⁾	174,037	201,794	195,836	139,623	138,497	164,155	133,551	177,189	-
- 생보	145,350	169,906	166,114	109,365	108,554	135,447	101,936	110,967	-
수입보험료	281,233	313,339	313,227	245,003	240,001	287,363	257,467	264,960	-
지급보험금	135,883	143,434	147,113	135,639	131,447	151,916	155,531	153,993	-
- 손보	28,687	31,889	29,722	30,258	29,943	28,708	31,615	66,222	-
원수보험료	167,265	180,624	169,569	173,584	171,156	186,613	183,082	63,299	-
원수손해액	138,578	148,736	139,847	143,326	141,213	157,905	151,466	297,077	-
은행	113,355	104,974	123,354	182,746	-31,782	229,979	272,496	250,005	104,703
- 일반 ²⁾	54,395	118,680	48,120	147,443	-40,955	128,580	199,612	231,527	45,795
- 신탁	58,960	-13,706	75,234	35,303	9,173	101,399	72,884	18,478	58,908
증권 ³⁾	67,718	-22,900	96,983	9,232	-5,597	-47,513	6,904	19,088	53,478
자산운용 ⁴⁾	32,104	21,299	183,595	44,093	-9,264	-41,835	96,918	16,946	196,161
종금 ⁵⁾	-17,161	-2,493	-21,220	-11,420	1,082	2,444	8,863	2,733	826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2014년 2/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8.1%, 3.8%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44조 5,177억 원을 기록함.

■ 2014년 2/4분기¹⁾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 대부분 종목이 수입보험료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일부 손해보험 종목은 부진한 원수보험료 실적을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²⁾ 6.4% 증가한 44조 5,177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종목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1% 증가한 26조 4,960억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소폭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연금 부문과 일반손해보험 실적 부진으로 3.8% 증가에 그친 18조 217억 원을 나타냄.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1),2)}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2/4
생명보험	31.3 (39.9)	115.3 (31.3)	24.5 (-0.1)	24.0 (-14.7)	28.7 (-8.3)	77.2 (-8.0)	25.7 (-17.8)	26.5 (8.1)
손해보험	17.0 (5.5)	68.5 (12.4)	17.4 (3.3)	17.1 (2.3)	19.3 (6.8)	53.8 (4.2)	18.3 (8.0)	18.0 (3.8)
합계	48.3 (25.5)	183.9 (23.6)	41.9 (1.3)	41.1 (-8.3)	48.0 (-2.8)	130.4 (-3.4)	44.1 (-8.8)	44.5 (6.4)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3) 2014년 2/4분기는 FY2013 1/3분기와 비교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으며, 2014년 2/4분기는 2014년 4월부터 6월 까지를 말함.

2) 2014년 2/4분기의 전년 동기간은 FY2013 1/3분기인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를 의미하며, 이하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함.

나. 총자산

2014년 2/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총자산이 모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3.1% 늘어난 810조 1,527억 원을 기록함.

■ 2014년 2/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의 경우 일반계정 자산을 중심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총자산이 모두 늘어나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3.1% 증가한 810조 1,527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일반계정의 국공채 등 채권과 해외유가증권자산이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2.6% 증가함.
- 손해보험 총자산 규모는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적립금이 늘어나 전분기대비 4.6% 증가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1),2)}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2/4
생명보험	569.8	569.8	569.5	584.1	597.5	597.5	609.2	625.0
	(4.0)	(24.4)	(-0.1)	(2.6)	(2.3)	(9.1)	(2.0)	(2.6)
손해보험	156.5	156.5	160.3	165.1	170.6	170.6	176.9	185.1
	(3.1)	(20.5)	(2.5)	(3.0)	(3.3)	(12.4)	(3.7)	(4.6)
합계	726.3	726.3	729.8	749.2	768.0	768.0	786.1	810.2
	(3.8)	(23.5)	(0.5)	(2.6)	(2.5)	(9.8)	(2.4)	(3.1)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2014년 2/4분기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기간보다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한 2.3%를 기록함.

■ 2014년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제외) 자본이익률이 모두 상승하여 전년동기인 FY2013 1/3분기에 비해 0.3%p 높아진 2.3%를 나타냄.

-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총자본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총자본 증가율을 앞서 0.4%p 상승한 2.0%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3.0%를 나타냄.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1),2)}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3),4)}	1/4	2/4
생명보험	1.4	6.6	1.6	1.8	0.7	4.1	1.9	2.0
손해보험	1.9	11.6	2.9	2.4	1.5	7.0	2.6	3.0
합계	1.5	7.8	2.0	2.0	0.9	4.8	2.1	2.3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화재보험의 진입으로 FY2012 1/4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FY2013 3/3분기 생명보험회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진입으로 25개 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개요〉

■ 2014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인 FY2013 1/3분기에 비해 변액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8.1% 증가한 26조 4,960억 원을 기록함(〈표 4〉참조).

○ 개인보험의 경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세제혜택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어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5.8%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51.2% 증가함.

■ 2014년 2/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일반계정의 국공채 등 채권과 해외유가증권 자산이 늘면서 2.6% 증가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2/4
수입보험료 ²⁾	31.3	115.3	24.5	24.0	28.7	77.2	25.7	26.5
	(39.9)	(31.3)	(-0.1)	(-14.7)	(-8.3)	(-8.0)	(-17.8)	(8.1)
총자산	569.8	569.8	569.5	584.1	597.5	597.5	609.2	625.0
	(4.0)	(24.4)	(-0.1)	(2.6)	(2.3)	(9.1)	(2.0)	(2.6)

주: 1) () 안은 수입보험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2014년 2/4분기는 FY2013 1/3분기와 비교하였고,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 특별계정 보험종목인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을 포함한 실적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2014년 2/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5.8% 증가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2월 세제개편안 시행 전의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14.1% 증가하였음.
 - 생존보험 가운데 비중이 큰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 소멸로 전년동기대비 18.1% 증가함.
 - 개인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증가세가 둔화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과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함.
 - 종신보험과 질병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3%, 5.0% 증가하였으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질병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FY2013 1/3분기부터 5분기 연속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2013년 2월 세제개편에 따른 기저효과 소멸의 영향으로 8.5% 증가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세가 줄어들음.
 -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0% 감소하였으며,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변액유니버설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함.
 - 변액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함으로써 4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나 변액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함.
 - 변액CI보험이 포함된 변액보험 기타 종목이 7분기 연속 두 자리 수의 성장을 하였으며 FY2013 3/3분기부터 2천억 원대의 수입보험료를 시현함.
- 2014년 2/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51.2% 증가함.

○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2.0%, 25.3% 감소한 반면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4.1% 증가함.

- FY2012 3/4분기 이후 성장세를 보이던 일반단체보험이 두 자리 수대의 감소를 기록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2013년 12월 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증가세를 지속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2/4
생존	보험료	97,580	336,612	53,144	53,996	55,496	162,636	58,006	60,647
	증가율	88.9	87.6	-8.9	-39.6	-39.2	-32.0	-40.6	14.1
	구성비	31.2	29.2	21.7	22.5	19.3	21.1	22.5	22.9
사망	보험료	78,494	308,411	78,913	79,458	80,289	238,660	81,286	82,133
	증가율	8.8	7.4	3.3	4.1	4.0	3.8	3.6	4.1
	구성비	25.1	26.7	32.2	33.1	27.9	30.9	31.6	31.0
생사 혼합	보험료	68,084	221,677	47,606	46,222	45,910	139,738	50,697	51,639
	증가율	83.3	81.1	3.3	-15.4	-13.2	-9.0	-25.5	8.5
	구성비	21.7	19.2	19.4	19.3	16.0	18.1	19.7	19.5
변액 보험	보험료	55,297	212,230	52,577	51,368	51,498	155,443	51,884	51,246
	증가율	4.1	-0.3	0.4	-0.8	-2.5	-0.9	-6.2	-2.5
	구성비	17.7	18.4	21.5	21.4	17.9	20.1	20.2	19.3
개인계	보험료	299,455	1,078,929	232,239	231,044	233,194	696,477	241,873	245,665
	증가율	39.9	34.6	-0.4	-15.1	-15.0	-10.6	-19.2	5.8
	구성비	95.6	93.6	94.8	96.3	81.1	90.2	93.9	92.7
단체	보험료	13,772	74,156	12,765	8,957	54,169	75,891	15,594	19,295
	증가율	40.1	-3.1	5.3	-2.4	38.6	25.7	13.2	51.2
	구성비	4.4	6.4	5.2	3.7	18.9	9.8	6.1	7.3
합계	보험료	313,227	1,153,086	245,003	240,001	287,363	772,367	257,467	264,960
	증가율	39.9	31.3	-0.1	-14.7	-8.3	-8.0	-17.8	8.1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2/4분기는 FY2013 1/3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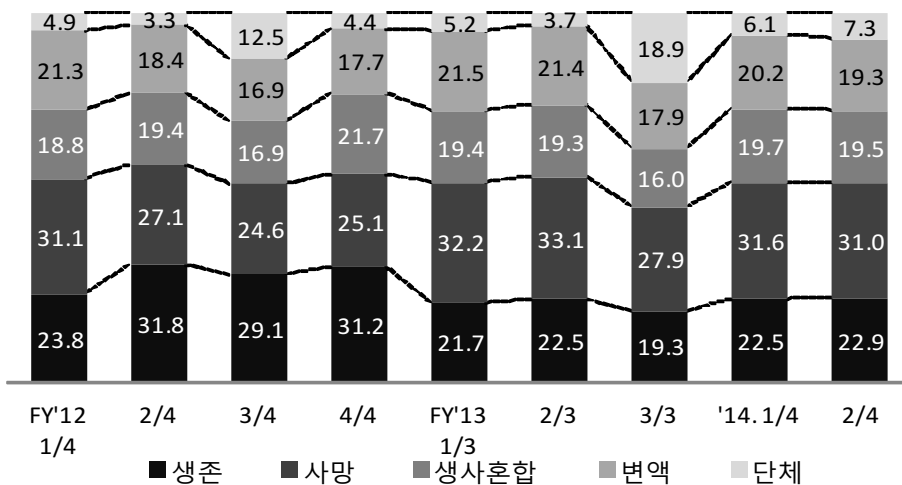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2014년 2/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과 단체보험은 상승하고,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이 하락함.

-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생존보험과 단체보험은 그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2%p, 2.1%p 높아져 각각 22.9%, 7.3%를 나타냄.
- 사망보험은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2%p 감소하여 31.0%를 기록하였음.
- 변액보험은 수입보험료 감소에 따라 그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2.2%p 감소하여 19.3%를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3개사와 국내중소형사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반면 외국사 점유율은 하락함.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과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각각 1.4%p, 1.5%p 상승한 48.2%, 38.2%를 기록함.

○ 외국사 점유율의 경우 2.7%p 하락한 13.7%를 기록함.

■ 2014년 2/4분기 허핀달 지수는 상위 3개사와 외국사의 점유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0026 상승한 0.1088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⁵⁾	1/4	2/4
상위 3개사	50.6	50.3	46.8	48.1	53.2	49.6	47.5	48.2
국내중소형사 ²⁾	34.6	33.9	36.7	34.6	31.3	33.5	38.6	38.2
외국사 ³⁾	14.8	15.8	16.4	17.3	15.6	16.9	13.9	13.7
허핀달 지수 ⁴⁾	0.1272	0.1199	0.1062	0.1072	0.1284	0.1140	0.1070	0.1088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국내중소형사(15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정의하며 2013년 말 ING생명이 국내법인에 매각되어 2014년 1/4분기부터 국내중소형사에 포함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으로 2014년 6월 말 알리안츠 등 8개사임.

4)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5)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2014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변액보험 지급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개인보험 지급률이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2.7%p 상승한 58.1%를 기록함.

○ 개인보험 중 생존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49.5%로 나타남.

○ 사망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증가와 지급보험금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3.7%p 하락한 50.6%로 나타남.

○ 변액보험은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지급률이 전년동기대비 14.6%p 상승하여 64.4%를 기록함.

○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단체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100.9%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의 비율인 사업비율은 전년동기와 같은 15.0%로 나타났다으며, 해지율은 FY2013 2/3분기 대비 0.1%p 하락한 4.9%를 기록함.³⁾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2/4
보험금 지급률 ¹⁾	47.0	49.1	55.4	54.8	52.9	54.2	60.4	58.1
개인	44.3	47.1	52.9	53.0	57.8	54.6	57.0	54.8
생존	29.4	32.8	49.1	49.0	53.8	50.7	53.1	49.5
사망	58.5	56.3	54.3	53.9	55.1	54.4	55.8	50.6
생사혼합	40.6	47.3	58.1	54.5	60.4	57.6	64.8	58.1
변액	54.8	56.0	49.8	54.6	64.1	56.1	55.5	64.4
단체	105.7	78.4	100.7	100.1	31.7	51.3	113.7	100.9
사업비율 ²⁾	13.7	14.0	15.0	15.5	14.0	14.8	14.1	15.0
해지율 ³⁾	10.0	10.0	2.5	5.0	7.2	7.2	2.6	4.9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해지율은 누계치이므로 이전 회계연도(FY2013) 2/3분기와 비교함.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2014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의 경우 전년동기에 비해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4.1% 증가한 1조 549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및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하였고, 투자영업이익도 10.9% 증가하였음.

○ 책임준비금전입액은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한 10조 1,937억 원임.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24,951	88,640	18,476	18,446	18,694	55,616	19,541	19,932
	투자영업	5,266	22,651	6,540	5,753	6,180	18,473	6,120	7,059
	영업외	1,037	4,039	1,011	1,012	1,079	3,102	1,031	1,027
	소 계	31,254	115,330	26,027	25,211	25,953	77,190	26,693	28,018
총비용	보험영업	15,057	57,144	14,028	13,883	14,893	42,804	15,370	14,870
	투자영업	217	3,385	1,494	728	1,175	3,397	900	1,461
	영업외	161	674	205	190	301	695	204	161
	소 계	15,435	61,203	15,726	14,801	16,369	46,896	16,474	16,493
수지차	보험영업	9,895 (130.6)	31,496 (122.2)	4,448 (-2.0)	4,563 (-46.6)	3,801 (-55.4)	12,812 (-40.7)	4,171 (-57.8)	5,062 (13.8)
	투자영업	5,049 (11.1)	19,266 (15.2)	5,046 (9.5)	5,024 (2.5)	5,005 (6.3)	15,076 (6.0)	5,220 (3.4)	5,598 (10.9)
	영업외	876	3,365	807	822	778	2,407	828	866
	소 계	15,819	54,127	10,301	10,410	9,584	30,294	10,218	11,526
책임준비금전입		15,057	50,216	9,142	9,207	9,112	27,461	9,096	10,194
법인세		36	711	309	296	135	740	182	277
당기순이익		726 (-29.5)	3,200 (-5.1)	850 (0.7)	906 (-2.0)	337 (-52.2)	2,093 (-15.4)	941 (29.7)	1,054.9 (24.1)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2/4분기는 FY2013 1/3분기와 비교함.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부채 및 자본〉

■ 2014년 2/4분기 총부채는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 부채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의 증가로 8.8% 증가함.

○ 총부채 항목 중 책임준비금은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하였고, 총자본 항목 중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각각 3.3%, 11.9% 증가함.

〈표 9〉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1/3	2/3	3/3	1/4	2/4
책임준비금	금액	394	403	412	421	431	441
	증가율	27.6	14.3	12.8	11.3	9.3	9.4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9	7	7	7	7	8
	증가율	29.6	0.4	-15.8	-21.0	-25.6	4.6
기타부채	금액	15	14	13	13	13	13
	증가율	18.5	-0.4	-6.3	-9.6	-11.7	-5.0
특별계정부채	금액	97	96	100	106	107	109
	증가율	12.0	11.7	11.5	12.6	11.0	14.3
부채총계	금액	515	520	533	547	558	571
	증가율	24.1	13.2	11.5	10.3	8.4	9.8
자본금	금액	9	9	10	10	10	10
	증가율	7.6	1.9	3.5	2.8	2.8	3.3
자본잉여금	금액	6	6	6	6	6	6
	증가율	89.5	9.8	9.2	2.4	1.8	1.4
이익잉여금	금액	21	22	22	23	23	24
	증가율	12.7	13.1	12.2	10.4	8.8	11.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19	14	14	13	14	15
	증가율	48.7	5.2	-16.5	-22.5	-28.9	12.1
자본총계	금액	55	49	51	50	51	54
	증가율	27.1	7.7	0.2	-3.1	-6.9	8.8
부채및자본총계	금액	570	570	584	597	609	625
	증가율	24.4	12.7	10.4	9.1	6.9	9.7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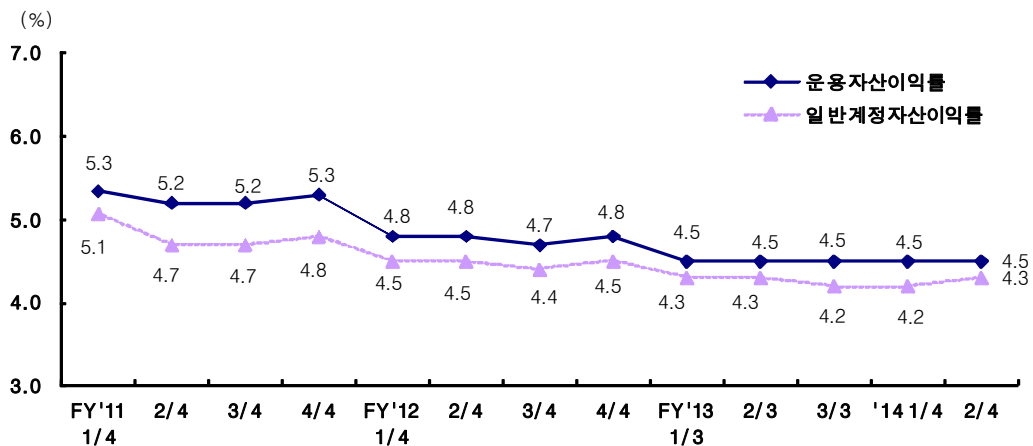
■ 2014년 2/4분기 운용자산이익률과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전년동기 이익률과 변화 없이 4.5%와 4.3%를 유지함.

○ 운용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매도가능증권 중 채권 등의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4.1%로 나타남.

○ 운용자산 중 해외유가증권의 높은 이익률(7.5%)의 영향으로 당기손익인식증권 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3.8%p 상승한 3.5%를 기록함.

■ 일반계정 중 투자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71.0%, 대출채권 17.8%, 부동산 2.9%, 현금과 예금 2.9%임.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1),2),3)} 추이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3						2014			
	1/3		2/3		3/3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3	100.0	4.3	100.0	4.2	100.0	4.2	100.0	4.3
운용자산 계	93.9	4.5	94.3	4.5	94.3	4.5	94.4	4.5	94.5	4.5
현금과 예금	3.1	3.3	2.8	2.8	2.7	2.8	2.7	3.1	2.9	3.0
유가증권	70.2	4.2	70.8	4.1	70.7	4.1	70.9	4.2	71.0	4.3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2.8	-0.3	3.3	1.5	2.2	2.2	2.6	3.0	2.5	3.5
- 주식	0.1	-21.6	0.1	-3.6	0.1	0.0	0.1	-0.8	0.1	0.4
- 채권 등	0.6	0.0	0.7	2.1	0.7	2.9	0.7	4.3	0.7	4.2
- 수익증권	2.0	0.6	2.5	1.6	1.5	2.1	1.8	2.6	1.7	3.3
○ 매도가능증권	50.5	4.2	49.7	4.1	49.7	4.1	48.9	4.3	49.1	4.3
- 주식	4.6	0.9	4.5	1.6	4.4	1.2	4.3	4.4	4.1	6.8
- 채권 등	43.0	4.5	42.4	4.4	42.3	4.4	41.5	4.2	41.8	4.1
- 수익증권	2.9	4.3	2.9	4.0	3.1	3.8	3.2	5.0	3.2	4.9
○ 만기보유증권	15.3	4.7	16.2	4.6	17.2	4.6	17.8	4.4	17.8	4.4
- 채권 등	15.3	4.7	16.2	4.6	17.2	4.6	17.8	4.4	17.8	4.4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7	7.0	1.6	4.9	1.5	4.1	1.6	2.4	1.6	2.5
대출채권	17.6	6.4	17.7	6.4	17.9	6.4	17.8	5.9	17.8	5.9
부동산	3.1	3.6	3.0	3.7	3.0	3.4	3.0	3.2	2.9	3.4
비운용자산	6.1	0.2	5.7	0.3	5.7	0.3	5.6	-0.1	5.5	0.7
총자산	100.0	2.3	100.0	3.7	100.0	3.9	100.0	3.5	100.0	3.9
일반계정	83.5	4.3	83.0	4.3	82.9	4.2	82.6	4.2	82.7	4.3
특별계정	16.5	-7.3	17.0	1.1	17.1	2.1	17.4	0.3	17.3	1.8
총자산 규모	5,695,133		5,840,714		5,974,801		6,092,048		6,250,250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본이익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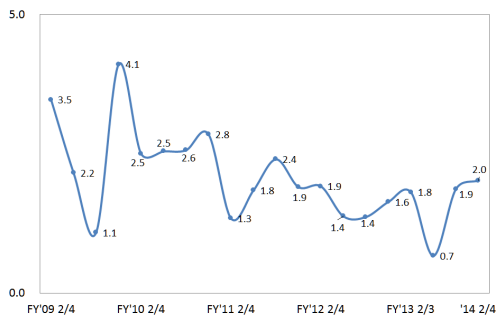
■ 2014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총자본 증가율을 상회하여 전년동기인 FY2013 1/3분기 대비 0.4%p 상승한 2.0%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4.1% 증가하고 총자본(자본총계)은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하면서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 방카사⁵⁾와 외국사 각 1개사, 그리고 2개 중소형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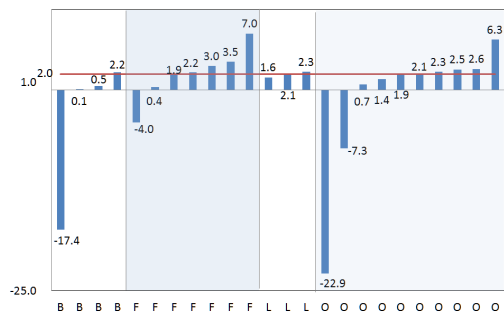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4년 2/4분기 방카사를 제외한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 대형사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2.1%를 기록함.

4)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 대상은 FY2012 1/4분기 농협생명보험, FY2013 3/3분기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포함되어 25개 회사임.

5) 방카사는 은행지주 계열사 중 KB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4개사를 대상으로 함.

-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낸 2개 중소형사와 1개 외국사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각각 0.4%p씩 상승한 1.8%, 2.8%를 기록함.
- 방카사의 경우 1개 회사의 당기순손실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2%p가 하락한 -1.6%의 음(-)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표 11〉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²⁾	1/3	2/3	3/3	연간 ^{2),3)}	1/4	2/4
대형사	1.5	6.4	1.5	1.8	0.6	3.8	2.1	2.1
중소형사	1.1	7.1	1.4	1.0	0.7	3.0	1.7	1.8
외국사	0.9	7.3	2.4	3.0	1.0	6.6	1.5	2.8
방카사	1.8	1.4	0.6	1.5	0.1	2.0	0.3	-1.6
전체	1.4	6.6	1.6	1.8	0.7	4.1	1.9	2.0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FY2013 연간수치는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2014년 2/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전년동기인 FY2013 1/3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이 소폭 하락한 반면, 단체보험 판매 증가로 임직원 판매채널 비중은 상승함.

- 2014년 2/4분기 방카슈랑스 비중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7%p 하락한 60.0%임.
- 설계사 판매비중의 경우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3.5%p 하락한 16.8%를 기록하였으며, 대리점의 경우 일반연금과 사망보험 초회보험료 증가로 소폭 상승하여 6.0%를 기록함.
- 임직원 판매비중은 퇴직연금 초회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9%p 상승한 17.0%를 나타냄.

〈표 12〉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²⁾	1/4	2/4
임직원	3.6	4.5	12.1	9.6	27.8	17.3	15.5	17.0
설계사	19.9	21.0	20.3	22.2	18.9	20.3	18.0	16.8
대리점	5.6	6.3	5.7	7.2	7.2	6.7	5.7	6.0
중개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70.8	68.1	61.7	60.8	45.8	55.4	60.5	60.0
기타	0.0	0.0	0.2	0.2	0.3	0.3	0.3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25,028	307,114	33,279	29,262	38,030	100,570	39,751	42,865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2)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2014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전분기대비 대리점은 소폭 증가하고, 임직원과 설계사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1,921명 감소한 28,532명으로 나타남.
-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3,133명 감소하였으며, 전속설계사와 교차설계사가 각각 3,033명, 100명 감소하여 136,02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 모두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총 125개 증가한 7,187개임.

〈표 13〉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1/3	2/3	3/3	1/4	2/4
임직원	30,436	30,578	30,744	30,380	30,453	28,532
설계사	154,830	151,805	149,083	143,075	139,161	136,028
- 전속	145,113	142,391	140,943	135,729	131,899	128,866
- 교차	9,717	9,414	8,140	7,346	7,262	7,162
대리점	7,693	7,484	7,335	7,035	7,062	7,187
- 개인	4,451	4,141	4,023	3,855	3,820	3,876
- 법인	3,242	3,343	3,312	3,180	3,242	3,311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2014년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연금부문과 일반손해보험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에 그친 18조 217억 원을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의 양호한 증가세에 힘입어 6.1% 증가한 10조 9,526억 원을 시현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여 4.3% 감소한 1조 6,153억 원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영업용 및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소폭의 대물 담보 수요 회복세 등으로 4.1% 증가한 3조 3,665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대부분 종목이 저조한 원수보험료 실적을 기록하여 1.2% 감소한 2조 873억 원을 기록함.

■ 2014년 2/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적립금이 늘어나 전분기대비 4.6% 증가한 185조 1,278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자산은 보험료 적립금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4.8% 늘어났으나 특별계정 자산은 퇴직연금 신규판매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1.3% 증가에 그침.

〈표 1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2/4
원수보험료	17.0 (5.5)	68.5 (12.4)	17.4 (3.3)	17.1 (2.3)	19.3 (6.8)	53.8 (4.2)	18.3 (8.0)	18.0 (3.8)
장기손보	10.3 (6.8)	40.2 (17.7)	10.3 (4.9)	10.6 (5.4)	10.6 (6.4)	31.5 (5.6)	11.1 (7.5)	11.0 (6.1)
연금부문 ²⁾	1.5 (7.0)	7.4 (11.1)	1.7 (3.1)	1.3 (-10.8)	3.3 (17.2)	6.3 (6.3)	2.0 (29.5)	1.6 (-4.3)
자동차	3.1 (-3.5)	12.8 (-1.5)	3.2 (-0.9)	3.2 (0.1)	3.3 (2.0)	9.7 (0.4)	3.2 (3.2)	3.4 (4.1)
일반손해	2.0 (13.5)	8.1 (13.9)	2.1 (2.6)	2.0 (0.1)	2.1 (1.6)	6.2 (1.5)	2.0 (1.5)	2.1 (-1.2)
총자산 ³⁾	156.5 (3.1)	156.5 (20.5)	160.3 (2.5)	165.1 (3.0)	170.6 (3.3)	170.6 (12.4)	176.9 (3.7)	185.1 (4.6)
일반계정	150.2 (2.9)	150.2 (20.2)	154.3 (2.7)	158.9 (3.0)	164.0 (3.2)	164.0 (12.3)	169.3 (3.3)	177.4 (4.8)
특별계정	6.3 (8.6)	6.3 (27.8)	6.0 (-3.7)	6.2 (2.0)	6.6 (7.3)	6.6 (14.4)	7.6 (14.7)	7.7 (1.3)

주: 1) () 안의 경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고, 2014년 2/4분기는 FY2013 1/3분기와 비교하였으며,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2014년 2/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호조세로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한 10조 9,526억 원을 기록함.

○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초회보험료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⁶⁾ 이전 급증한 신규계약의 계속보험료도 꾸준히 유입됨에 따라 각

각 9.9%, 19.9% 증가한 2조 9,114억 원, 2조 3,243억 원을 기록함.

-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1.2% 감소한 2조 8,991억 원을 나타냈으며, 이는 지속적인 월납 초회보험료 감소세로 인해 계속보험료 증가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임.
- 장기 운전자보험 원수보험료는 신상품 출시 등으로 FY2013 1/3분기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 재물보험과 장기 통합형보험 원수보험료는 신규수요 확대 요인 부재로 부진한 실적을 보임.

■ 2014년 2/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장기 상해보험, 장기 질병보험, 그리고 장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증가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9.6% 늘어난 5,89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6분기 동안 연속된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났음.

-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시행 직후인 FY2013 1/3분기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4년 2/4분기에 각각 40.6%, 9.2% 증가한 628억 원, 523억 원을 나타냄.
- 장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10.0% 늘어난 4,311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타 금융권대비 금리경쟁력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일시납 초회보험료가 전년동기에 비하여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임.
- 장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증가율이 FY2013 1/3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장기 재물보험과 장기 통합형보험 초회보험료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6) 2013년 1월 1일부터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시행되었으며, 제도변경 이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규수요가 급증하였음.

〈표 15〉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²⁾	1/4	2/4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5,782	97,301	26,497	26,923	27,604	81,024	28,306	29,114
		증가율	17.8	16.5	15.1	13.1	11.9	13.3	9.8	9.9
	운전자	보험료	6,128	24,555	6,156	6,233	6,305	18,694	6,386	6,438
		증가율	8.6	7.8	0.2	1.7	2.5	1.4	4.2	4.6
	재 물	보험료	9,266	37,429	9,451	9,417	9,330	28,198	9,258	9,344
		증가율	19.6	29.1	1.5	0.3	-1.3	0.1	-0.1	-1.1
	질 병	보험료	18,468	69,485	19,390	20,482	21,418	61,290	22,382	23,243
		증가율	15.2	11.2	18.0	21.0	21.2	20.1	21.2	19.9
	저축성	보험료	31,247	124,559	29,351	30,682	29,267	89,300	32,267	28,991
		증가율	-6.4	27.8	-6.6	-4.7	-1.4	-4.3	3.3	-1.2
	통합형	보험료	12,151	48,196	12,337	12,265	12,219	36,821	12,216	12,358
		증가율	3.4	6.1	3.4	1.6	1.4	2.2	0.5	0.2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73	371	56	51	45	151	42	39
		증가율	-46.1	-49.3	-45.7	-48.5	-53.3	-49.1	-42.5	-30.4
	소 계	보험료	103,114	401,896	103,238	106,053	106,187	315,478	110,858	109,526
		증가율	6.8	17.7	4.9	5.4	6.4	5.6	7.5	6.1
	상 해	보험료	912	2,735	447	482	574	1,503	600	628
		증가율	51.3	38.4	-20.5	-16.8	-15.9	-17.6	-34.2	40.6
	운전자	보험료	105	419	115	138	124	378	115	121
		증가율	36.7	50.1	14.7	25.8	19.3	20.1	10.1	4.4
	재 물	보험료	259	1,249	353	250	232	836	225	256
		증가율	-25.0	-20.2	-11.6	-18.2	-18.4	-15.6	-13.0	-27.5
	질 병	보험료	650	1,828	480	587	584	1,651	620	523
		증가율	96.4	58.9	58.6	55.7	17.3	40.2	-4.6	9.2
계 속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	5,461	30,539	3,919	4,034	3,036	10,989	5,946	4,311
		증가율	-60.2	7.2	-61.9	-56.1	-45.7	-56.2	8.9	10.0
	통합형	보험료	230	653	67	75	75	217	86	57
		증가율	15.9	8.3	-56.3	-46.8	-42.0	-48.8	-62.6	-15.1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0	0	0	0	0	0	0
		증가율	-	-	-	-	-	-	-	-
	소 계	보험료	7,616	37,423	5,379	5,568	4,626	15,574	7,592	5,895
		증가율	-50.1	9.9	-54.5	-48.0	-36.6	-47.8	-0.3	9.6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4,870	94,566	26,050	26,441	27,030	79,521	27,707	28,486
		증가율	16.8	15.9	16.0	13.8	12.6	14.1	11.4	9.3
	운전자	보험료	6,023	24,136	6,040	6,094	6,181	18,315	6,271	6,317
		증가율	8.2	7.3	-0.1	1.2	2.2	1.1	4.1	4.6
	재 물	보험료	9,007	36,180	9,098	9,167	9,098	27,362	9,033	9,088
		증가율	21.7	31.9	2.0	0.9	-0.8	0.7	0.3	-0.1
	질 병	보험료	17,817	67,658	18,910	19,895	20,834	59,639	21,762	22,720
		증가율	13.5	10.3	17.3	20.2	21.4	19.7	22.1	20.1
	저축성	보험료	25,787	94,020	25,433	26,647	26,231	78,311	26,321	24,679
		증가율	31.2	36.3	20.3	15.9	8.9	14.8	2.1	-3.0
	통합형	보험료	11,921	47,543	12,271	12,190	12,143	36,604	12,130	12,302
		증가율	3.2	6.1	4.2	2.2	1.9	2.8	1.8	0.3
계 속 보험료	자산 연계형	보험료	73	371	56	51	45	151	42	39
		증가율	-46.1	-49.5	-45.7	-48.5	-53.3	-49.1	-42.5	-30.4
계 속 보험료	소 계	보험료	95,498	364,472	97,858	100,484	101,562	299,904	103,266	103,631
		증가율	17.5	18.6	13.0	11.8	9.8	11.5	8.1	5.9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2/4분기는 FY2013 1/3분기와 비교함.

2)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4년 2/4분기 장기손해보험 누적 해지율은 모든 종목의 해지율 하락으로 FY2013 2/3분기⁷⁾와 비교하여 0.5%p 낮아진 5.7%를 기록함.

○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해지율의 경우 보유계약액 증가율이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나 각각 0.4%p, 0.3%p 하락한 6.0%, 4.9%를 나타냄.

-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연초보유계약액의 경우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호조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장기 저축성보험 해지율은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감소세로 0.8%p 하락한 5.3%를 기록함.

〈표 16〉 장기손해보험 해지율^{1),2)}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1/3	2/3	3/3	1/4	2/4
상 해	11.9	2.9	6.4	9.2	3.3	6.0
운전자	12.2	3.2	6.2	8.8	3.2	5.9
재 물	15.5	5.0	8.6	11.6	4.1	7.4
질 병	12.7	2.7	5.2	7.5	2.6	4.9
저축성	12.8	3.1	6.1	8.9	3.0	5.3
통합형	10.2	2.4	4.8	7.0	2.4	4.5
계	12.5	3.1	6.2	8.9	3.1	5.7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2014년 2/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원수보험료와 퇴직연금 원수보험료가 모두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줄어든 1조 6,153억 원을 시현함.

○ 개인연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효과⁸⁾ 약화와 수수료 인하⁹⁾ 등으로 신규

7) 해지율은 누계치이므로 이전 회계연도(FY2013) 2/3분기와 비교함.

8)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011년 1월부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한 연금저축 신규가입이 증가하였음.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14년 2/4분기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3.5% 감소한 1조 247억 원을 나타냄.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신규계약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여 5.5% 줄어든 5,905억 원을 기록함.

〈표 17〉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2/4
개인 연금	보험료	10,628	41,489	10,622	10,573	10,633	31,829	10,349	10,247
	증가율	13.8	21.1	7.8	2.7	-0.7	3.1	-2.6	-3.5
	구성비	70.4	55.8	62.9	80.7	32.2	50.5	52.9	63.4
퇴직 보험	보험료	0	9	3	0	7	10	0	0
	증가율	-100.0	-99.0	229.6	-100.0	233.6	18.8	-	-
	구성비	0.0	0.0	0.0	0.0	0.0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4,469	32,840	6,251	2,527	22,374	31,152	9,209	5,905
	증가율	-1.7	3.3	-4.1	-42.4	28.1	9.8	106.1	-5.5
	구성비	29.6	44.2	37.0	19.3	67.8	49.5	47.1	36.6
합계	보험료	15,097	74,337	16,877	13,100	33,014	62,991	19,558	16,153
	증가율	7.0	11.1	3.1	-10.8	17.2	6.3	29.5	-4.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2/4분기는 FY2013 1/3분기와 비교함.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2014년 2/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종합보험 원수보험료 회복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3조 3,665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대상 확대¹⁰⁾와 마일리지 및 블

9) 금감원(2013. 1. 10),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 계획 안내」 참조.

10) 보험 가입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기본 보험료가 할인되며, 2013년 9월 이후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함(금감원 보도자료, 2013. 7. 8).

랙박스 특약 가입자 증가 등으로 1.8% 감소한 7,849억 원을 나타냄.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자차 담보 실적 향상과 대인배상Ⅱ 및 대물 담보 증가세 유지 등으로 5.8% 늘어난 2조 4,079억 원을 기록함.

- 자차 담보 원수보험료는 차량 모델등급제도 개선¹¹⁾에 따른 외산차량의 평균 보험료 인상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함.

〈표 18〉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2/4
대인 I		7,765 (-3.3)	31,915 (-4.5)	7,992 (-1.5)	7,849 (-1.8)	7,918 (-1.6)	23,759 (-1.6)	7,606 (-2.1)	7,849 (-1.8)
종합 보험	대인 II	3,200 (-3.4)	13,072 (-1.9)	3,295 (0.2)	3,271 (-0.1)	3,393 (2.5)	9,960 (0.9)	3,270 (2.2)	3,366 (2.1)
	대물	10,335 (3.7)	41,325 (7.8)	10,923 (6.3)	10,956 (6.8)	11,348 (8.6)	33,227 (7.2)	11,011 (6.5)	11,583 (6.0)
	자차	7,311 (-13.5)	30,652 (-10.5)	7,144 (-10.4)	7,168 (-7.5)	7,211 (-5.4)	21,523 (-7.8)	7,505 (2.7)	7,630 (6.8)
	자손	1,120 (0.3)	4,561 (-0.2)	1,167 (3.5)	1,191 (4.2)	1,277 (9.2)	3,635 (5.6)	1,220 (8.9)	1,275 (9.3)
	무보험	227 (-12.0)	982 (-8.6)	231 (-9.2)	233 (-6.8)	232 (-7.3)	695 (-7.8)	220 (-3.3)	225 (-2.7)
	소계	22,193 (-4.0)	90,593 (-1.0)	22,760 (-0.7)	22,820 (0.6)	23,461 (2.9)	69,041 (0.9)	23,225 (4.7)	24,079 (5.8)
외화표시		25 (-2.9)	111 (-8.9)	34 (11.9)	23 (2.7)	34 (1.1)	91 (5.3)	20 (-17.2)	29 (-14.8)
이륜자동차 ²⁾		152 (0.7)	792 (24.2)	250 (-6.7)	212 (0.7)	173 (7.2)	635 (-0.8)	167 (9.8)	257 (3.1)
기타 ³⁾		1,241 (4.2)	5,006 (6.9)	1,303 (1.5)	1,285 (2.3)	1,321 (7.9)	3,909 (3.8)	1,358 (9.4)	1,452 (11.4)
합계		31,376 (-3.5)	128,416 (-1.5)	32,338 (-0.9)	32,190 (0.1)	32,907 (2.0)	97,435 (0.4)	32,377 (3.2)	33,665 (4.1)

주: 1)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2/4분기는 FY2013 1/3분기와 비교함.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1) 2014년 1월부터 개선된 차량모델등급 제도 시행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참조요율이 기존 50~150%, 21개 등급에서 50~200%, 26개 등급으로 등급 상한이 확대되었으며 외산차 분류 기준이 제작사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변경되었음. 차량 모델 등급 책정 결과 외산차 34개 모델 중 32개 모델의 참조요율이 인상되었음(보험개발원 보도자료, 2013. 11. 27).

■ 2014년 2/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84.4%를 기록함.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¹²⁾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손해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8.4%p 하락한 65.5%를 기록함.
- 종합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6.2%p 상승한 91.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인 II 담보 손해율이 상승한데다 경과보험료 감소로 자차 담보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임.

〈표 19〉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2/4
대인 I	83.0	86.9	83.9	89.9	91.7	88.5	69.8	65.5
종합보험	대인 II	87.7	90.9	94.2	102.3	79.5	91.3	113.6
	대물	86.9	89.3	90.0	91.4	95.6	92.4	85.2
	자차	78.7	73.3	76.6	81.3	88.7	82.1	86.5
	자손	98.6	85.4	77.2	91.4	79.2	82.6	77.5
	무보험	40.2	53.0	55.1	80.5	54.4	63.3	115.7
	소계	84.3	83.3	85.1	89.3	89.8	88.1	89.6
외화표시	74.5	84.7	57.5	69.3	71.5	66.1	77.9	83.3
이륜자동차 ²⁾	67.7	81.2	90.8	94.3	94.9	93.3	79.4	104.3
기타 ³⁾	80.1	79.8	70.8	85.0	88.4	81.5	72.8	70.3
합계	83.7	84.0	84.4	89.3	90.2	87.9	84.1	84.4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2) 대인 I 에서 지급하는 상해 항목인 척추 염좌가 8등급(최대 보상금 240만 원)에서 12등급(최대 보상금 8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인 I 발생손해액은 감소하고 대인 II 발생손해액은 증가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4년 2월 7일 시행).

4) 일반손해보험

■ 2014년 2/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보험, 보증보험, 그리고 화재보험 원수보험료의 마이너스 증가와 특종보험 저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한 2조 873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¹³⁾에 따른 수요확대 효과 약화와 공장 물건 감소 등으로 2.1% 줄어든 739억 원을 나타냄.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적하보험과 기타 해상보험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9.2% 줄어든 1,927억 원을 나타냄.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3.9% 감소한 3,651억 원을 기록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기술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기저효과로 상승하였으나 책임보험, 상해보험, 그리고 종합보험이 낮은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나타내어 0.3% 증가에 그친 1조 3,099억 원을 기록함.
 - 기술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인 FY2013 1/3분기 24.4%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24.8% 증가하였음.
 - 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4.6% 증가하였으며,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업성 물건 증가세 둔화로 0.5% 증가하는데 그침.

13) 2013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2013년 8월 22일까지 해당 법률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주들의 가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였음.

〈표 20〉 일반손해보험¹⁾ 종목별 원수보험료²⁾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2/4
화재	보험료	808	3,293	755	734	923	2,413	759	739
	증가율	23.2	25.0	-3.4	-3.1	-2.4	-2.9	-6.1	-2.1
	구성비	4.0	4.1	3.6	3.7	4.5	3.9	3.7	3.5
해상	보험료	1,493	8,230	2,122	2,257	1,638	6,016	1,747	1,927
	증가율	-36.1	-5.4	-9.9	1.8	-24.3	-10.7	17.0	-9.2
	구성비	7.5	10.2	10.0	11.4	7.9	9.8	8.6	9.2
보증	보험료	4,013	15,816	3,801	3,461	3,976	11,238	3,842	3,651
	증가율	-1.7	4.2	-6.9	-9.1	1.6	-4.8	-4.3	-3.9
	구성비	20.1	19.6	18.0	17.5	19.2	18.2	18.9	17.5
특종	보험료	12,249	48,557	13,064	11,673	12,435	37,172	12,566	13,099
	증가율	28.6	17.8	5.6	-1.6	3.1	2.4	2.6	0.3
	구성비	61.3	60.1	61.8	58.9	60.0	60.3	61.9	62.8
해외 원보험	보험료	1,418	4,876	1,390	1,688	1,762	4,840	1,376	1,455
	증가율	40.8	54.1	39.5	47.1	34.0	40.0	-3.0	4.7
	구성비	7.1	6.0	6.6	8.5	8.5	7.8	6.8	7.0
합계	보험료	19,981	80,773	21,132	19,813	20,733	61,679	20,289	20,873
	증가율	13.5	13.9	2.6	0.1	1.6	1.5	1.5	-1.2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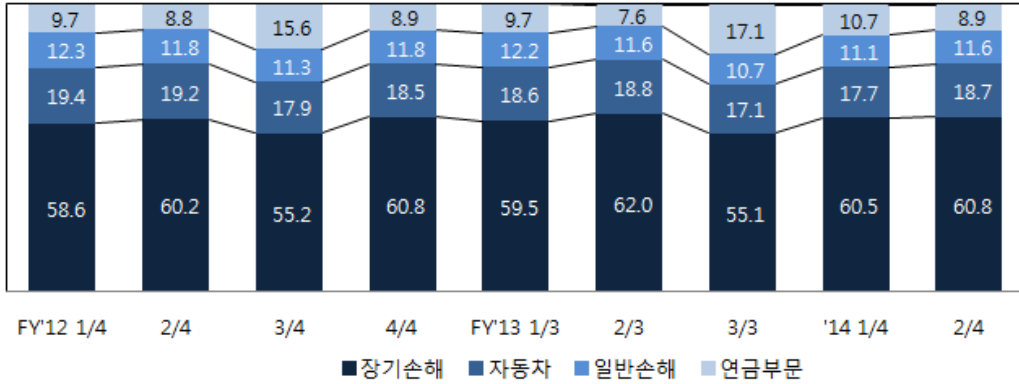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2014년 2/4분기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인 FY2013 1/3 분기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연금부문과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축소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증가세에 힘입어 1.3%p 늘어난 60.8%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대물담보 중심의 소폭 회복세로 0.1%p 확대된 18.7%를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과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비중은 원수보험료 실적 부진으로 각각 0.6%p, 0.8%p 축소된 11.6%, 8.9%를 기록함.

〈그림 5〉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단위: %)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2/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 점유율은 전년동기인 FY2013 1/3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상위 4사¹⁴⁾와 전업사 점유율은 하락하였으며, 허핀달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35 감소한 0.1424를 나타냄.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 점유율의 경우 일부 중소형사와 외국사 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각각 1.0%p, 0.1%p 확대된 26.4%, 2.2%를 기록함.
- 상위 4사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기록하여 0.9%p 하락한 69.4%를 시현하였으며, 전업사 점유율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원수보험료 증가율로 0.2%p 축소된 2.0%를 기록함.

14)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표 21〉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⁶⁾	1/4	2/4
상위 4사 ²⁾	69.4	70.0	70.3	69.9	70.2	70.1	67.4	69.4
국내 중소형사 ²⁾	26.2	25.5	25.4	25.9	25.8	25.7	28.4	26.4
전업사 ³⁾	2.3	2.3	2.2	2.0	2.1	2.1	2.1	2.0
외국사 ³⁾	2.1	2.2	2.1	2.2	2.0	2.1	2.1	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⁴⁾	2.1	2.1	2.0	2.1	1.9	2.0	2.1	2.1
허핀달 지수 ⁵⁾	0.1425	0.1448	0.1459	0.1459	0.1448	0.1453	0.1386	0.1424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하며, 외국사는 외국계 온라인사를 포함함.

4)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5) 허핀달 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이면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6)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2014년 2/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의 경우 해상보험과 보증보험 손해율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급락하면서 전년동기인 FY2013 1/3분기 대비 1.9%p 하락한 80.6%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발생손해액 증가로 0.6%p 상승한 84.4%를 기록하였으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84.4%를 나타냄.

○ 보증보험 손해율의 경우 기존에 반영한 손실에 대한 출재보험금 유입¹⁵⁾으로 발생손해액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47.6%p 하락한 7.4%를 기록함.

○ 해상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30.1%p 하락한 18.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부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적립액 감소¹⁶⁾로 발생손해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15) 보증보험의 경우 2013년 5월에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손실을 반영하였으며, 해당 사고에 대한 출재보험금을 재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함.

16)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와의 RG(Refund Guarantee)보험 관련 재보험금 소송에서 승소함.

■ 2014년 2/4분기 손해보험 사업비율의 경우 사업비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여 0.8%p 하락한 18.7%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의 경우 보유보험료 증가가 사업비 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나 0.5%p 하락한 17.9%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신규판매 부진에 따른 사업비 감소와 보유보험료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 각각 1.4%p, 1.2%p 하락한 19.8%, 21.0%를 나타냄.

■ 2014년 2/4분기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 동반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2.7%p 낮은 99.3%를 기록함.

〈표 22〉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2/4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²⁾	83.2	83.7	83.8	83.5	84.0	83.8	85.1	84.4
	자동차보험	83.7	84.0	84.4	89.3	90.3	87.9	84.0	84.4
	화재보험	56.1	59.2	56.83)	60.9	44.0	33.8	73.2	50.2
	해상보험	77.8	61.5	48.6	58.0	67.5	57.7	89.5	18.5
	보증보험	72.3	62.3	155.0	31.7	45.8	76.5	72.5	7.4
	특종보험	69.3	70.6	59.8	71.1	66.1	65.8	69.2	71.0
	해외원보험	67.6	58.4	63.8	54.1	116.9	79.1	64.6	89.4
	해외수재보험	65.6	58.9	59.8	60.0	52.8	57.6	72.9	45.1
	전체	81.6	81.7	82.5	81.8	82.5	82.3	83.3	80.6
사업비율		21.1	19.5	19.5	19.2	20.4	19.7	19.1	18.7
합산비율		102.7	101.2	102.0	101.0	103.0	102.0	102.3	99.3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2014년 2/4분기 전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보험영업적자 규모 축소와 투자영업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96.7% 증가한 8,628억 원 흑자를 나타냄.

○ 보험영업이익은 보험료 적립금과 환급금 증가로 1,39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4,140억 원 감소함.

- 보증보험의 경우 2013년 5월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었고, 이번 분기에는 이에 따른 출재보험금이 유입되어 보험영업이익이 증가함.

○ 투자영업이익은 운용자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21억 원 늘어난 1조 3,449억 원 흑자를 시현함.

■ 2014년 2/4분기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¹⁷⁾의 당기순이익(B)은 투자영업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8.1% 늘어난 5,579억 원 흑자를 기록함.

○ 보험영업 적자규모가 전년동기대비 확대되었으나, 투자영업이익이 당기손익인식 증권 이익률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한 1조 2,946억 원 흑자를 나타냄.

17)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석대상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회사임.

〈표 23〉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2/4
총수익	보험영업	16,189	63,681	16,196	16,590	16,698	49,484	16,835	16,921
	투자영업	1,588	6,438	1,868	1,603	1,805	5,276	1,780	1,979
	기타	227	1,674	328	143	949	1,419	245	361
	소계	18,004	71,793	18,392	18,336	19,451	56,179	18,860	19,261
총비용	보험영업	16,807	65,237	16,749	16,914	17,398	51,062	17,415	17,060
	투자영업	375	1,649	665	366	493	1,524	394	634
	기타	233	1,793	359	203	1,024	1,587	286	422
	소계	17,415	68,679	17,774	17,483	18,915	54,172	18,095	18,117
수지차	보험영업	-618	-1,556	-553	-324	-701	-1,578	-580	-139
	투자영업	1,213	4,789	1,203	1,237	1,312	3,752	1,386	1,345
	기타	-6	-119	-31	-61	-75	-167	-40	-61
	소계	589	3,114	618	852	536	2,007	765	1,145
법인세		142	726	180	173	163	515	194	282
당기순이익(A) ²⁾		446	2,388	439	680	374	1,492	571	863
		(21.9)	(-2.4)	(-46.3)	(-1.0)	(-14.8)	(-23.2)	(31.2)	(96.7)
당기순이익(B) ³⁾		350	1,861	516	426	270	1,212	460	558
		(-21.2)	(-6.7)	(-19.8)	(-23.1)	(-13.9)	(-19.8)	(31.5)	(8.1)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2/4분기는 FY2013 1/3분기와 비교함.

2)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부채 · 총자본〉

■ 2014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총계의 경우 총부채와 총자본 모두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한 185조 1,278억 원을 나타냄.

○ 총부채는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 증가로 15.7% 늘어난 160조 1,882억 원을 기록함.

○ 총자본의 경우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 14.1% 증가한 24조 9,396억 원을 나타냄.

〈표 24〉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1/3	2/3	3/3	1/4	2/4	
책임준비금	금액	115.6	120.9	125.9	130.4	135.8	141.1	
	증가율	21.0	18.1	16.5	16.5	17.5	16.7	
기타부채	금액	11.0	11.4	10.5	10.4	10.7	11.4	
	증가율	17.5	9.6	2.2	-7.4	-3.0	0.1	
특별계정부채	금액	6.3	6.1	6.2	7.4	7.6	7.6	
	증가율	24.8	14.1	10.9	17.5	21.5	24.6	
부채총계	금액	132.9	138.5	142.5	148.2	154.2	160.2	
	증가율	20.9	17.1	15.0	14.5	16.0	15.7	
자본금	금액	2.1	2.0	2.1	2.3	2.3	2.3	
	증가율	-5.1	-6.5	-5.7	7.4	7.5	12.8	
자본잉여금	금액	1.9	2.1	2.1	2.1	2.1	2.3	
	증가율	24.6	12.8	16.6	9.7	9.7	10.4	
이익잉여금	금액	14.4	14.7	15.3	15.6	15.8	16.7	
	증가율	14.0	14.1	12.9	11.1	9.9	13.7	
자본조정	금액	-0.6	-0.6	-0.6	-1.0	-1.0	-0.7	
	증가율	148.7	140.9	9.2	72.4	72.4	33.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5.7	3.6	3.7	3.3	3.5	4.4	
	증가율	51.4	-2.6	-27.2	-31.3	-38.0	21.6	
자본총계	금액	23.6	21.9	22.6	22.4	22.8	24.9	
	증가율	18.3	7.3	2.2	-0.1	-3.4	14.1	
부채 및 자본총계	금액	156.5	160.3	165.1	170.6	176.9	185.1	
	증가율	20.5	15.7	13.1	12.4	13.1	15.5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1/4분기는 FY2012 4/4분기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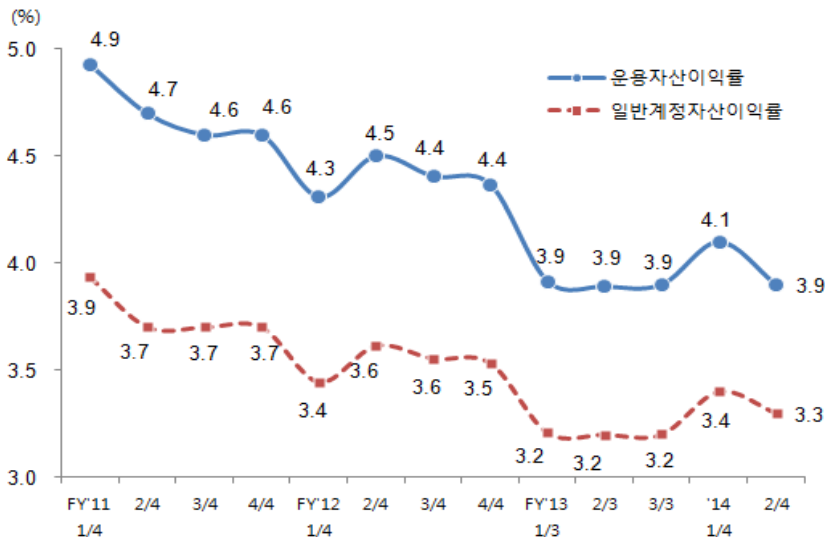
■ 2014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유가증권 이익률 상승에도 대출채권, 부동산 및 현금과 예금 이익률이 모두 하락하여 전년동기와 동일한 3.9%를 기록함.

- 유가증권 이익률은 매도가능증권 이익률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2%p 높아진 4.0%를 나타냄.
- 대출채권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4.8%를 나타냈으며 부동산 이익률도 전년동기대비 0.1%p 낮아진 1.2%를 기록함.

■ 2014년 2/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4.6%, 대출채권 20.6%, 현금과 예금 4.1%, 그리고 부동산 3.6% 순으로 나타남.¹⁸⁾

- 유가증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4%p 증가하였고 대출채권도 전년동기대비 1.1%p 확대되었으나, 현금과 예금 및 부동산 비중은 각각 0.9%p, 0.6%p 축소됨.

〈그림 6〉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8)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25〉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3						2014			
	1/3		2/3		3/3		1/4		2/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2	100.0	3.2	100.0	3.2	100.0	3.4	100.0	3.3
운용자산 계	81.9	3.9	82.4	3.9	82.9	3.9	83.1	4.1	82.9	3.9
현금과 예금	5.0	3.7	4.7	1.7	4.7	1.6	4.3	3.9	4.1	2.0
유가증권	53.2	3.8	53.8	3.9	54.0	3.9	54.3	4.1	54.6	4.0
○ 당기손익인식증권	3.3	-0.1	3.8	1.6	3.6	2.2	4.6	2.7	4.2	3.3
- 주식	0.1	-14.0	0.2	2.1	0.1	2.4	0.1	9.7	0.1	9.1
- 채권 등	1.5	-1.5	1.6	0.7	1.9	1.6	2.3	3.1	2.3	4.1
- 수익증권	1.7	2.0	2.1	2.4	1.7	2.8	2.2	1.5	1.8	1.8
○ 매도가능증권	44.3	4.0	42.5	4.2	42.2	4.2	41.2	4.3	42.0	4.1
- 주식	3.6	-1.7	3.4	0.4	3.4	-0.1	3.2	5.0	3.4	2.4
- 채권 등	36.8	4.5	35.2	4.6	34.7	4.7	33.9	4.3	34.3	4.3
- 수익증권	3.9	5.0	3.9	3.7	4.1	3.9	4.1	3.5	4.4	4.0
○ 만기보유증권	4.2	4.9	6.2	4.1	6.8	4.2	6.9	4.0	6.7	3.7
- 채권 등	4.2	4.9	6.2	4.1	6.8	4.2	6.9	4.0	6.7	3.7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4	2.4	1.4	1.7	1.4	0.9	1.7	1.6	1.7	1.8
대출채권	19.5	5.0	19.9	5.0	20.2	5.0	20.7	4.6	20.6	4.8
부동산	4.2	1.3	4.1	1.1	3.9	1.1	3.8	1.1	3.6	1.2
비운용자산	18.1	0.0	17.6	0.0	17.1	0.1	16.9	0.0	17.1	0.1
총자산	100.0	3.1	100.0	3.0	100.0	3.1	100.0	3.2	100.0	3.1
일반계정	96.2	3.2	96.3	3.2	96.0	3.2	95.5	3.4	95.7	3.3
특별계정	3.8	0.0	3.7	0.0	4.0	0.0	4.5	0.0	4.3	0.0
총자산 규모	1,603,154		1,650,960		1,705,563		1,769,154		1,851,278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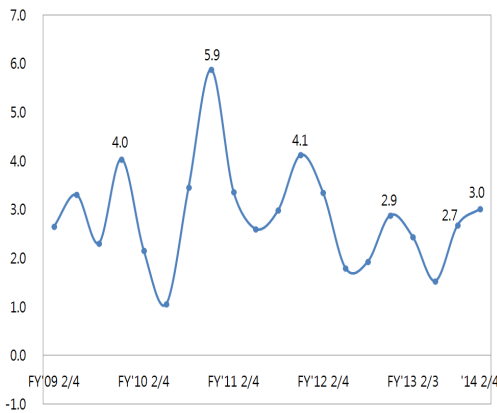
〈자본이익률¹⁹⁾〉

■ 2014년 2/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3.0%를 나타냈으며, 전분기대비로는 0.3%p 상승함.

○ 대형사²⁰⁾ 자본이익률은 전체 손해보험 평균(3.0%)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중소형사와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손해보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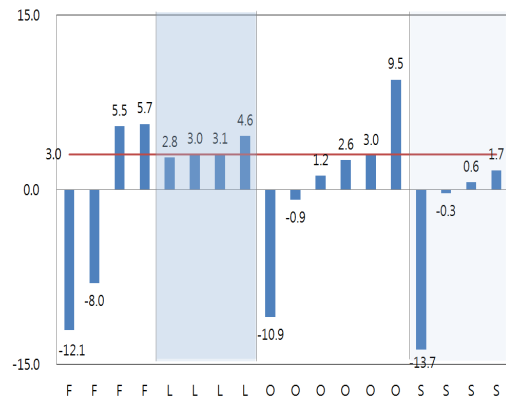
〈그림 7〉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8〉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4년 2/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외국사와 전업사는 하락함.

○ 대형사와 중소형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기중자본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각각 0.3%p, 0.1%p 상승한 3.2%, 2.3%를 기록함.

19)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FY2012 1/4분기부터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 회사임.

20)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 외국사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이 증가한데다 당기순이익도 감소하여 4.7%p 하락한 2.1%를 기록함.
-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실적 부진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로 2.6%p 하락한 0.1%를 나타냄.

〈표 26〉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추이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²⁾	1/3	2/3	3/3	연간 ^{2),3)}	1/4	2/4
대형사	2.2	12.6	2.9	3.0	1.9	8.0	3.2	3.2
중소형사	1.1	8.7	2.2	0.5	1.6	4.4	0.6	2.3
외국사	1.3	11.7	6.8	3.3	0.1	9.3	-0.7	2.1
전업사	-0.4	-6.0	2.7	-5.3	-14.2	9.3	-1.2	0.1
전체	1.9	11.6	2.9	2.4	1.5	7.0	2.6	3.0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FY2013 연간수치는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2014년 2/4분기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인 FY2013년 1/3분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대리점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축소됨.

-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주요 판매 상품인 장기손해보험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각각 1.0%p, 0.7%p 증가한 31.8%, 12.2%를 나타냄.
- 대리점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일반손해보험과 개인연금 실적 부진으로 2.0%p 줄어든 41.2%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2/4
임직원	21,754	102,941	23,802	21,083	39,003	83,888	26,843	24,779
	12.8	15.0	13.7	12.3	20.2	15.6	15.5	13.7
설계사 ²⁾	52,017	206,290	53,442	53,409	53,038	159,889	53,646	57,315
	30.7	30.1	30.8	31.2	27.5	29.7	30.9	31.8
대리점	65,241	284,249	74,948	73,923	78,012	226,884	74,990	74,286
	38.5	41.5	43.2	43.2	40.5	42.2	43.3	41.2
중개사	1,063	4,803	1,248	1,334	1,795	4,377	1,205	1,614
	0.6	0.7	0.7	0.8	0.9	0.8	0.7	0.9
방카슈랑스	29,169	86,293	20,008	21,224	20,710	61,941	16,556	21,967
	17.2	12.6	11.5	12.4	10.7	11.5	9.5	12.2
공동인수	324	846	136	183	284	602	131	256
	0.2	0.1	0.1	0.1	0.1	0.1	0.1	0.1
전체	169,568	685,422	173,584	171,156	192,842	537,582	173,369	180,2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 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2014년 2/4분기 말 수익성 악화로 인한 금융권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임직원, 설계사, 그리고 대리점 수가 모두 전분기대비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와 거의 같은 3만 3,286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의 경우 전속설계사와 교차설계사 수가 모두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3,796명 감소한 15만 7,335명을 나타냄.
 - 특히, 전속설계사 수는 FY2013 2/3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대리점 수의 경우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 수가 모두 감소하여 2,973개 줄어든 3만 3,586개를 기록함.
 - 개인대리점의 경우 대리점 대형화 추세로 인하여 FY2008 이후 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
 - 법인대리점 수는 전분기에 비하여 2,903개 줄어든 1만 954개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실제 법인대리점 수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인대리점 수를 집계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임.²¹⁾

〈표 2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2		FY2013			2014	
	3/4	4/4	1/3	2/3	3/3	1/4	2/4
임직원	32,438	32,838	32,944	33,570	33,479	33,320	33,286
설계사	170,165	168,023	168,968	166,915	164,253	161,131	157,335
- 전속	95,017	93,167	93,712	92,952	90,167	86,988	83,630
- 교차	75,148	74,856	75,256	73,963	74,086	74,143	73,705
대리점	38,957	37,643	37,500	37,268	36,952	36,559	33,586
- 개인	26,399	24,419	24,063	23,666	23,244	22,702	22,632
- 법인	12,558	13,224	13,437	13,602	13,708	13,857	10,954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1) 일부 보험회사의 법인대리점에 소속된 소규모 지점이 법인대리점 수 집계에서 제외되었음.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에서 미국 생명보험과 중국 인보험 신규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7%, 4.5% 감소하였고, 영국과 일본의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3.2%, 7% 증가함. 미국의 경우 유니버설 보험 성장 감소로 인해 생명보험 신규보험료가 감소하였으며, 중국 인보험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급감으로 인해 인보험 신규보험료가 감소함. 영국은 퇴직연금 보험료 증가, 일본은 개인보험 및 개인연금 보험료의 증가가 생명보험 성장의 주요인임. 글로벌 손해보험 시장에서 미국, 일본, 중국의 원수보험료는 모두 전년동기대비 각각 3.6%, 3.7%, 15.6% 증가함. 그러나 미국은 지급보험금 급증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음. 중국 손해보험은 자동차판매 증가가 손해보험 성장의 주요인임.¹⁾

1. 미국 동향²⁾

가. 생명보험

■ 2014년 1/4분기 미국 생명보험 시장 신규보험료는 신규 연납화 보험료³⁾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7% 감소하였음.

○ 2014년 1/4분기 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Lifetime Guarantee UL) 판매감소로 15% 감소함.

-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약 48%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3년 2/4분기 상승 후 유지되고 있는 보험가격 수준과 저금리 환경 지속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1) 미국은 2014년 1/4분기, 영국과 중국은 2014년 2/4분기, 일본은 FY2014 1/4분기 기준임.

2)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3)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의 성장률 하락에 따라 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3분기 연속 감소함.
-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5% 성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의 하락세를 상쇄시키지는 못함.
- 변액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였으며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음.
-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신규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4%, 3% 감소함.

■ 2014년 1/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은 전분기대비 유니버설보험은 감소하고,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함.

- 2014년 1/4분기 유니버설보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38%로 생명보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비중은 각각 33%, 23%, 6%임.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8	43	8	1	-8	-23	-7	40	-15	38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11	0
변액유니버설	0	8	10	9	33	36	24	6	20	6
정기	0	19	3	6	5	-1	3	22	-4	23
종신	7	30	7	5	2	3	4	32	-3	33
계	6	100	7	4	0	-8	0	100	-7	100
연납화 보험료	9,975		2,463	2,532	2,332	2,667	9,994		2,291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4, 3),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4년 1/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변액연금 신규보험료가 감소하였으나, 정액연금 신규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하였음.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34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한 반면,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2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4% 증가함.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변액연금	보험료	147.4	35.3	38.0	35.7	36.3	145.3	34.2
	증가율	-6.6	-3.8	-1.3	-3.0	3.7	-1.4	-3.1
	비중	67.1	69.2	67.6	59.9	59.1	63.3	59.3
정액연금	보험료	72.3	16.5	18.8	23.9	25.1	84.4	23.5
	증가율	-11.9	-11.7	-0.9	33.5	41.8	16.7	42.4
	비중	32.9	30.8	32.4	40.1	40.9	36.8	40.7
합계	보험료	219.7	51.8	56.8	59.6	61.4	229.6	57.7
	증가율	-8.4	-6.4	-1.2	9.0	16.5	4.5	11.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4, 3), U.S. Individual Annuities.

■ 2014년 1/4분기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의 경우 독립중개인이 2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속설계사가 20.5%, 독립설계사가 16.6%,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가 각각 16.3%, 13.5%, 7.3%의 비중을 차지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4/4	1/4	2/4	3/4	4/4	1/4
은행	12.9	14.1	14.8	17.3	16.0	16.3
전속설계사	23.7	22.4	21.0	20.7	20.5	20.5
직접판매	8.9	8.7	8.3	7.4	8.5	7.3
독립중개인	23.1	25.0	24.9	23.2	22.6	23.9
독립설계사	16.5	15.3	15.3	15.5	17.6	16.6
증권중개인	12.5	12.4	13.2	13.6	12.5	13.5
기타	2.3	2.1	2.5	2.4	2.3	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4, 3),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4년 1/4분기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의 경우 Guaranteed Renewable⁴⁾이 증가하고 Non-cancellable⁵⁾이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함.

○ Guaranteed Renewable의 신규보험료는 7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 2014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함.

- Guaranteed Renewable 신규보험료는 상위 4개 보험사와 1개 중소형 보험사의 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증가하였음.

○ Non-cancellable 소득보상보험은 Multilife⁶⁾ 보험 판매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함.

- Non-multilife 보험의 신규보험료가 1% 감소하였고, Multilife 보험 신규보험료도 전년동기대비 7% 감소함.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계 약 건 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327.9	96.3	65.3	75.3	73.6	310.6	101.8
		증가율	-5.7	-10.4	-3.3	0.4	-5.5	-5.3	5.7
		구성비	68.3	73.5	64.4	65.0	63.1	66.8	75.8
	Non- cancellable	건 수	152.8	34.7	36.3	40.3	43.0	154.3	32.5
		증가율	2.5	-1.1	3.8	0.8	0.5	1.0	-6.4
		구성비	31.8	26.5	35.8	34.8	36.9	33.2	24.2
	전체	건 수	480.2	131.0	101.4	115.8	116.7	464.9	134.3
		증가율	-3.4	-8.2	-1.0	0.7	-3.3	-3.3	2.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212.0	57.9	45.0	48.7	49.8	201.3	60.3
		증가율	-2.6	-10.3	-3.6	-1.7	-2.9	-5.0	4.1
		구성비	40.2	45.6	36.5	36.5	36.6	38.8	47.7
	Non- cancellable	보험료	314.9	69.2	78.2	84.6	86.1	318.1	66.1
		증가율	4.7	-2.7	1.1	0.9	4.2	1.0	-4.5
		구성비	59.8	54.4	63.5	63.5	63.4	61.2	52.3
	전체	보험료	526.9	127.0	123.2	133.2	135.9	519.4	126.4
		증가율	1.6	-6.3	-0.7	0.0	1.5	-1.4	-0.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4, 2),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4)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5)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6) Multilife 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부부 둘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임.

라. 손해보험

■ 2014년 1/4분기 미국 손해보험 총보험영업이익은 지급보험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약 23억 달러 감소한 22억 달러를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1,21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한 808억 달러를 기록함.

- 2014년 1/4분기 총보험영업이익은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여 전년동기대비 50.6% 감소하였음.

○ 2014년 1/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4.8%에서 약 2.5%p 증가한 97.3%였음.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M&FG: Mortgage and Financial Guaranty Insurers)의 원수보험료는 1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2% 감소하였으며, M&FG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한 1,204억 달러를 기록함.

- 2014년 1/4분기 M&FG의 합산비율은 81.5%로 전년동기 합산비율인 94.7%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M&FG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 회사의 합산비율은 97.4%로 전년동기 합산비율인 94.9%에 비해 악화되었음.

■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현자본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한 141억 달러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1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였으나 실현자본이익은 29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약 15억 달러 증가함.

- 투자영업이익률은 시장의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2013년 1/4분기 3.3%에서 2014년 1/4분기 3.1%로 하락함.

■ 손해보험산업의 2014년 1/4분기 당기순이익은 실현자본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한 138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한 8.4%에 그침.

○ M&FG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1/4분기 7억 달러를 실현하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은 16.5%로 전년동기 8.3%에 비하여 8.2%p 증가함.

○ M&FG를 제외한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131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10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도 전년동기 9.6%에서 1.4%p 감소한 8.2%를 기록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금액	456,451	117,201	120,048	126,186	114,241	477,676	121,421
	증가율	4.3	4.2	5.0	3.8	5.8	4.7	3.6
지급보험금	금액	333,383	74,376	83,590	77,598	79,471	315,035	80,789
	증가율	-3.3	-1.7	-1.4	-6.1	-12.0	-5.5	8.6
보험영업이익	금액	-13,300	5,076	-1,777	8,461	6,285	18,045	2,908
	증가율	-61.3	1250.0	-70.6	1432.8	-176.7	-235.7	-42.7
계약자 배당금	금액	2,124	555	454	264	1,263	2,536	673
	증가율	14.6	6.7	58.2	-16.5	26.2	19.4	21.3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15,424	4,521	-2,231	8,197	5,022	15,509	2,235
	증가율	-57.4	-3239.6	-64.7	3373.3	-154.6	-200.6	-50.6
투자영업이익	금액	47,931	11,413	11,786	11,139	13,014	47,352	11,180
	증가율	-2.6	-2.1	-2.9	-2.9	2.8	-1.2	-2.0
실현자본이익	금액	6,182	1,387	2,502	2,151	5,394	11,433	2,933
	증가율	-12.2	101.3	144.1	74.0	66.9	85.0	111.5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54,113	12,800	14,288	13,290	18,408	58,786	14,113
	증가율	-3.8	3.7	8.5	4.5	15.9	8.6	10.3
세전 영업이익 ²⁾	금액	34,879	15,794	10,029	19,891	18,607	64,321	13,654
	증가율	126.1	33.0	39.2	63.5	412.2	84.4	-13.5
당기순이익	금액	35,074	14,327	10,182	18,520	20,755	63,784	13,754
	증가율	80.3	40.3	45.5	74.6	186.2	81.9	-4.0
자기자본(surplus)	금액	587,061	609,805	613,988	624,366	653,348	653,348	662,013
	증가율	6.0	6.2	7.5	6.9	11.3	11.3	8.6
지급준비금	금액	576,815	576,475	577,410	573,551	573,727	573,727	574,648
	증가율	0.7	0.9	0.7	-0.3	-0.5	-0.5	-0.3%
자기자본이익률		6.1	9.6	6.7	12.3	13.0	10.3	8.4
합산비율		102.9	94.8	100.8	91.8	97.1	96.1	97.3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II(2014, 4), P/C Insurers' 2013 Profits and Profitability Reflect First Net Gains On Underwriting Since 2007.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 보험으로 구분되며, 본 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 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2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0개사	95%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⁷⁾

〈생명보험 전체〉

■ 2014년 2/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신규보험료⁸⁾ 기준으로 177억 2,864만 파운드이며, 전년동기보다 20억 6,700만 파운드 증가함.

○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큰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99.4% 증가하여 생명보험 전체 신규보험료도 13.2% 증가함.

■ 2014년 2/4분기 정기납 보험료는 18억 5,799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12.5% 감소함.

○ 정기납 보험료 중 비중이 가장 큰 퇴직연금계좌가 8.1% 증가하였으나 기타 정기납 보험종목 모두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기납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2014년 2/4분기 일시납 보험료는 158억 7,065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함.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이 30.2% 감소하였으나 비중이 가장 큰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가 99.4% 증가하면서 일시납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증가함.

7)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1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8) 신규보험료는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 합계로 계산함.

<표 6>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정기납 신규보험료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10.0	13.5	8.1	40.4	7.9	8.8
	증가율	2.2	7.6	-24.5	-10.2	-8.3	-12.4
	구성비	0.5	0.9	0.5	0.6	0.4	0.5
퇴직연금계좌	금액	1,166.6	997.1	1,204.5	4,523.4	1,425.9	1,260.5
	증가율	27.5	24.3	4.5	19.7	23.4	8.1
	구성비	55.0	66.1	71.0	64.0	71.6	67.8
Individual Pension 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Work-Based Pensions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금액	86.3	72.6	69.1	309.3	68.8	81.8
	증가율	-34.2	-29.4	-23.9	-31.3	-15.3	-5.2
	금액	54.6	40.7	40.6	179.1	40.0	50.1
	증가율	n/a	n/a	n/a	n/a	-7.3	-8.2
	금액	13.9	13.3	11.8	54.1	12.1	13.5
	증가율	n/a	n/a	n/a	n/a	-20.6	-2.4
	금액	1,080.2	924.5	963.8	4,042.5	1,357.1	1,178.7
	증가율	37.9	32.2	-8.3	21.9	26.4	9.1
	금액	905.1	800.8	996.0	3,645.4	1,185.2	1,025.7
	증가율	n/a	n/a	n/a	n/a	25.6	13.3
	금액	175.1	123.7	131.2	560.6	171.9	153.0
	증가율	n/a	n/a	n/a	n/a	31.7	-12.6
퇴직연금	금액	670.1	243.4	170.8	1,420.2	289.5	328.1
	증가율	297.6	85.1	11.2	131.4	-13.8	-51.0
	구성비	31.6	16.1	11.7	20.7	14.5	17.7
보장성보험	금액	277.5	257.1	250.9	1,032.2	270.5	260.6
	증가율	0.3	-2.4	-10.0	-5.4	9.6	-6.1
	구성비	13.1	17.0	17.2	15.1	13.6	14.0
소계(A)	금액	2,124.2	1,511.0	1,462.7	6,844.6	1,993.9	1,858.0
	증가율	55.1	24.9	-8.3	23.8	14.2	-12.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2,002.4	2,082.2	2,203.9	8,563.9	1,960.5	1,923.7	
	증가율	-36.6	-33.2	-35.6	-33.3	-13.8	-3.9	
	구성비	14.8	12.0	15.6	14.2	12.4	12.1	
영외영업	금액	1,045.1	1,040.0	1,033.5	4,137.0	880.5	850.0	
	증가율	-5.2	-12.0	-20.5	-12.5	-13.5	-18.7	
변액연동채권	금액	550.6	564.1	608.7	2,463.3	549.4	506.9	
	증가율	n/a	n/a	n/a	n/a	-25.8	-8.0	
유배당채권	금액	396.9	469.3	551.4	1,896.8	524.1	556.5	
	증가율	n/a	n/a	n/a	n/a	9.6	40.2	
퇴직연금계좌	금액	3,937.6	3,225.4	3,227.8	14,147.7	3,320.7	3,420.5	
	증가율	-17.2	-7.9	-15.1	-13.5	-11.6	-13.1	
	구성비	29.1	18.6	22.8	23.4	21.0	21.6	
Individual Pension 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금액	1,806.0	1,534.6	1,566.6	6,664.7	1,916.6	1,969.9	
	증가율	-43.5	-30.1	-19.3	-34.3	9.0	9.1	
	금액	1,214.7	1,031.0	1,011.8	4,334.1	1,106.9	1,149.1	
	증가율	n/a	n/a	n/a	n/a	2.8	-5.4	
	금액	110.2	58.4	63.1	366.0	104.6	112.1	
	증가율	n/a	n/a	n/a	n/a	-22.1	1.7	
	금액	465.5	428.6	507.9	1,919.3	683.8	693.4	
	증가율	n/a	n/a	n/a	n/a	32.2	48.9	
	Work-Based Pensions	금액	2,131.6	1,690.9	1,170.6	6,992.5	1,404.2	1,50.7
		증가율	36.5	29.3	-37.2	12.5	-29.8	-31.9
	Group Personal Pension	금액	2,057.9	1,632.0	1,456.6	7,034.2	1,313.3	1,368.0
		증가율	n/a	n/a	n/a	n/a	-30.4	-33.5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금액	73.6	58.9	61.1	305.2	90.9	82.7	
	증가율	n/a	n/a	n/a	n/a	-18.5	12.2	
퇴직연금	금액	4,029.9	8,608.5	4,067.8	22,364.7	7,556.3	8,035.9	
	증가율	13.5	128.6	-28.1	28.9	33.5	99.4	
	구성비	29.8	49.7	39.0	39.5	47.7	50.6	
Bulk Buyouts	금액	1144.2	5362.4	1912.3	9428.8	4315.9	2,890.5	
	증가율	n/a	n/a	n/a	n/a	327.4	152.6	
보장성보험	금액	44.1	54.8	49.8	197.5	44.1	29.6	
	증가율	-12.7	8.7	-0.1	-3.2	-9.7	-32.9	
	구성비	0.3	0.3	0.4	0.3	0.3	0.2	
퇴직소득보험	금액	3,523.4	3,379.2	3,027.5	13,537.6	2,964.8	2,460.9	
	증가율	-5.9	-14.6	-26.8	-11.2	-17.8	-30.2	
	구성비	26.0	19.5	25.0	23.2	18.7	15.5	
소계(B)	금액	13,537.4	17,350.1	12,086.4	58,321.0	15,846.5	15,870.7	
	증가율	-11.3	20.5	-29.2	-5.9	3.3	17.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계(A+B)	금액	15,661.6	18,861.2	13,549.1	65,165.6	17,840.4	17,728.6	
	증가율	-5.8	20.9	-27.4	-3.5	4.4	13.2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n/a는 통계집계방식 변경에 의해 자료가 없는 경우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투자 및 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4년 2/4분기 투자 및 저축 신규보험료는 일시납 및 정기납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투자 및 저축보험료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함.
 - 일시납 투자 및 저축 보험은 규모가 가장 큰 일시납 유배당채권(With Profit Bonds) 보험료가 40.2% 증가하였으나 일시납 역외영업 신규보험료가 18.7% 감소하면서 전체 일시납 투자 및 저축 보험료는 3.9% 감소함.
 - 정기납 투자 및 저축 보험료는 879만 파운드에 그쳤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12.4%가 감소한 것임.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4년 2/4분기 정기납 퇴직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s)⁹⁾ 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가 부진하였으나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함.
 - 정기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비중이 큰 Personal Pension과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판매가 전년대비 각각 8.2%, 2.4%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5.2% 감소함.
 -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비중이 가장 큰 Group Personal Pension의 판매가 13.3%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9.1% 증가함.
- 2014년 2/4분기 일시납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계좌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단체개인연금계좌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3.1% 감소한 34억 2,054만 파운드로 집계됨.
 - 일시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Personal Pension이 5.4% 감소하였으나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7%, 48.9%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9.1% 증가함.

9) 퇴직연금계좌는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등)와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s, Group SIPP 등)로 구분됨.

- 일시납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1.9% 감소하였는데, 이는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이 12.2% 증가하였으나 규모가 가장 큰 Group Personal Pension이 33.5% 감소하였기 때문임.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4년 2/4분기 정기납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¹⁰⁾ 보험료는 규모가 가장 큰 DC형 퇴직연금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51.0% 감소한 3억 2,806만 파운드였음.

- 정기납 퇴직연금에서 가장 비중이 큰 DC형 퇴직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5.6% 증가한 1억 9,011만 파운드였음.
- 맞춤형퇴직연금(TIPs)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7.8% 감소한 1억 1,288만 파운드로 집계됨.

■ 한편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맞춤형퇴직연금과 Bulk Buyouts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99.4% 증가한 80억 3,592만 파운드였음.

- 맞춤형퇴직연금과 Bulk Buyouts¹¹⁾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87.5%, 152.6%의 큰 증가율을 시현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정기납 보장성보험료¹²⁾는 비중이 큰 대출관련 정기보험이 증가하였으나 종신보험, 단체 보장성 등 기타 보험종목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6.1% 감소한 2억 6,060만 파운드임.

10) 퇴직연금은 Defined Benefits, Defined Contributions, Group AVCS, TIPs(Trustee Investment Plans), Buyouts 등으로 구분.

11) DB형 퇴직연금 관리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임.

12) 정기납 보장성보험(Protection Products)은 개인보험인 정기생명보험(Term Life), 종신보험(Whole Life), CI(Critical Illness),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과 단체보험인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단체CI(Group Critical Illness), 단체소득보장(Group Income Protection)보험으로 구분.

- 대출관련 정기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하였으나 기타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단체보장성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8.3%, 11.2%, 13.0% 감소함.

■ 일시납 보장성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2.9% 감소한 2,957만 파운드임.

〈퇴직소득보험 신규보험료〉

■ 2014년 2/4분기 일시납 퇴직소득보험¹³⁾ 신규보험료는 종신연금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30.2% 감소한 24억 6,087만 파운드임.

- 종신연금(Pension Annuities) 신규보험료는 비중이 큰 외부연금(Pure External Annuities)과 내부연금(Internal Annuities) 보험료가 각각 54.9%, 33.5%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42.2% 감소함.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4년 2/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독립 자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이나 전분기대비 無자문 비중이 소폭 증가함.

- 정기납 전체에 대한 독립 자문 채널비중은 전분기보다 3.0%p 낮아진 74.3%이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계좌가 85.1%로 가장 크고, 보장성보험이 77.3%로 그 뒤를 이었고 투자 및 저축보험이 1.0%로 가장 작았음.
- 無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기대비 2.1%p 증가한 15.7%이며,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 93.2%, 퇴직연금 55.1%이었으며, 퇴직연금계좌가 6.4%로 가장 작았음.
- 제한적 자문 채널 비중은 정기납 신규보험료 판매 중 9.8%를 차지했으며, 종목별로는 보장성 보험이 16.9%로 가장 크고 투자 및 저축보험이 5.8%로 가장 작았음.

13)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종신연금(Pension Annuities),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나뉨.

■ 2014년 2/4분기 일시납 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크기는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분기대비 無자문 비중이 증가함.

- 일시납 전체 판매 중 독립 자문 비중은 전분기대비 21.1%p 줄어든 48.5%이었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계좌 77.8%, 보장성보험 77.4%의 비중이 크고, 퇴직연금 비중이 28.6%로 가장 작았음.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38.1%로 전분기대비 17.2%p 증가하였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 비중이 57.7%, 퇴직소득보험이 42.7%, 보장성보험은 가장 작은 0.6%의 비중을 차지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채널의 판매비중은 11.8%로 가장 작고,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의 경우 23.2%로 비교적 크나 퇴직연금계좌의 경우에는 4.9%로 가장 작았음.

〈표 7〉 2014년 2/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1.0	74.2	5.8	23.2	93.2	2.6
퇴직연금계좌	85.1	77.8	8.6	4.9	6.4	9.6
퇴직연금	36.1	28.6	8.8	13.7	55.1	57.7
보장성보험	77.3	77.4	16.9	22.0	11.8	0.6
퇴직소득보험	-	48.1	-	9.2	-	42.7
전체 ³⁾	74.3	48.5	9.8	11.8	15.7	38.1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설계사 포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4) 비중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는 채널 파악이 안 된 경우로 보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4년 2/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의 정기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큰 감소세가 이어짐.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2.9% 감소한 3,157만 파운드였는데 이는 가장 비중이 큰 보장성보험이 21.8% 감소한 데에 기인함.

-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 중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6.0% 감소한 2억 827만 파운드였으며, 이 중 비중이 큰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의 경우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00.0% 감소하였음.

〈표 8〉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3				2014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0.2	0.2	0.1	0.6	0.3(217.6)	0.0(-100.0)	115.7	125.3	128.4	661.7	115.1(-60.6)	0.0(-100.0)
퇴직연금계좌	10.9	20.9	9.8	51.3	11.9(23.6)	7.9(-28.2)	31.5	28.7	31.8	135.2	28.2(-34.5)	32.2(2.0)
퇴직연금	0.0	0.0	0.0	0.0	0.0	0.0	38.8	52.3	52.7	200.8	54.9(-3.9)	40.5(4.3)
역외영업	0.1	0.0	0.0	0.2	0.0(15.4)	0.0(1.8)	90.4	85.5	121.1	383.3	94.3(9.3)	109.0(20.6)
보장성보험	28.7	28.5	26.9	116.2	26.2(-19.0)	23.0(-21.8)	2.2	3.4	3.9	12.4	4.4(10.7)	5.9(35.8)
퇴직소득보험 ¹⁾	-	-	-	-	-	-	44.6	49.6	44.3	202.8	32.2(-49.9)	20.7(-53.5)
전체	39.9	49.6	36.8	168.3	38.4(-8.8)	31.6(-22.9)	323.2	344.8	382.2	1596.2	329.1(-39.7)	208.3(-36.0)

주: 1) 별도 취합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판매를 합침.

2) 괄호안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통계집계변경으로 인해 2014년 1/4분기부터 표시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역외영업의 경우 투자·저축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¹⁴⁾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4 1/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단체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 및 개인연금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한 19조 7,095억 엔이었음.

○ 1/4분기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생사혼합보험은 감소하였지만,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함.

- 사망보험의 경우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신규계약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8.0%, 5.2% 증가하면서 사망보험 신규계약액도 증가함.

- 반면,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과 기타 생사혼합보험의 신규계약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4.6%, 31.0% 감소함.

○ 1/4분기 개인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일본 주식시장 회복 및 정액연금과 변액보험 신규계약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4.0% 증가함.

- 1/4분기 정액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5.3%, 27.2% 증가함.

○ 한편, 1/4분기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은 단체신용생명보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¹⁵⁾ 포함)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한 1조 376억 엔을 기록함.

- 1/4분기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4배 이상 증가한 반면, 단체정기보험은 56.4% 감소함.

14)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5)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시 또는 고도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9〉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

구분 ¹⁾		FY2013					FY2014
		1/4	2/4	3/4	4/4	연간	1/4
개 인	금액	157,838	174,145	178,390	166,772	677,145	165,379
	증가율	-5.9	-2.3	-2.3	-18.1	-7.5	4.8
	구성비	85.7	88.8	85.9	78.0	84.5	83.9
사 망	금액	130,239	144,201	145,083	141,933	561,456	139,541
	증가율	-5.5	-3.6	-5.5	-17.9	-8.5	7.1
	구성비	70.7	73.5	69.9	66.4	70.0	70.8
정기보험	금액	66,488	74,168	76,150	74,110	290,916	71,808
	증가율	-3.0	-4.9	-4.7	-15.7	-7.4	8.0
종신보험	금액	32,248	39,938	36,450	36,616	145,252	33,940
	증가율	-16.9	-4.8	-13.7	-29.4	-17.0	5.2
생사혼합	금액	26,199	28,504	31,678	22,835	109,217	20,790
	증가율	-9.0	3.5	13.8	-21.2	-3.4	-20.6
	구성비	14.2	14.5	15.3	10.7	13.6%	10.5
양로보험 ²⁾	금액	13,696	14,762	13,287	12,724	54,467	11,691
	기타	-8.4	3.3	-3.6	-11.2	-5.0	-14.6
기 타	금 액	11,690	12,858	17,429	9,137	51,114	8,063
	증가율	-11.4	2.0	31.0	-33.8	-3.4	-31.0
생 존	금액	1,400	1,440	1,629	2,004	6,473	5,048
	증가율	26.5	36.5	40.6	18.4	29.1	260.6
	구성비	0.8	0.7	0.8	0.9	0.8	2.6
개인연금	금액	15,929	17,876	19,185	26,744	79,734	21,340
	증가율	-13.8	0.5	-4.7	-8.1	-6.8	34.0
	구성비	8.6	9.1	9.2	12.5	9.9	10.8
정액연금	금액	13,311	15,971	17,038	24,222	70,542	18,011
	증가율	-23.9	-3.1	-10.6	-11.0	-12.1	35.3
변액연금	금액	2,618	1,905	2,147	2,522	9,192	3,329
	증가율	165.5	44.9	100.7	32.9	74.5	27.2
단체보험	금액	10,424	4,056	10,007	20,306	44,794	10,376
	증가율	-14.3	47.8	148.4	76.8	47.3	-0.5
	구성비	5.7	2.1	4.8	9.5	5.6	5.3
단체정기 ³⁾	금액	9,999	3,438	7,356	14,348	35,141	4,358
	증가율	78.3	31.2	89.3	27.9	50.6	-56.4
단체신용생명	금액	426	618	2,651	5,958	9,653	6,018
	증가율	-93.5	394.4	1,766.9	2,139.8	36.3	1,312.7
합 계	금액	184,192	196,077	207,582	213,822	801,673	197,095
	증가율	-7.1	-1.4	0.4	-12.4	-5.5	7.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4 1/4분기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규모는 현금 및 예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입금전채권, 금전신탁, 유가증권 등의 증가로 인해 전분기대비 0.4% 증가한 352조 165억 엔을 기록함.

〈표 10〉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3								FY2014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33,974	-5.0	40,397	18.9	36,270	-10.2	44,168	21.8	41,816	-5.3
단기자금	16,023	-42.1	21,649	35.1	18,650	-13.9	26,697	43.1	26,923	0.8
매입금전채권	27,000	-10.8	27,230	0.9	26,523	-2.6	25,859	-2.5	26,559	2.7
금전신탁	20,555	-0.2	21,695	5.5	23,136	6.6	24,592	6.3	28,909	17.6
유가증권	2,798,208	0.6	2,820,451	0.8	2,875,769	2.0	2,850,318	-0.9	2,864,775	0.5
- 국채	1,491,967	0.3	1,495,198	0.2	1,499,348	0.3	1,498,157	-0.1	1,489,079	-0.6
- 지방채	138,488	-0.6	141,180	1.9	143,220	1.4	140,089	-2.2	140,116	0.0
- 회사채	250,035	-0.6	253,411	1.4	252,754	-0.3	248,959	-1.5	246,686	-0.9
- 주식	171,533	2.6	182,812	6.6	190,312	4.1	180,299	-5.3	182,800	1.4
- 외화증권	568,081	1.5	571,913	0.7	613,478	7.3	614,509	0.2	638,222	3.9
대출금	393,975	-2.1	388,130	-1.5	386,344	-0.5	380,992	-1.4	378,104	-0.8
부동산	63,196	-0.9	62,598	-0.9	63,041	0.7	62,372	-1.1	62,560	0.3
운용자산 ³⁾	3,376,430	-0.4	3,408,962	1.0	3,456,510	1.4	3,448,009	-0.2	3,457,515	0.3
비운용자산	63,984	8.3	60,745	-5.1	59,802	-1.6	57,817	-3.3	62,650	8.4
총자산 ⁴⁾	3,440,414	-0.3	3,469,707	0.9	3,516,312	1.3	3,505,826	-0.3	3,520,165	0.4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1/4분기 유가증권은 전분기대비 0.5% 증가한 286조 4,775억 엔을 기록함.
 - 1/4분기 주식 및 외화증권의 규모는 증가한 반면, 국채와 회사채는 전분기대비 각각 0.6%, 0.9% 감소함.
-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금전신탁 등의 자산 규모는 각각 전분기보다 0.8%, 2.7%, 17.6% 증가함.
- 한편, 1/4분기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5.3% 감소하였으며, 대출금도 일반대출금과 보험약관대출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0.8% 감소함.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4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운송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원수보험료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한 2조 2,517억 엔으로 집계됨.
 - 1/4분기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재해 관련 보험에 대한 수요증가로 일반보험과 지진보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함.
 - 1/4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며 569억 엔으로 집계됨.
 -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한 9,740억 엔으로 집계되었고 자동차배상책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2,582억 엔으로 집계됨.
 - 1/4분기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수요 회복세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2,824억 엔이었음.
 - 보험 종목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인 6.2% 증가한 3,004억 엔으로 집계됨.
 - 특종보험 중 비중이 큰 배상책임보험(51.8%)과 비용·이익보험¹⁶⁾(18.2%) 등이 각각 3.9%,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¹⁷⁾

16) 보험사고로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영업이익에 관한 보험임. 대표적으로 기업의 건물 파손 등의 직접 손해는 보장하지 않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이 있음.

〈표 11〉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2),3)}		FY2013					FY2014
		1/4	2/4	3/4	4/4	연간	1/4
화재	보험료	3,432	3,497	3,854	3,740	14,523	3,624
	증가율	0.2	4.3	1.6	5.0	2.8	5.6
	구성비	15.8	16.7	17.8	17.5	16.9	16.1
해상	보험료	562	528	531	545	2,167	569
	증가율	9.8	11.9	11.8	4.8	9.5	1.2
	구성비	2.6	2.5	2.5	2.6	2.5	2.5
운송	보험료	172	152	157	163	644	172
	증가율	0.6	1.3	1.3	4.5	1.9	0.0
	구성비	0.8	0.7	0.7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9,407	9,037	9,652	9,409	37,505	9,740
	증가율	3.1	2.9	6.8	4.7	4.4	3.5
	구성비	43.3	43.1	44.6	44.0	43.8	43.3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540	2,586	2,520	2,583	10,229	2,582
	증가율	5.4	15.9	13.8	5.3	9.9	1.7
	구성비	11.7	12.3	11.6	12.1	11.9	11.5
상해	보험료	2,772	2,600	2,437	2,324	10,134	2,824
	증가율	-3.8	-1.1	-2.4	1.6	-1.6	1.9
	구성비	12.8	12.4	11.2	10.9	11.8	12.5
특종	보험료	2,828	2,549	2,512	2,597	10,486	3,004
	증가율	6.7	8.0	10.7	9.8	8.7	6.2
	구성비	13.0	12.2	11.6	12.2	12.2	13.3
합계	보험료	21,714	20,948	21,664	21,362	85,688	22,517
	증가율	2.6	4.9	6.0	5.1	4.6	3.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4 1/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현금 및 예금, 금전신탁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 환매조건부채권, 매입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의 자산 규모 증가로 전분기대비 0.3% 증가한 29조 190억 엔으로 집계됨.

○ 1/4분기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21.8% 감소한 6,734억 엔이었고 금전신탁도 전분기대비 17.5% 감소한 985억 엔으로 집계됨.

○ 반면, 단기자금, 환매조건부채권, 매입금전채권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27.0%, 21.6%, 16.9% 증가함.

○ 유가증권의 경우 1/4분기 지방채, 회사채 등은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지만, 국채, 주식, 외화증권 등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0.9% 증가함.

-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1/4분기 국채는 전분기대비 2.4% 증가하며 증가세를 지속함.

- 주식의 경우 미국 증시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2.1% 성장하면서 2013년 4/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1/4분기 대출금은 일반대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0.8% 감소하였으며, 부동산도 전분기대비 0.7% 감소함.

〈표 12〉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3								FY2014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7,102	-23.5	8,448	19.0	7,272	-13.9	8,612	18.4	6,734	-21.8
단기자금		3,369	-21.2	3,913	16.1	4,012	2.5	4,044	0.8	5,135	27.0
환매조건부채권		4,188	-2.4	3,228	-22.9	3,703	14.7	2,710	-26.8	3,294	21.6
매입금전채권		3,023	6.8	2,547	-15.8	2,443	-4.1	1,383	-43.4	1,617	16.9
금전신탁		1,199	31.2	1,131	-5.7	1,192	5.4	1,193	0.1	985	-17.5
유가증권	국채	63,408	2.3	64,526	1.8	64,563	0.1	66,010	2.2	67,608	2.4
	지방채	3,516	0.7	3,554	1.1	3,575	0.6	3,461	-3.2	3,368	-2.7
	회사채	26,348	-1.3	26,568	0.8	26,048	-2.0	26,193	0.6	24,688	-5.7
	주식	67,114	5.7	70,172	4.6	73,634	4.9	67,307	-8.6	68,727	2.1
	외화증권	49,157	3.4	50,333	2.4	53,167	5.6	52,922	-0.5	53,696	1.5
	기타증권	2,402	-11.9	2,460	2.4	2,394	-2.7	2,470	3.2	2,329	-5.7
	소계	211,946	2.9	217,612	2.7	223,381	2.7	218,363	-2.2	220,416	0.9
대출금		17,123	-2.7	16,957	-1.0	16,680	-1.6	16,252	-2.6	16,121	-0.8
부동산		10,291	-1.3	10,429	1.3	10,321	-1.0	10,225	-0.9	10,150	-0.7
운용자산		258,242	1.1	264,265	2.3	269,005	1.8	262,784	-2.3	264,453	0.6
비운용자산 ²⁾		28,024	-3.6	26,278	-6.2	26,076	-0.8	26,514	1.7	25,736	-2.9
총자산		286,267	0.6	290,544	1.5	295,082	1.6	289,298	-2.0	290,190	0.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대비 증가율로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険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 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険会社資金運用状況一覧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険)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険)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険),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険), 재형보험(財形保険),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険),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険),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険)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険)	특종보험

4. 중국 동향¹⁸⁾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지상황〉

■ 2014년 2/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4,48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함.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추이가 감소세로 반전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

■ 2014년 2/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한 1,672억 위안, 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한 656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표 13〉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5,151	4,362	3,920	3,790	17,222	7,000	4,489
	증가율 ³⁾	6.5	18.0	10.6	11.1	11.2	35.9	2.9
인보험	금액	3,638	2,748	2,426	2,199	11,010	5,243	2,623
	증가율 ³⁾	2.9	19.5	7.8	6.1	8.4	44.1	-4.5
손해보험	금액	1,513	1,614	1,495	1,591	6,212	1,757	1,866
	증가율 ³⁾	16.3	15.4	15.7	18.8	16.5	16.1	15.6
지급보험금	금액	1,488	1,475	1,546	1,704	6,213	1,859	1,672
	증가율 ³⁾	27.0	35.2	36.8	28.7	31.7	24.9	13.4
인보험	금액	758	710	688	617	2,774	1,025	793
	증가율 ³⁾	26.5	59.9	72.1	35.0	46.0	35.2	11.7
손해보험	금액	730	765	858	1,087	3,439	834	879
	증가율 ³⁾	27.5	18.2	17.5	25.5	22.1	14.2	14.9
사업비	금액	546	585	596	772	2,500	613	656
	증가율 ³⁾	16.9	15.8	11.3	16.3	15.1	12.3	12.1

주: 1) 기간별 실적치 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8)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자산운용〉

- 2014년 2/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13.1% 증가한 9조 3,737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11.8% 증가한 8조 5,907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30.2% 증가한 7,831억 위안으로 나타남.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줄어든 반면, 투자금의 비중은 늘어났는데, 이는 중국 보험회사들이 대체자산¹⁹⁾을 확대하였기 때문임.
 - 예치금은 2조 5,618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3.1% 증가하였으나 총자산대비 예치금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0.7%p 하락한 27.3%였음.
 - 투자금은 6조 288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63.9%에서 64.3%로 늘어남.
 - 중국 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였음.

19)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에 따르면 대체자산은 사모주식,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 등을 포함함.

〈표 14〉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운용자산계	금액	70,868	72,829	74,159	76,873	76,873	82,228	85,907
	증가율 ³⁾	3.4	2.8	1.8	3.7	12.2	7.0	11.8
	구성비	92.4	92.4	92.1	92.7	92.7	91.9	91.6
예치금	금액	23,992	23,405	22,879	22,641	22,641	25,031	25,618
	증가율 ³⁾	2.3	-2.4	-2.2	-1.0	-3.4	10.6	13.1
	구성비	31.3	29.7	28.4	27.3	27.3	28.0	27.3
투자금	금액	46,875	49,424	51,280	54,232	54,232	57,197	60,288
	증가율 ³⁾	3.9	5.4	3.8	5.8	20.3	5.5	11.2
	구성비	61.1	62.7	63.7	65.4	65.4	63.9	64.3
비운용자산계 ⁴⁾	금액	5,819	6,010	6,371	6,014	6,014	7,231	7,831
	증가율 ³⁾	16.3	3.3	6.0	-5.6	20.2	20.2	30.2
	구성비	7.6	7.6	7.9	7.3	7.3	8.1	8.4
총자산	금액	76,686	78,840	80,530	82,887	82,887	89,459	93,737
	증가율 ³⁾	4.3	2.8	2.1	2.9	12.7	7.9	13.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분기대비.

4) 비운용자산에는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이 해당됨.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 2014년 2/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623억 위안²⁰⁾으로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세로 반전하였으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2/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역기저효과 및 2014년 2/4분기 방카슈랑스의 판매 실적 급감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한 2,080억 위안을 기록함.

- 방카슈랑스 관련 개혁 조치²¹⁾가 방카슈랑스 판매 실적 급감의 원인으로 분석됨.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7.3% 증가한 401억 위안,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5% 증가한 142억 위안이었음.

■ 2014년 2/4분기 변액보험의 평균수익률은 플러스로 나타났으나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음.

○ 귀진증권(Sinolink Securitie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7개 변액보험 투자계정의 평균수익률은 1.4%로 조사됨.

○ ICBC-AXA Life 및 Metlife가 운영하는 변액연금보험²²⁾의 수익률은 각각 -0.5%와 -0.1%였음.

20) 인보험 수입보험료에는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연금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인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포함됨.

21) CIRC는 2014년 1월 은행직원이 보험상품을 은행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으며,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되는 전통형 보험상품(건강보험, 상해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보험기간 10년 이상의 연금보험, 보험기간 10년 이상의 생사보험, 손해보험, 신용보험) 비중(수입보험료 기준)의 하한선을 20%로 하는 규제를 신설함.

22) 변액연금보험은 중국에서 2011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현재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ICBC-AXA Life 및 Metlife 2개사가 있음.

〈표 15〉 인보험 수입보험료^{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료	3,638	2,748	2,426	2,199	11,010	5,243	2,623
	증가율 ⁴⁾	2.9	19.5	7.8	6.1	8.4	44.1	-4.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명보험	보험료	3,224	2,332	2,033	1,836	9,425	4,607	2,080
	증가율 ⁴⁾	0.7	18.9	4.5	2.0	5.8	42.9	-10.8
	구성비	88.6	84.9	83.8	83.5	85.6	87.9	79.3
건강보험	보험료	295	292	271	266	1,123	492	401
	증가율 ⁴⁾	28.9	23.2	32.9	37.8	30.2	66.8	37.3
	구성비	8.1	10.6	11.2	12.1	10.2	9.4	15.3
상해보험	보험료	119	124	122	97	461	144	142
	증가율 ⁴⁾	16.0	25.3	18.2	18.2	19.5	21.0	14.5
	구성비	3.3	4.5	5.0	4.4	4.2	2.7	5.4

주: 1) 기간별 실적치기준.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4년 2/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79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함.

○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증가하였음.

○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2.6%p 하락한 7.6%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2/4분기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급증²³⁾에 따른 역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4.8%, 25.0% 증가함.

23) 2013년 2/4분기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의 급증은 급부금 만기 도래 및 해약환급금 급증에 기인함.

〈표 16〉 인보험 지급보험금^{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보험금	758	710	688	617	2,774	1,025	793
	증가율 ⁴⁾	26.5	59.9	72.1	35.0	46.0	35.2	11.7
생명보험	보험금	644	594	558	457	2,253	863	639
	증가율 ⁴⁾	27.8	68.3	88.0	30.2	49.7	34.0	7.6
건강보험	보험금	89	92	101	129	411	133	124
	증가율 ⁴⁾	22.0	33.3	31.6	62.7	38.0	49.4	34.8
상해보험	보험금	25	24	29	32	110	29	30
	증가율 ⁴⁾	11.4	14.3	10.0	16.9	12.9	16.0	25.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2/4분기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은 하락한 데 반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2.8%로 전분기에 비해 3.5%p 하락하였으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3.7%에서 7.2%로 상승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AIA China, Metlife로 나타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²⁴⁾의 시장점유율은 58.9%로 전분기에 비해 6.9%p 하락함.

〈표 17〉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70.1	68.9	70.5	68.4	69.5	65.8	58.9
		중소형사 ³⁾	25.7	25.3	23.7	24.4	24.9	30.5	33.9
		소계	95.8	94.2	94.1	92.8	94.4	96.3	92.8
	외국계		4.2	5.8	5.9	7.2	5.6	3.7	7.2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4)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중국런쇼우생명, 중국평안생명, 중국타이핑양생명, 신화생명, 중국런민생명으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5.6%, 13.8%, 8.6%, 7.2%, 3.6%임(2014년 2/4분기 기준).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 2014년 2/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86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함.
- 자동차 판매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중국자동차협회(CAAM: China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에 따르면 2014년 2/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592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함.

〈표 18〉 손해보험 수입보험료^{1),4)}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료 ²⁾	1,513	1,614	1,495	1,591	6,212	1,757	1,866
	증가율 ³⁾	16.3	15.4	15.7	18.8	16.5	16.1	15.6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3) 전년동기대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4년 2/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87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함.
- 인건비 및 자동차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의 증가세가 지속됨.

〈표 19〉 손해보험 지급보험금^{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금 ³⁾	730	765	858	1,087	3,439	834	879
	증가율 ⁴⁾	27.5	18.2	17.5	25.5	22.1	14.2	14.9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2/4분기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은 하락한 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1.6%p 하락한 97.3%로 나타났으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1.1%에서 2.7%로 상승함.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IG, Samsung Insurance, Liberty Mutual로 조사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²⁵⁾의 시장점유율은 64.8%로 전분기에 비해 0.7%p 감소함.

〈표 20〉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5.1	64.2	65.3	64.6	64.8	65.5	64.8
		중소형사 ³⁾	33.8	34.5	33.4	34.0	33.9	33.3	32.5
		소계	98.9	98.7	98.7	98.6	98.7	98.9	97.3
	외국계		1.1	1.3	1.3	1.4	1.3	1.1	2.7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5)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중국런민재산, 중국평안재산, 중국타이평양재산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4.9%, 17.3%, 12.6%임(2014년 2/4분기 기준).

라. 연금보험²⁶⁾

■ 2014년 2/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14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는 2,804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2.4% 증가함.

○ 중국 중소기업의 기업연금 신규가입 증가세 부진이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 감소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1〉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수탁보험료 ²⁾	금액	662	167	146	132	143	589	166	141
	증가율 ²⁾	61.5	-19.2	-12.6	4.3	-10.7	-11.1	-0.6	-3.4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2,009	2,180	2,312	2,384	2,495	2,495	2,648	2,804
	증가율 ³⁾	45.8	8.5	6.1	3.1	4.7	24.2	6.1	12.4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전분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6)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연금보험회사를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중국 내에 설립된 연금보험회사는 타이핑, 평안, 린쇼우, 장장, 타이강 등 5개 회사임.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 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 록 I. 통계표

〈부록 표 I-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성장률		2.1	2.1	2.1	2.7	3.4	3.7	3.9	3.5
경상수지		16,887	23,089	10,458	20,805	23,782	24,839	15,071	24,125
수출		133,125	139,768	135,318	141,156	136,791	146,367	137,562	145,703
수입		125,652	129,831	129,732	126,758	126,034	133,062	132,346	130,795
실업률		3.0	2.8	3.6	3.1	3.0	2.8	4.0	3.7
금리	국고채(3년)	2.88	2.81	2.68	2.67	2.92	2.90	2.87	2.82
	회사채(3년)	3.44	3.31	3.07	3.04	3.33	3.33	3.30	3.25
소비자물가지수		106.42	106.70	107.55	107.41	107.87	107.84	108.76	109.13
환율	원/달러	1,133.54	1,090.86	1,084.08	1,122.15	1,112.18	1,062.10	1,069.01	1,030.38
	원/엔화	1,441.20	1,346.13	1,175.64	1,137.42	1,124.22	1,058.26	1,039.62	1,008.72
KOSPI		1902.32	1940.24	1985.40	1932.58	1917.71	2009.31	1946.13	1,993.47
외환보유고		322,015	326,968	327,408	326,440	336,922	346,460	354,341	366,546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I-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3/4	4/4	1/4	2/4	3/4	4/4	1/4	2/4	3/4
보험 ¹⁾	174,037	201,794	195,836	139,623	138,497	164,155	133,551	177,189	-
- 생보	145,350	169,906	166,114	109,365	108,554	135,447	101,936	110,967	-
수입보험료	281,233	313,339	313,227	245,003	240,001	287,363	257,467	264,960	-
지급보험금	135,883	143,434	147,113	135,639	131,447	151,916	155,531	153,993	-
- 손보	28,687	31,889	29,722	30,258	29,943	28,708	31,615	66,222	-
원수보험료	167,265	180,624	169,569	173,584	171,156	186,613	183,082	63,299	-
원수손해액	138,578	148,736	139,847	143,326	141,213	157,905	151,466	297,077	-
은행	113,355	104,974	123,354	182,746	-31,782	229,979	272,496	250,005	104,703
- 일반 ²⁾	54,395	118,680	48,120	147,443	-40,955	128,580	199,612	231,527	45,795
- 신탁	58,960	-13,706	75,234	35,303	9,173	101,399	72,884	18,478	58,908
증권 ³⁾	67,718	-22,900	96,983	9,232	-5,597	-47,513	6,904	19,088	53,478
자산운용 ⁴⁾	32,104	21,299	183,595	44,093	-9,264	-41,835	96,918	16,946	196,161
종금 ⁵⁾	-17,161	-2,493	-21,220	-11,420	1,082	2,444	8,863	2,733	826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충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부록 표 I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2/4
생존	보험료	97,580	336,612	53,144	53,996	55,496	162,636	58,006	60,647
	증가율	88.9	87.6	-8.9	-39.6	-39.2	-32.0	-40.6	14.1
	구성비	31.2	29.2	21.7	22.5	19.3	21.1	22.5	22.9
사망	보험료	78,494	308,411	78,913	79,458	80,289	238,660	81,286	82,133
	증가율	8.8	7.4	3.3	4.1	4.0	3.8	3.6	4.1
	구성비	25.1	26.7	32.2	33.1	27.9	30.9	31.6	31.0
생사 혼합	보험료	68,084	221,677	47,606	46,222	45,910	139,738	50,697	51,639
	증가율	83.3	81.1	3.3	-15.4	-13.2	-9.0	-25.5	8.5
	구성비	21.7	19.2	19.4	19.3	16.0	18.1	19.7	19.5
변액 보험	보험료	55,297	212,230	52,577	51,368	51,498	155,443	51,884	51,246
	증가율	4.1	-0.3	0.4	-0.8	-2.5	-0.9	-6.2	-2.5
	구성비	17.7	18.4	21.5	21.4	17.9	20.1	20.2	19.3
개인계	보험료	299,455	1,078,929	232,239	231,044	233,194	696,477	241,873	245,665
	증가율	39.9	34.6	-0.4	-15.1	-15.0	-10.6	-19.2	5.8
	구성비	95.6	93.6	94.8	96.3	81.1	90.2	93.9	92.7
단체	보험료	13,772	74,156	12,765	8,957	54,169	75,891	15,594	19,295
	증가율	40.1	-3.1	5.3	-2.4	38.6	25.7	13.2	51.2
	구성비	4.4	6.4	5.2	3.7	18.9	9.8	6.1	7.3
합계	보험료	313,227	1,153,086	245,003	240,001	287,363	772,367	257,467	264,960
	증가율	39.9	31.3	-0.1	-14.7	-8.3	-8.0	-17.8	8.1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에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2/4분기는 FY2013 1/3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1),2),3)}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1/4	2/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28,657	110,254	26,096	26,434	29,850	82,379	30,778	30,000
	증가율	8.4	9.5	1.5	-1.7	3.0	1.0	7.4	15.0
	지급률	29.4	32.8	49.1	49.0	53.8	50.7	53.1	49.5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5,951	173,710	42,868	42,859	44,217	129,944	45,364	41,527
	증가율	12.2	13.5	2.0	-1.3	4.6	1.7	-1.3	-3.1
	지급률	58.5	56.3	54.3	53.9	55.1	54.4	55.8	50.6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27,628	104,948	27,646	25,171	27,710	80,527	32,856	30,000
	증가율	90.1	97.9	-8.1	4.7	19.6	4.1	18.9	8.5
	지급률	40.6	47.3	58.1	54.5	60.4	57.6	64.8	58.1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30,318	118,839	26,178	28,021	32,989	87,188	28,805	32,988
	증가율	-3.7	3.5	-5.9	-6.0	6.8	-1.5	-5.0	26.0
	지급률	54.8	56.0	49.8	54.6	64.1	56.1	55.5	64.4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32,553	507,751	122,788	122,485	134,766	380,038	137,803	134,516
	증가율	16.9	20.4	-2.3	-1.4	7.5	1.3	4.0	9.6
	지급률	44.3	47.1	52.9	53.0	57.8	54.6	57.0	54.8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4,560	58,159	12,851	8,963	17,151	38,964	17,728	19,478
	증가율	3.4	-39.0	-7.0	-23.5	-5.1	-10.6	21.8	51.6
	지급률	105.7	78.4	100.7	100.1	31.7	51.3	113.7	100.9
전체	지급보험금	147,113	565,911	135,639	131,447	151,916	419,002	155,531	153,993
	증가율	15.4	9.5	-2.8	-3.3	5.9	0.0	5.7	13.5
	지급률	47.0	49.1	55.4	54.8	52.9	54.2	60.4	58.1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2/4분기는 FY2013 1/3분기와 비교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1),2),3),4)}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⁶⁾	1/4	2/4
생존 보험	사업비	10,399	39,603	7,859	7,929	8,742	24,530	7,572	8,116
	증가율	13.4	10.2	-13.4	-20.5	-13.9	-16.0	-27.2	3.3
	사업비율	10.7	11.8	14.8	14.7	15.8	15.1	13.1	13.4
사망 보험	사업비	25,280	93,050	23,143	23,723	25,309	72,174	23,332	25,941
	증가율	20.7	14.8	7.6	4.8	7.1	6.5	-7.7	12.1
	사업비율	32.2	30.2	29.3	29.9	31.5	30.2	28.7	31.6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5,947	23,698	4,712	4,529	4,908	14,148	4,378	4,505
	증가율	-4.3	-2.5	-21.1	-20.2	-19.6	-20.3	-26.4	-4.4
	사업비율	8.7	10.7	9.9	9.8	10.7	10.1	8.6	8.7
개인 보험계	사업비	41,626	156,351	35,714	36,181	38,958	110,852	35,282	38,562
	증가율	14.6	10.7	-2.4	-5.4	-2.3	-3.4	-15.2	8.0
	사업비율	13.9	14.5	15.4	15.7	16.7	15.9	14.6	15.7
단체 보험계	사업비	1,221	4,687	1,005	1,083	1,334	3,422	1,059	1,267
	증가율	8.9	7.5	-10.0	-10.8	17.4	-1.3	-13.3	26.1
	사업비율	8.9	6.3	7.9	12.1	2.5	4.5	6.8	6.6
전체	사업비	42,847	161,038	36,719	37,263	40,292	114,274	36,341	39,830
	증가율	14.4	10.6	-2.6	-5.6	-1.8	-3.3	-15.2	8.5
	사업비율	13.7	14.0	15.0	15.5	14.0	14.8	14.1	15.0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4)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2/4분기는 FY2013 1/3분기와 비교함.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6)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1/4	2/4
화재	보험료	808	3,293	755	734	923	2,413	759	739
	증가율	23.2	25.0	-3.4	-3.1	-2.4	-2.9	-6.1	-2.1
	구성비	0.5	0.5	0.4	0.4	0.5	0.4	0.4	0.4
해상	보험료	1,493	8,230	2,122	2,257	1,638	6,016	1,747	1,927
	증가율	-36.1	-5.4	-9.9	1.8	-24.3	-10.7	17.0	-9.2
	구성비	0.9	1.2	1.2	1.3	0.8	1.1	1.0	1.1
자동차	보험료	31,376	128,416	32,338	32,190	32,907	97,435	32,377	33,665
	증가율	-3.5	-1.5	-0.9	0.1	2.0	0.4	3.2	4.1
	구성비	18.5	18.7	18.6	18.8	17.1	18.1	17.7	19.1
보증	보험료	4,013	15,816	3,801	3,461	3,976	11,238	3,842	3,651
	증가율	-1.7	4.2	-6.9	-9.1	1.6	-4.8	-4.3	-3.9
	구성비	2.4	2.3	2.2	2.0	2.1	2.1	2.1	2.1
특종 ²⁾	보험료	12,249	48,557	13,064	11,673	12,435	37,172	12,566	13,099
	증가율	28.6	17.8	5.6	-1.6	3.1	2.4	2.6	0.3
	구성비	7.2	7.1	7.5	6.8	6.4	6.9	6.9	7.3
해외 원보험	보험료	1,418	4,876	1,390	1,688	1,762	4,840	1,376	1,455
	증가율	40.8	54.1	39.5	47.1	34.0	40.0	-3.0	4.7
	구성비	0.8	0.7	0.8	1.0	0.9	0.9	0.8	0.8
장기 손해	보험료	103,114	401,896	103,238	106,053	106,187	315,478	110,858	109,526
	증가율	6.8	17.7	4.9	5.4	6.4	5.6	7.5	6.1
	구성비	60.8	58.6	59.5	62.0	55.1	58.7	60.6	60.8
개인 연금	보험료	10,628	41,489	10,622	10,573	10,633	31,829	10,349	10,247
	증가율	13.8	21.1	7.8	2.7	-0.7	3.1	-2.6	-3.5
	구성비	6.3	6.1	6.1	6.2	5.5	5.9	5.7	5.7
퇴직 보험	보험료	0	9	3	0	7	10	0	1
	증가율	-100.0	-99.0	229.6	-100.0	233.6	18.8	-	-76.1
	구성비	0.0	0.0	0.0	0.0	0.0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4,469	32,840	6,251	2,527	22,374	31,152	9,209	5,905
	증가율	-1.7	3.3	-4.1	-42.4	28.1	9.8	106.1	-5.5
	구성비	2.6	4.8	3.6	1.5	11.6	5.8	5.0	3.3
계	보험료	169,569	685,422	173,584	171,156	192,842	537,582	183,082	180,217
	증가율	5.5	12.4	3.3	2.3	6.8	4.2	8.0	3.8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2/4분기는 FY2013 1/3분기와 비교함.

2)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3) FY2013은 2013년 13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1),2),3)}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1/3	2/3	3/3	1/4	2/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6.1	56.8 ⁴⁾	60.9	44.0	73.2	50.2	
	사업비율	55.9	55.3	45.2	50.5	50.0	43.7	
	합산비율	112.0	112.1	106.1	94.5	123.2	93.9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77.8	48.6	58.0	67.5	89.5	18.5	
	사업비율	39.2	31.3	29.7	55.4	36.3	27.1	
	합산비율	117.0	79.9	87.7	122.8	125.8	45.6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72.3	155.0	31.7	45.8	72.5	7.4	
	사업비율	48.2	12.4	10.2	34.4	13.1	15.1	
	합산비율	120.5	167.4	41.9	80.2	85.6	22.5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9.3	59.8	71.1	66.1	69.2	71.0	
	사업비율	24.3	18.7	23.1	20.9	19.6	16.9	
	합산비율	93.5	78.5	94.2	87.0	88.8	87.9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67.6	63.8	54.1	116.9	64.6	89.4	
	사업비율	41.1	37.7	43.4	43.0	42.1	49.7	
	합산비율	108.7	101.5	97.5	159.9	106.7	139.1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65.6	59.8	60.0	52.8	72.9	45.1	
	사업비율	1.9	30.3	27.6	30.1	29.4	28.1	
	합산비율	67.5	90.1	87.6	82.9	102.3	73.2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3.7	84.4	89.3	90.3	84.0	84.4	
	사업비율	21.4	21.2	19.1	22.5	20.8	19.8	
	합산비율	105.2	105.6	108.4	112.8	104.8	104.2	
장기보험 ³⁾	경과손해율	83.2	83.8	83.5	84.0	85.1	84.4	
	사업비율	19.9	18.4	18.3	18.4	18.0	17.9	
	합산비율	103.0	102.2	101.8	102.4	103.1	102.3	
전체	경과손해율	81.6	82.5	81.8	82.5	83.3	80.6	
	사업비율	21.1	19.5	19.2	20.4	19.1	18.7	
	합산비율	102.7	102.0	101.0	103.0	102.3	99.3	

주: 1) 개인연금, 퇴직보험, 그리고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4)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금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부 록 Ⅱ.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90호 (7. 7)	미국 퇴직연금가입자의 은퇴 설계 제언 (이아름) · 최근 세계적인 고령화와 은퇴 인구 증가로 연금 혜택이 감소하고 적립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퇴직연금 유형이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바뀌는 추세임. · 퇴직연금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및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산보다는 설정한 목표 소득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함. (HBR 등)
제290호 (7. 7)	영국의 네덜란드식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시사점 (최원) · 영국 정부는 네덜란드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비용 효율성과 수익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네덜란드식 퇴직연금제도는 영국의 실정과 맞지 않는 제도이며,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음. ·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FT, 국민일보 등)
제291호 (7. 14)	미국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증가와 시사점 (김진익) · 최근 미국 보험회사들은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채권신용등급이 낮은 증권 및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비전통적 투자인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저금리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역사적으로 보험회사의 전통적인 투자의 경우 전문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투명성 결여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A.M. Best)
제291호 (7. 14)	중국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현황 및 전망 (이소양) · 보험회사 신용평가기관인 A.M. Best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또한 향후 중국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가 개선되면 지급여력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중국 손해보험회사들은 적절한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A.M. Best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91호 (7. 14)	한·중 정상회담 경제·금융 분야 성과에 대한 중국의 평가 (이소양) · 다유뉴스(Dwnews)는 한·중 FTA가 연내 체결될 경우 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지형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 중국 시대주보(時代周報)는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 시장과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개설, RQFII 한도 부여가 한국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 역외 위안화 허브 형성, 위안화 국제화 진전 가속화 등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함. · 중국 언론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경제·금융 분야 성과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달성한 가장 큰 결실로 평가함. (다유뉴스, 시대주보, 인민망, 신량망 등)
제292호 (7. 21)	2013년 세계 보험산업 현황과 전망 (채원영) · 2013년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2012년보다 1.1%p 낮아진 1.4% 성장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전세계 수입보험료의 47.4%를 차지하는 선진시장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2012년에 비해 0.2% 감소하였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2013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8.0% 감소한 1,450억 달러로 세계 8위, 보험침투도는 11.9%로 세계 5위, 보험밀도는 2,895달러로 세계 20위를 기록함. (Swiss Re 등)
제292호 (7. 21)	보험산업이 주목해야 할 신종리스크(New Emerging Risk) (이해량) · Swiss Re는 7월 8일 보험산업이 주목해야 할 26개의 리스크(emerging risks)를 발표함. · 보험산업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위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신흥국 경제성장을 둔화, 유로존 경제위기, 거시금융정책의 단기실적주의, 그리고 대기오염 등이 제시됨. · Swiss Re는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탈퇴 위험(Secession risks), 금융규제의 국제화 등을 보험산업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통 수준인 위험으로 제시함. (A.M. Best, 금감원)
제293호 (7. 28)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주요이슈 (최원)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Phase II) 최종안을 2015년 초에 발표할 계획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된 IFRS4 2단계 공개초안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의 보험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A. M. Best는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산업의 재무상황과 손익구조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이슈를 제시하였음. (A.M. Best, 금감원)
제293호 (7. 28)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 추진 현황 (이아름) ·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이 발효된 지 4년이 경과하였으나 세부 규정이 완성되지 못하여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 도드-프랭크법은 3,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기관들이 세부 규정을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큼. · 한편, 일부 제정된 도드-프랭크법 세부 규정도 소송 및 업계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화당은 도드-프랭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WSJ, 한국금융연구원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94호 (8. 4)	영국 퇴직연금 자동가입제와 퇴직연금시장 전망 (김진익) · 영국의 연금정책연구소는 확대된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로 인해 2030년 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영국은 근로자의 노후준비가 부족하고 기존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연금체제에 퇴직연금 자동가입이라는 개혁적 제도를 2008년 도입하였음. · 영국 연금정책연구소와 보험업계는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를 정부와 업계 간 공조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며, 최근 퇴직연금개혁 방안과 함께 확정기여형 연금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PPI 등)
제294호 (8. 4)	아시아 주요국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현황 및 시사점 (이소양) · 부동산 투자컨설팅 기업인 CBRE(CB Richard Ellis)에 따르면 아시아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보험회사의 총자산 대비 부동산 투자 비중은 아직까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 향후 아시아 주요국 보험회사는 투자규제 완화로 부동산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를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아시아 주요국 보험회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 노하우가 축적되기 전까지 공동투자 및 클럽딜 등의 직접방식이나 부동산 사모펀드 등의 간접방식을 통한 투자가 바람직해 보임. (CBRE 등)
제295호 (8. 11)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 활성화 관련 논의 (채원영) · IMF와 BOE는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 기관투자자들의 경기순응적인 투자 행태로 인해 자산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 또한 2014년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회의에서는 “보험회사의 장기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요인”이라는 주제로 보험회사의 장기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런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BOE, IMF, 한국은행 등)
제295호 (8. 11)	아르헨티나 채무불이행의 원인과 평가 (이해랑) ·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계 헤지펀드들과 아르헨티나 정부 간의 채무조정 협상 실패로 2001년 이후 두 번째 채무불이행 상태를 맞게 됨. · 아르헨티나의 이번 채무불이행은 2001년 전면적 채무불이행과는 다른 기술적 채무불이행임. · 이번 채무불이행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헤지펀드들과 아르헨티나 정부 간 소송이 장기화되어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NAIC 등)
제296호 (8. 18)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우려 확대 (최원) · 유로존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낸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 증가가 글로벌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국경제, 국제금융센터, FT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96호 (8, 18)	인구 고령화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이아름) · 최근 무디스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향후 20년간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미국 컨퍼런스보드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와 저축률 하락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함. · 무디스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기적으로는 노동참여율 제고와 이민규제 완화 등 정책적 노력이, 장기적으로는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무디스 등)
제297호 (8, 25)	생명보험회사의 성공적 빅데이터 활용방안 (김진익) · 생명보험회사들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이 활발하지 않지만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고객관계 강화와 신시장 개척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들은 보험계약자들의 편익이 제고될 경우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와 공유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며, BCG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략적 실행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BCG 등)
제297호 (8, 25)	인도의 보험회사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와 시사점 (이소양) · 2014년 7월 10일 인도 재무부는 보험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기존의 26%에서 49%로 상향 조정하는 완화조치안을 발표함. · 인도 브랜드 자산재단(Indian Brand Equity Found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보험시장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크게 성장하였지만,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도시장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는 아직 많지 않았으나 규제완화가 시행될 경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IBEF, Ernst & Young 등)
제297호 (8, 25)	호주,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2014~17년 국가전략 도입 (김혜란)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호주 국민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2014~17년 국가전략(National Financial Literacy Strategy)을 도입함. · 상기 전략은 금융이해력 향상을 통한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 개선이라는 비전하에 개인, 가계,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라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ASIC은 금융이해력 향상이 금융시장 효율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개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Asia insurance review 등)
제298호 (9, 1)	저금리 지속의 영향과 주요국의 대응 방안 (채원영) · 2009년 이후 캐나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평균 2.6%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민감도가 높은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높아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생명보험산업의 영향과 규제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Swiss Re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98호 (9. 1)	연금제도 평가 기준과 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이해량) · 최근 Earnst & Young(이하 EY)은 주요국의 연금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을 제시함. · 전문가들은 현행 연금제도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연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연금규모의 적정성, 연금의 지속가능성, 효율성과 효과성, 연금 운용성과, 정치적 지원 등의 연금제도 평가 기준을 제시함. · 전문가들의 연금제도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각국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금 기대수익의 재조정, 금융시장과 연금시장의 공동발전, 연금 운용의 투명성, 투자전략 재평가 등을 제안함. (EY 등)
제299호 (9. 15)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가 미칠 영향과 시사점 (이아름) · 미국 연준(Fed)은 2014년 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중 종료할 예정임. · 미국 경기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쟁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은 양적완화 종료 6개월 후인 2015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양적완화 종료 후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과 더불어 중국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불안 확대 등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해야 함. (FRB, WSJ 등)
제299호 (9. 15)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와 자동차보험 (최원) · 미국 재보험 회사인 RGA(Reinsurance Group of America)는 운전 중 주의 분산 행위(driver distraction)와 자동차 사고 위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동차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보고서를 발표함. · 언더라이팅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더욱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전 세계적으로 운전습관을 언더라이팅 또는 자동차보험 요율에 반영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RGA 등)
제300호 (9. 22)	미국, 특약형 건강보험시장 성장과 원인 (김진익) ·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생명보험 시장이 위축된 바 있던 미국 생명보험시장에서 특약 형식의 건강보험상품판매가 매년 고성장을 실현해 그 원인에 대해 주목받고 있음. · 최근의 특약형 건강보험은 세제혜택과 함께 기존 생명보험과 차별화된 편익을 제공하면서 성장함. · 미국의 특약형 건강보험상품의 성공적 판매 증가는 보험소비자의 니즈에 부합되고 신뢰와 편익을 제공하는 보험상품 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The Geneva Association, LIMRA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00호 (9. 22)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규제 변화 및 시사점 (이소양)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에 따르면 2007~2013년 중국 생명보험 투자형 상품 판매는 크게 증가했으나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 부진으로 생명보험 해약금도 대폭 상승함. · CIRC는 2013년부터 보험회사 본연의 보험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생명보험 전통형 상품 활성화 방안들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전통형 상품 수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생명보험시장 상품포트폴리오의 변화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전통형 상품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CIRC, PWC 등)
제301호 (9. 29)	고령층 CI보험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고려 사항 (이해량) · Gen Re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CI(Critical Illness)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지적하며, 고령화에 따른 CI보험의 성장가능성을 진단하고, 고령층 대상 CI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 · 국내 보험사들은 고령층 대상 CI보험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CI보험의 가입 및 보장범위, 질병별 가중치에 대한 검토, 연령별 보장질병 및 위험요인의 표준화체 개념 명확화 등을 고려해야 함. · 보험사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및 보험의 경험통계 수집과 분석을 통한 위험률 예측 및 합리적 보험요율 산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Gen Re, 국립 암센터 등)
제301호 (9. 29)	외국계 보험회사 중국시장 진출 성과와 시사점 (이소양) · 최근 Ernst & Young이 중국시장의 외국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외국계 보험회사는 중국시장에 대한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중국계 보험회사와 경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함. · 그러나 최근 발표된 중국 보험산업과 관련된 일련의 금융규제 개혁방안들은 외국계 보험회사가 중국시장에서 성장세를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을 것임. · 중국 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향후 외국계 보험회사는 상기 금융규제 개혁방안들을 잘 활용할 경우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rnst & Young 등)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정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정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정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중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운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 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 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 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전성주, 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강민규, 이해랑 2014.8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2014.10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4년 가을호 (통권 71호)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